

소성의 향기

2005. 제11집



태안문화원

소성의 향기

● 제 11 집 ●

태안문화원

❖ 표지사진



교육문화유공송덕비 (2005.12. 건립)

오늘의 태안이 있기까지 후세교육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여 주신 5인에 대하여 태안문화원은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앞에 송덕비를 세웠다.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이모저모



▲ 정월보름에 태안군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제례문화 중앙대제



▲ '소금굽는 사람'이 출연한 문화기금을 마금리 후원금으로 전달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이모저모



▲ 의왕-태안문화원 자매결연 조인식



▲ 태안군을 방문한 의왕문화원의 난도기행



제5회 군민의 날 축제 ▶
(8개 읍·면 풍물경연대회)



◀ 제5회 군민의 날 축제
(정사초롱 들고...)

제5회 군민의 날 축제 ▶
(떡메치기)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이모저모



▲ 이원면 관리 벚가릿대놀이



▲ 제1회 태안6쪽마을요리축제(소달구지 타기 체험)



자염축제 ▶
(소달구지 타고...)



◀ 자염축제(퍼포먼스)

자염축제 ▶
(소금을 직접 만들어 보자)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이모저모



▲ 생활문화실천운동 강연(강사 권연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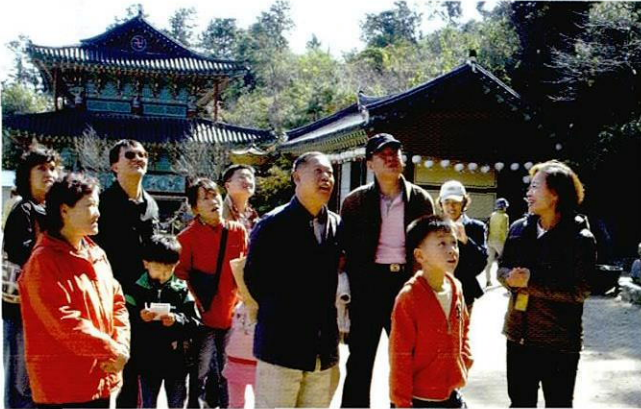


▲ 움직이는 문화공연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이모저모



가족문화체험 1차
(두부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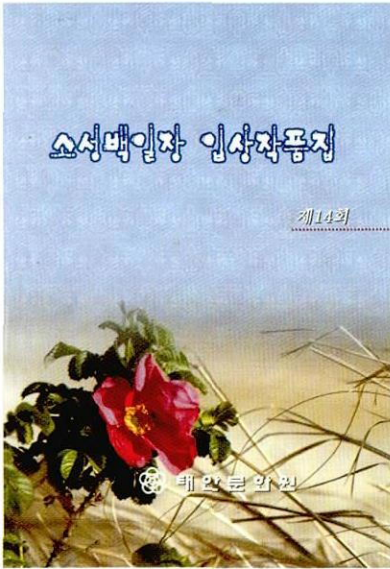


가족문화체험 2차
(논산권 답사)

가족문화체험 3차
(도비산 생태기행)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이모저모



▲ 제14회 소성백일장 입상작품집

"매일 첫째, 셋째 토요일은 영화 보는 날"

2005 주말 영화교실

한상(비타리지움)에서 2005년 주말(오전 10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오세요.

(2005년도 영화상영 계획)

주	영화 상영	주	영화 상영
1회	태극기 휘날리며	20	동해물과 파도
2회	가말대	21	봄을 기다리
3회	황태자의 귀족가문의 사랑	22	추사선생
4회	태극기 휘날리며	23	추사선생
5회	태극기 휘날리며	24	추사선생
6회	태극기 휘날리며	25	추사선생
7회	태극기 휘날리며	26	추사선생
8회	태극기 휘날리며	27	추사선생
9회	태극기 휘날리며	28	추사선생
10회	태극기 휘날리며	29	추사선생
11회	태극기 휘날리며	30	추사선생

● 기 간 : 2005년 4월 2일 ~ 11일 19명 (매일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3시)
 ● 장 소 : 태연문화원 2층 강당
 ● 주 회 : 태연문화원 / 074-21192 / http://taeyon.cul.or.kr
 ● 후 원 : 태연군, 태연신문사, 태연유년회

※ 영화자료 유증: 태연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주말영화교실



◀ 소성백일장



여름문화예술체험 ▶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이모저모

복권기금(기체조) ▶



◀ 복권기금(생태체험)

복권기금(전통놀이체험) ▶



◀ 복권기금(독살체험)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이모저모

문화학교
(수지침)



문화학교
(사물놀이)

문화학교
(전통무용)





▲ 문화학교(통기타)



▲ 문화학교(요가)

책을 펴내며

소중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우영 _ 태안문화원장

이제 소성의 향기가 그 열 한 번째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업으로 이 책을 발간하면서 일 년의 사업을 되짚어 봅니다.

2005년도는 태안 방문객이 유난히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의왕문화원과 자매결연을 하여 상호 방문을 통한 문화적 교류를 하였고 각종 문화체험장소로 태안군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의 태안방문을 비롯하여 대전 서구문화원, 충북 진천문화원, 경기 의왕문화원 등 1,000여 명의 체험단이 태안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지역문화와 자연 속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태안군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올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이제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문화체험장소 중의 한곳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뿌

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에 만족을 할 수 없으며 더욱더 분발하여 친환경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태안문화원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뚜렷한 한 가지 사업을 되새겨 본다면 '교육문화 유공송덕비'를 건립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고증을 통해서 진행된 이 사업은 태안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과 업적을 남긴 교육문화유공자 5인을 선정하여 송덕비를 세움으로써 지역적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선조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상기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잊히지 않고 더욱 빛나는 공적을 후세 사람들이 항상 배움의 지표로 삼아 태안지역의 교육문화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2005년 태안문화원은 지역문화계승발전을 위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다고 자부하며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소성의 향기

▶▶ 제11집

차 례

1. 발간사 / 태안문화원장 정우영 ...● 14
2. 태안 교육 유공자 5인의 발자취 / 오석민 · 서홍석 · 유병덕 · 이금숙 ...● 17
3. 태안지역의 도교유적(道敎遺跡) / 정우영 ...● 111
4. 이원면(梨園面) 행정구역(行政區域)
변천(變遷)에 대한 고찰(考察) / 이은우 ...● 147
5. 백화산성의 봉화대(烽火臺) / 윤계동 ...● 157
6. 안면도 고남면 누동리 당산제(堂山祭) / 강인식 ...● 163
7.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과거사는
참여정부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 조종식 ...● 169
8. 불력(佛力)으로 왜구(倭寇)를 몰아내다 / 김영규 ...● 181
9. 부 록 ...● 225

태안 교육 유공자 5인의 발자취

전우(田愚), 조희천(趙羲天), 이희열(李希烈), 김병년(金炳年), 박채근(朴彩根) -

오석민 · 서흥석 · 유병덕 · 이금숙 _ 충남역사문화원

• < 목 차 > •

- I. 들어가는 글
- II. 개화기 근대교육의 태동과정
- III. 태안지역 근대교육의 전개과정
- IV. 나가는 글
- ◆ 도움을 주신 분들
- ◆ 참고문헌 및 자료

태안 교육 유공자 5인의 발자취

- 전주(田愚), 조희천(趙羲天), 이희열(李希烈), 김병년(金炳年), 박채근(朴彩根)

I. 들어가는 글

조선후기 북벌론과 북학파로 대변되는 정치·사상적 논쟁과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조선사회는 영·정조라는 문예의 부흥기를 보냈다. 최근 연구성과에 의하면, 북학파의 주장이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실제로는 서양의 과학적 발전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서학을 검토한 학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서구 열강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고,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서구 열강의 압박은 점점하여만 갔다. 그러한 쇄국정책 속에서도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억압 또한 후대로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한 가운데 1876년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쇄국정책은 폐기되었고, 대외적인 개방은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되었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 서구 문물과 지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보수적인 위정척사파에서조차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수용하는 상황은, 마치 중국의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이나 일본의 화혼양재론(華魂洋才論)과 흡사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청나라에는 영선사 일행을 파견하였다. 근대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당을 시작으로 향교와 서원, 그리고 성균관을 축으로 하는 전통교육은 쇠퇴하였고, 정부와 개화사상가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식 교육이 시작되었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었고, 그 이듬해 2월 고종이 「교육입국(教育立國)의 조서(詔書)」를 반포하면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근대식 교육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도 교육제도의 변화는 전국적인 경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기호학파의 본거지로서 개화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컸던 탓에 그 시기가 다소 늦어졌을 뿐이었다.

1898년 공주의 공주사립소학교(公州私立小學校)를 시작으로 곳곳에 관·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현 태안군 관내에는 1905년의 화양의숙(華陽義塾)이 최초의 근대적 학교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광영신숙(廣英新塾)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11년 화양의숙이 태안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된 이후, 곳곳에 공립보통학교와 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아래의 논의는 위와 같은 교육사적 흐름 속에서 현 태안군 관내의 개화기를 전후한 상황을 정리하고, 그 시기에 태안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5인의 교육자들을 조명한 결과이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기념비 건립을 추진되었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기념비 건립이 본고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한 제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안 지역의 근·현대 교육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 볼 때, 기초자료를 정리한 연구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예상치 못했던 오류에 대한 질책을 기대하는 바이다.

II. 개화기 근대교육의 태동과정

1. 개화기 근대교육의 전개과정

한국에서 개화기¹⁾ 이후 서당과 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하던 전통교육은 쇠퇴하였고, 서구적 신교육을 수용하여 신식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육체제 전반이 서구적 근대교육제도로 재편되어 갔다. 그러한 근대식 교육은 주로 중앙 정부와 민족 선각자,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 등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었으며, 그 변화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추진되었다. 즉 조선왕조는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부산(1876년 10월), 원산(1880년 4월), 인천(1883년 1월)을 차례로 개항하였고, 1882년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구미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문화에 대한 지식을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조선정부에서는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청에 영선사 일행을 파견하였고, 외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실제로 배우고자 하였다.

조선정부에서는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근대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근대적 교육을 시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883년에는 통상아문(通商衙門)의 부속기관으로 동문학(同文學, 일명 통변학교)을 개교하여 영어·일어·필산(筆算) 등을 교육하였고, 1886년에는 서울 정동(貞洞)에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Royal English School, 1886년)을 설립하였다. 육영공원에서는 길모어(G. W. Gilmor), 번커(D. A. Bunker), 헐버트(H. B. Hulbert) 등 3명의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 수학, 자연과학, 경제학, 국제법, 역사, 지리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도 근대교육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교육제도

1) 개화기라는 개념의 적합성과 그 시기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하며, 다만 전통교육이 쇠퇴하고 서구적 신교육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자 하며, 시기상으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로 보았다.

의 전면적인 재정비는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된 이듬해 2월 고종이 발표한 「교육입국(教育立國)의 조서(詔書)」에서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종의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1895년 3월 칙령에 의해 「학부관제」를 제정 공포하였고, 이어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사범학교 관제(1895년 4월)」를 비롯하여 「외국어학교 관제(1895년 5월)」, 「성균관 관제(1895년 7월)」, 「소학교령(1895년 10월)」 등 다양한 교육관련 칙령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적 준비를 단행하였고, 전국 각지에 근대식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1895년 서울에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하여 외국어학교, 법관학교, 한성중학교, 수하동소학교, 영동소학교, 정동소학교, 제동소학교, 양사동소학교를 설립하였다. 지방에는 평양고등학교와 관찰사 소재지인 수원, 공주, 충주, 광주, 전주, 진주, 대구, 춘천, 평양, 영변, 해주, 함흥, 경성 등에 관립 소학교를 1개교씩 설립하였다. 1896년에는 서울에 불어학교와 아어학교를 설립하였고, 인천, 강화, 양주, 파주, 광주, 개성, 부산, 제주, 청주, 순천, 남원, 영광, 안동, 원산, 경산, 경흥, 임천, 안악, 의주, 강계, 성주, 북청 등지에 학부 지정 공립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897년에도 서울에 우무학당과 전무학당을, 1899년에는 경성의학교와 상공학교를, 1900년에는 한성고등학교, 광무학교, 한어학교, 독어학교를, 1904에는 농상공학교를 설립하는 등 신문화 수용과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관·공립학교를 설립하였다.²⁾

신교육 수용과 근대학교 설립은 정부와 더불어 기독교 계통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한층 탄력을 받았다. 선교사의 교육활동은 1884년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감리교 선교사 매클레이(R. S. Maclay)가 내한하여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 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이며 의사인 알렌(H. N. Allen) 부부가 의사 자격으로 입국한 후, 1885년 2월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모체가 되는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하여 의료활동과 함께 서양의학을 교육하였다. 1885년 8월에는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정동

2) 이사용, 「개화기 경기교육에 관한 고찰」, 『畿甸文化研究』Vol 29-30, 仁川教育大學校 畿甸文化研究所, 2002, p.196.

에 최초의 기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이듬해인 1886년 고종황제로부터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교명을 하사받았다. 1886년에는 감리교 여선교사인 스크랜튼(M. F. Scranton)이 한국여학교의 시초인 이화학당(梨花學堂)을,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는 경신학교(敬新學校)의 전신인 언더우드학당을 설립하였고, 1897년 6월에는 미국 북장로교의 여의사이자 선교사인 엘레스(A. J. Ellers)가 정동여학당(貞洞女學堂)을 세움으로써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설립을 이끌었다. 이 외에도 1889년에는 호주 장로회 소속의 데이비스(Davis) 남매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1892년에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1896년에는 캐나다 북장로교에서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사업과 동시에 교육과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³⁾ 그러한 결과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는 모두 796교로, 이들 학교는 신문화·신교육 수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⁴⁾

한편 이 시기에는 문호개방과 함께 격화된 열강의 침략에 대응해서 민족 내부적으로도 민족자강(民族自強)을 통해 자주적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대학교의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주적인 근대학교 설립은 개화사상에 심취한 선각자들과 인천·원산·부산 등 개항지로서 일찍 외세의 침략을 몸소 체험한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가운데 1883년 덕원부(德源府) 음민들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원산학사(元山學舍)는 민(民)의 주도로 설립한 최초의 근대학교로 볼 수 있다. 원산학사는 관(官)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이에 앞서 개항지인 원산에서 일본 상인들의 침투를 경험한 주민들이 민족의 권익 수호와 외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기금을 모으는 등 학교설립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높다. 이후에도 경향 각지에서 사립학교가 세워졌는데, 원산학사와 더불어 초기의 대표적인 민간인 사립학교로는, 특명전권공사로 구미 각지를 순방하고 돌아온 민영환(閔永煥)이 외국어와 선진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1895년 설

3) 이시용, 앞의 논문, p.197.

4) 손인수, 「신교육의 발달과 근대학교의 성립」, 『延世醫史學』Vol. 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998, p.248.

립한 흥화학교(興化學校), 서울 수하동의 을미의숙(乙未義塾), 1896년 민영기(閔永綺)가 세운 중교의숙(中橋義塾), 1899년 안창호(安昌浩)가 고향인 강서 지방에 세운 점진학교(漸進學校)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점진학교에서는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하였다.

민간인에 의한 학교설립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민족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또한 교육 단체를 조직하면서 한층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학회를 조직한 후에 학교를 세우는 방식을 택했다. 황해도·평안도·함경도 인사들은 서북학회(西北學會)를 조직한 후 1907년 서북협성학교(西北協成學校)를 세웠고, 경기·충청도 인사들이 조직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는 1908년 기호학교(畿湖學校)를 설립하였다. 대한동인회(大韓同寅會)에서는 1907년 동인학교(同寅學校)를, 김윤식·신기선·이용식 등이 조직한 대동학회(大同學會)는 1908년 법률교육을 목적으로 한 대동전수학교(大東專修學校)를, 정현(鄭炫)의 발기로 조직된 보인학회(輔仁學會)에서는 1908년 보인학교(輔仁學校)를, 그리고 진학신·김운곡 등이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조직한 여자교육회(女子教育會)에서는 1906년 양구의숙(養閏義塾) 및 1907년 신학원(新學院)을 설립하였다.⁵⁾ 그 밖에도 교남교육회, 호남학회, 태극학회, 대한 흥학회, 관동학회, 국민 교육회 등이 조직되어 학교를 설립하고 근대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학회에서 세운 학교는 교육진흥과 실력양성을 통한 민족 자주화를 사명으로 하고, 영어, 일어 등의 외국어와 물리, 화학, 지지(地誌), 역사, 산술 등의 근대적 교과목을 가르쳤다. 이 외에도 개인이 세운 사립학교로는 1906년 5월 민영휘가 세운 휘문의숙(徽文義塾), 동년 7월과 9월에 각각 남궁억과 이용익이 세운 현산학교(峴山學校)와 보성학교(普成學校), 1907년 2월에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大成學校), 동년 8월과 12월에 이승훈이 세운 강명의숙(講明義塾)과 오산학교(五山學校) 등이 유명하다.

이와 같이 정부와 기독교계 선교사, 민족의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개화기 근대교육이 전개되는 가운데, 후대로 올수록 제도적 정비를 취하면서 형식과 내용의

5) 손인수, 앞의 논문, pp.253-255.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대적인 교육체제로 전환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따른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으로 점차 억압되고, 그 모습이 변형되어 갔다. 일제는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교육을 한민족의 우민화 교육, 점진적인 동화교육, 일본어 보급 및 친일교육 등 식민지 교육으로 재편하려는 각급 학교의 관제와 규칙을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6년제 소학교는 4년제 보통학교로 개편되었고,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전학년 과정에는 일본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인이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했다. 또한 관·공립 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파견하여 학교운영을 전담케 하였고,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자신들의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는 민족사학과 기독교계 사학을 통제하였다. 이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고, 1911년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부터 민족 스스로의 자주적인 근대교육은 거의 무산되었다.

2. 충남 지역의 근대교육

충남지역의 근대교육 또한 한국 근대교육사의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충남에서도 개화기에 근대교육이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관(官)과 개화사상을 수용한 민족 선각자, 기독교계 선교사들이 근대적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다만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근대적 학교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되었을 뿐이다. 즉 충남 지방에는 기독교 전래가 다소 늦었고, 기호학맥을 주도했던 성리학자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지방이었다. 그 결과 개화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우세했고, 자연히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근대교육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기독교계 사학(私學)의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1885년경부터 기독교계 사학이 건립되었던 서울과 관서지방보다 20년 정도 늦은 1900년대에 비로소 사학의 설립이 시작되었다.⁶⁾ 그 결과 충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민족 선각자들이 세운 민족계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충남교육사』, 1982, p.175.

사학이 초기 근대적 교육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민족계 사학들은 1908년 통감부의 사립학교령에 따라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면서 관학의 기반이 되었다.

충남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학교는 심기섭(沈驥燮)이 1898년에 공주에 설립한 공주사립소학교(公州私立小學校)로 알려져 있다. 심기섭은 서울에서 신학문을 수학한 인물로, 당시 충청도 관찰사였던 김가진(金嘉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소학교를 개설하였고, 필산(筆算)·국어·습자(習字) 등 기초적인 신학문을 가르쳤다.⁷⁾ 공주사립소학교는 통감부에 의해 실시된 사립소학교의 보통학교개편에 따라 1906년 공주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공주공립보통학교는 관찰부(觀察府) 소재지 학교로서 충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보통학교이다.

홍성(당시 홍주)에는 1900년에 영명학교(永明學校)가 설립되었다가 1895년의 소학교령에 의해 정부에 인수되어 홍주공립소학교로, 다시 1907년에는 홍주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태안과 서산지역에서는 1905년 이후 화양의숙(華陽義塾)과 광영신숙(廣英新塾), 풍전신숙(豐田新塾)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화양의숙은 태안의 재력가인 이희열(李希烈)이 1905년 9월 태안읍 옥하리(沃下里)에 세운 학교로 윤리·역사·지리·산수·영어·일어 외에 측량학(測量學)과 조림학(造林學) 등의 신학문을 가르쳤다. 화양의숙은 6년간 운영되다가 1911년에 태안공립보통학교(泰安公立普通學校)로 개편되었다. 광영신숙은 1906년 12월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지낸 김병년(金炳年)을 중심으로 한 안면읍의 유지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안면읍 승언리에 창건한 학교로 10여 년 동안 운영되다가 1920년에 안면도공립보통학교(安眠島公立普通學校)로 개편되었다. 서산에서는 한동벽(韓東壁)과 그의 부친 한상하(韓相河)가 1907년 풍전신숙(豐田新塾)을 건립하여 일본어와 산술(算術) 등을 가르쳤다. 풍전신숙은 이후 서령학교(瑞寧學校)로 개칭되었다가 1911년 서산공립보통학교(瑞山公立普通學校)로 개편되었다.

이 외에 충남 지역에 창설된 주요 사립학교로는 1907년 백야 김좌진 장군이 설

7) 앞의 책, p.176.

립한 호명학교(湖明學校), 같은 해 오스트리아 특명전권공사를 지낸 민철훈이 천원군 직산면에 세운 사립 경위학교(私立經緯學校),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柳重權)이 세운 흥호학교(興湖學校), 목천(木川)에 세워진 보명학교(普明學校), 덕천읍(德川邑)에 서승태가 설립한 덕명학교(德明學校), 1908년 당진군 면천에 군수 박지상과 지방유지들이 세운 사립 면상학교 등이 있었다. 연기군에는 1904년에 윤준식(尹俊植)과 한일동(韓日東)이 기양학교(岐陽學校)를 설립하였다가 1908년에 설립한 배달학교(倍達學校)로 흡수되었는데, 배달학교는 1912년에 연기공립보통학교(燕岐公立普通學校)로 개편되었다. 논산군에는 1905년 강경에 보명학교(普明學校)가, 연산에 배양학교(培養學校)가 설립되었고, 부여에는 소양학교(蘇陽學校)와 명양학교(名陽學校)가 1910년 이전에 설립되었다.⁸⁾ 앞서 살펴본 대로, 초기의 민족계 사학 또한 1911년 「조선교육령」 공포로 대부분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어 관학(官學)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천안, 부여, 한산, 보령, 청양, 영인, 태안, 대흥, 회덕 등지에 많은 수의 공립보통학교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초등교육기관이었으며, 보통학교 수준 이상의 공립학교는 1904년 공포된 「농공상학교관제」에 의거하여 1910년 도립 공주농림학교로 설립된 예산농림학교가 유일하였다.

충남의 선교계 사학은 다른 지역의 초기 선교계 사학보다 약 20여 년 늦은 1900년대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10년 2월 통감부의 조사에 의하면, 충남의 종교계 사학은 모두 18개교로, 각 종파별로는 감리교 2개교, 성공회 1개교, 천주교 2개교, 종파 미상 13개교이다. 이는 전남의 3개교, 강원 4개교, 함남 16개교, 경남 17개교보다는 많으나, 평북 121개교, 황해 183개교, 평남 261개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⁹⁾ 한편 개신교파 가운데 장로교와 감리교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을 각 종파별 전도구역으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선교사업을 겸하여 의료와 학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충청남북도에는 감리교 관할 지역에 속

8) 「公州 永明學校의 창설」, (중도일보 1988년 12월 14일자).

9)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앞의 책, p.181.

하였는데, 1901년 감리교에서는 충청도 감영(監營)이 있던 공주에 본부를 마련하였다. 선교사 중 충남에 가장 먼저 학교를 설립한 이는, 맥길(W. B. McGill) 목사의 후임으로 온 샤프(韓國名史, Robert A. Sharp) 목사였다. 그는 1905년 공주에 와서 교회당을 증축하고 남자학교를 시작하여, 국문 성경과 함께 근대식 교육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학교 이름을 명설(明設)이라 했다가 1906년 중흥(中興)으로 고쳤고, 1909년 다시 영명(永明)으로 고쳤는데, 이가 곧 지금의 공주영명고등학교이다.¹⁰⁾ 샤프가 학교를 마련하고 그 해 장티푸스로 별세하자 부인 사에리사(Mrs. Alice H. Sharp)가 선교사업을 계승하였다. 사에리사는 공주에 이어 논산읍에 1909년 영화여학교(永化女學校)와 진광남학교를, 강경에 만동여학교(萬東女學校)를 설립한바 있고, 그 밖에도 논산을 중심으로 하여 강경, 연산, 은진, 노성지방을 순회하면서 빈민구제와 유치원설립 등 선교를 겸한 많은 사회사업을 폈다.

사에리사 외에도 윌리엄(F. E. Williams)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이 학교 설립을 이끌었는데, 1910년 이전에 충남지역에서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대표적인 학교는 다음과 같다. 1908년 은진군 상두면에 설립한 사립 용흥학교(私立隆興學校)는 초등과를 설치하고, 수신, 한문, 산술, 지지, 역사, 도화, 음악, 체조 등을 가르쳤다. 사립 만동학교는 1909년 은진군 금구면에 설립하였으며 보통과를 설치하고, 수신(修身), 성경, 한문, 습자, 산술, 지지(地誌), 역사, 도화, 작문, 체조 등을 가르쳤다. 1909년 면천군 배방면에 설립한 사립 구괴학교(私立玫瑰學校)는 초등과와 고등과를 설치하고, 초등과 과목으로는 종교,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지

10) 기존 연구 결과 중에는 1906년 선교사 윌리엄(禹利岩, Williams) 부부가 설립한 中興學校를 영명학교의 개교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2005년 현재 학교측에서도 2006년을 개교 100주년으로 보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 미국인 선교사 샤프(史, Sharp) 부부가 설립한 明設學校가 있었으며,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은, 명설학교와 영명학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영한 선생의 논고가 있다. 『湖西의 香氣 14(改新敎의 전도와 敎育)』(중도일보 1989년 1월 18일자) 지금까지 明設學校의 교명 또한 明宣學校로 알려져 있었으나, 1921년 교사 주초석 아래에 묻었던 서류를 통하여 明設學校임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선교사 샤프는 1906년 3월 사망하였으며, 그 부인이 충청남도 곳곳의 학교 설립에 많은 공헌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샤프의 부인 사에리사(Mrs. Alice H. Sharp)는 남편 사망 후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오류로 보인다. 참고로 논산에 있었던 連山永明學校(1908년 제2회 졸업생 배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영명학교 졸업생 박철희(2005년 현재 대전 문지중학교 교장)의 미발표 원고에 의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지, 역사, 이과(理科), 도화, 체조, 창가, 농업, 상업, 고등과 과목으로는 종교, 수신, 일어, 수학, 지지, 역사, 박물(博物), 물리, 화학, 도화, 체조, 창가, 사범학(師範學), 법제, 경제, 농업, 상업 등을 설치 운영하였다. 1909년 한산군 남하면에 설립한 사립 기독교한영학교(私立基督韓英學校)는 중등예과와 중등본과를 설치하고, 중등예과 과목으로는 성경, 국어, 한문, 작문, 습자, 산술, 수학, 지지, 역사, 체조를, 중등본과 과목으로는 성경, 한문, 지지, 역사, 이학(理學), 상업, 체조, 외국어 등을 가르쳤다. 1909년 아산군 현내면에 설립한 기독교조성학교(基督朝星學校)는 보통과와 고등과를 설치하고, 보통과에서는 천주교학,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지지, 역사, 이과, 체조를, 고등과에서는 천주교학, 수신, 국한문, 일어, 지지, 역사, 이과, 화학, 박물, 수학, 도화, 음악, 체조를 가르쳤다.¹¹⁾

이처럼 충남지역에서의 근대교육은 일찍이 개화사상을 수용한 민족 선각자들이 주동하였으며, 후일 이 학교들이 관학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계 사학의 경우에는 190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교설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기독교계 사학이 초기 신교육의 수용과 근대학교의 설립을 주도했던 다른 지역보다 다소 늦었으나, 개화기 충남지역의 근대교육 또한 민족 선각자와 관(官), 기독교계 선교사 등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충청남도의 관립 학교의 운영도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한 궤를 그리게 되었다. 1932년 간행된 호남일보사(湖南日報社)의 『충청남도발전사(忠淸南道發展史)』에는 1931년 말 현재 충청남도 관내의 학교 현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표1 : 1931년 말 현재 충청남도의 학교 현황〉과 같다.¹²⁾

11) 「改新敎의 전도와 교육」(중도일보 1989년 1월 18일자)

12) 태안초등학교와 안면초등학교의 「연혁지」, 호남일보사의 『충남발전사』, 현 당진 정미초등학교의 「일람표」 등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도 퇴학이나, 추가 충원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편차가 전체 논의에 오류를 낳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되고, 또한 현재 자료로서는 그 착오의 원인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원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표1 : 1931년 말 현재 충청남도의 학교 현황〉

가. 초등교육

1) 공립소학교

(가) 공립심상소학교

학교명	소재지	창립연월	학급수	직원수	아동수	학교장
신탄진	대전군 북면	1911년 6월	1	2	27	竹野義龍
전의	연기군 전의면	1911년 9월	1	2	17	今井捷一
보령	보령군 주포면	1911년 9월	1	2	10	藤本學
아산	아산군 영인면	1911년 9월	1	2	6	利光壽
신례원	예산군 예산면	1912년 12월	1	2	8	石田鷹一
한산	서천군 한산면	1913년 9월	1	2	15	大野忠義
청양	청양군 청양면	1913년 9월	1	2	24	鹽井時芳
광천	홍성군 광천면	1915년 4월	2	3	37	小田綱男
당진	당진군 당진면	1915년 9월	1	2	24	立川千代吉
연산	논산군 연산면	1915년 12월	1	2	12	原田朝重
해미	서산군 해미면	1917년 1월	1	2	9	細谷任水
대평	연기군 금남면	1920년 5월	1	2	15	和氣清太
유성	대전군 유성면	1921년 2월	1	2	26	內之浦秀夫
합덕	당진군 합덕면	1926년 4월	1	2	12	渡瀬萬吉
계	14		15	29	242	

(2) 공립심상고등소학교

학교명	소재지	창립연월	학급수	직원수	이동수	학교장
대전	대전군 대전읍	1906년 4월	20	22	1,052	松崎甚助
강경	논산군 강경읍	1906년 4월	8	9	335	馬場三郎
조치원	연기군 조치원읍	1906년 9월	7	8	238	岡崎爲一
공주	공주군 공주읍	1907년 4월	7	8	315	坂元康男
예산	예산군 예산면	1908년 5월	3	3	86	廣田秋藏
마구평	논산군 부적면	1908년 6월	2	3	61	池上璣磨
논산	논산군 논산면	1908년 7월	6	6	223	豐田博夫
천안	천안군 천안읍	1908년 10월	6	6	196	有馬祐康
홍주	홍성군 홍주면	1909년 7월	3	3	82	箭内正
홍산	부여군 홍산면	1909년 10월	2	2	40	景山勳
서산	서산군 서산면	1910년 2월	3	3	73	得徳山
성환	천안군 성환면	1910년 2월	3	3	70	川島隆
규암리	부여군 규암리	1911년 1월	2	3	36	寺島鐵二
입장	천안군 입장면	1911년 4월	2	2	26	田中眞午
온양	아산군 온양면	1911년 10월	4	4	134	河本卯一
서천	서천군 서천면	1913년 10월	3	3	94	坂本强
대천	보령군 대천면	1913년 10월	3	3	88	吉本安助
은산	부여군 은산면	1916년 11월	2	2	36	竹迫正夫
부여	부여군 부여면	1918년 4월	2	3	51	杉村兎喜治
계	19		88	96	3,226	

2) 공립보통학교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아동수	학교장
					남	여		
공주	공주군 공주읍	1906년 9월	6	12	7	6	665	田中利鐵
반포	공주군 반포면	1915년 4월	6	2	2	-	124	事務取扱 李鍾漢
유구	공주군 신상면	1916년 4월	6	6	6	1	254	本山辰次
이인	공주군 목동면	1917년 4월	6	6	7	-	192	宗方喬
계룡	공주군 계룡면	1919년 6월	6	6	7	-	238	有田要吉
호계	공주군 사곡면	1922년 3월	6	4	4	-	155	江藤節男
정안	공주군 정안면	1922년 5월	6	6	8	-	218	橫田三作
의당	공주군 의당면	1923년 5월	6	4	4	-	163	松岡定彦
우성	공주군 우성면	1925년 4월	6	3	3	-	172	中崎竹松
신평	공주군 신하면	1927년 4월	6	2	2	-	111	秋山節夫
금성	공주군 주의면	1928년 4월	6	6	7	-	347	須磨孝
탄천	공주군 탄천면	1929년 4월	4	2	2	-	84	高橋定數
장기	공주군 장기면	1930년 6월	4	2	2	-	82	內山初雄
공주군 계	13		-	61	61	7	2,805	
연기	연기군 남면	1912년 5월	6	6	6	-	286	池邊保
전의	연기군 전의면	1912년 12월	6	8	8	2	454	皆森藤市
조치원	연기군 조치원읍	1915년 6월	6	10	4	3	568	信松茂雄
금남	연기군 금남면	1920년 9월	6	6	7	-	232	平山武一
연동	연기군 동면	1925년 5월	6	3	3	-	172	宗方貞雄
연기군 계	5		-	33	38	5	1,712	
대전제일	대전군 대전읍	1911년 9월	6	13	14	-	783	大友喜幸
진령	대전군 진령면	1914년 9월	6	6	6	-	223	藤井穰
신탄진	대전군 북면	1919년 5월	6	6	7	-	249	加藤房次郎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이동수	학교장
					남	여		
동명	대전군 동면	1922년 3월	6	3	3	-	167	宮原英夫
산내	대전군 산내면	1923년 7월	6	2	2	-	73	中野繁三
대전제이	대전군 외남면	1924년 4월	6	12	7	6	726	鷹尾司能衛
유성	대전군 유성면	1927년 6월	6	5	5	-	278	池田美德
구죽(칙)	대전군 압동면	1930년 7월	4	2	2	-	107	事務取扱 朴義和
대전군 계	8		-	49	46	6	2,606	
강경	논산군 강경읍	1907년 4월	6	17	13	5	941	小島與一
연산	논산군 연산면	1912년 5월	6	6	6	1	351	室田泰
논산	논산군 논산면	1913년 6월	6	12	10	2	714	高本五郎
노성	논산군 노성면	1917년 3월	6	6	8	-	279	相良益家
양촌	논산군 양촌면	1919년 4월	6	6	6	1	351	古賀信龍
은진	논산군 은진면	1920년 4월	6	6	6	-	287	小野寺詩樓
두마	논산군 두마면	1923년 6월	6	4	4	-	261	種子信三郎
광석	논산군 광석면	1929년 4월	4	2	2	-	138	岡林春喜
구자곡	논산군 구자곡면		-	-	-	-	-	事務取扱 尹昌求
논산군 계	9		-	59	55	9	3,240	
부여	부여군 부여면	1911년 7월	6	8	7	2	422	新保景吉
홍산	부여군 홍산면	1912년 5월	6	6	6	1	310	高山保雄
임천	부여군 임천면	1913년 5월	6	6	7	-	301	中森富士松
석성	부여군 석성면	1913년 2월	6	6	7	-	252	長澤利作
구룡	부여군 구룡면	1920년 5월	6	6	7	-	242	中村竹次
총화	부여군 총화면	1921년 4월	6	3	3	-	147	迫田邦彦
은산	부여군 은산면	1922년 6월	6	6	7	-	263	作宮久夫
외산	부여군 외산면	1923년 5월	6	3	3	-	101	高山和三郎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아동수	학교장
					남	여		
남성	부여군 남면	1924년 4월	6	3	3	-	131	德永次男
세도	부여군 세도면	1924년 9월	6	3	3	-	200	事務取扱 閔啓東
장암	부여군 장암면	1929년 7월	4	2	2	-	105	庵地進
양화	부여군 양화면	1930년 8월	4	2	2	-	89	山本房儀
내산	부여군 내산면		-	-	-	-	-	兼任 柳井秀一
규암	부여군 규암면		-	-	-	-	-	兼任 新保景吉
부여군 계	14		-	54	59	3	2,563	
한산	서천군 한산면	1911년 7월	6	8	7	2	392	益芳秀
서천	서천군 서천면	1912년 5월	6	8	7	2	470	柳井秀一
비인	서천군 비인면	1913년 6월	6	6	6	-	272	神田律二
판교	서천군 동면	1921년 4월	6	5	5	-	245	坂田正夫
시초	서천군 시초면	1922년 5월	6	6	8	-	220	緒方虎雄
화양	서천군 화양면	1923년 4월	6	6	7	-	276	厚地規矩也
선암	서천군 선암면	1924년 4월	6	6	6	-	287	辛川勳
마산	서천군 마산면	1925년 4월	6	3	3	-	150	中村八之助
마동	서천군 마동면	1929년 4월	4	2	2	-	142	新宮辰巳
서천군 계	9		-	50	51	4	2,454	
보령	보령군 주포면	1909년 12월	6	6	7	-	313	川岸清吉
오천	보령군 별천면	1914년 6월	6	3	2	-	208	塚田順
대천	보령군 대천면	1916년 7월	6(고2)	8	7	2	470	齊藤英雄
웅천	보령군 웅천면	1918년 4월	6	6	6	-	281	上水流 仁之助
주산	보령군 주산면	1921년 5월	6	5	5	-	227	平野一之
청라	보령군 청라면	1923년 5월	6	3	4	-	147	野田隆之助
남포	보령군 남포면	1924년 3월	6	3	3	-	149	近藤徳夫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아동수	학교장
					남	여		
미산	보령군 미산면	1928년 5월	4	2	2	-	68	長谷川敏
보령군 계	8		-	34	35	1	1,765	
청양	청양군 청양면	1911년 9월	6	8	7	2	387	片山近義
정산	청양군 정산면	1912년 12월	6	6	8	-	252	山本武二
화성	청양군 화성면	1920년 9월	6	6	6	-	224	久保田嘉一
청소	청양군 청양면	1922년 4월	6	6	7	-	200	橫山秀四郎
봉양	청양군 두양면	1923년 4월	6	3	3	-	136	高濱茂右衛門
비봉	청양군 비봉면	1924년 7월	6	3	4	-	146	事務取扱 鄭道相
운곡	청양군 운곡면	1927년 4월	6	2	2	-	105	中村重之
청양군 계	7		-	34	37	2	1,450	
홍성	홍성군 홍주면	1911년 4월	6(高2)	16	14	3	857	山本良策
결성	홍성군 결성면	1912년 12월	6	6	7	-	252	要林金二
광천	홍성군 광천면	1915년 11월	6	6	7	2	456	寺地與一
갈산	홍성군 고도면	1917년 5월	6	6	5	-	218	永嶺德二
홍동	홍성군 홍동면	1922년 4월	6	6	5	-	234	川瀨力太郎
장곡	홍성군 장곡면	1922년 4월	6	3	4	-	194	鍵本末一
금마	홍성군 금마면	1929년 5월	4	2	2	-	122	吉野好雄
홍성군 계	7		-	45	44	5	2,333	
대흥	예산군 대흥면	1911년 9월	6	6	6	1	263	郡山美利
예산	예산군 예산면	1912년 5월	6	23	11	3	701	帆士茂
덕산	예산군 덕산면	1912년 12월	6	6	6	1	259	川西幸男
오가	예산군 오가면	1922년 12월	6	6	6	-	284	吉田態治
신양	예산군 신양면	1923년 4월	6	4	4	-	245	事務取扱 趙基鳳
고덕	예산군 고덕면	1923년 12월	6	6	7	-	276	木島義行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아동수	학교장
					남	여		
광시	예산군 광시면	1924년 4월	6	3	3	-	154	村岡定彦
신암	예산군 신암면	1928년 4월	4	2	2	-	123	田中實圓
삼교	예산군 삼교면	1929년 6월	4	2	2	-	148	廣瀨慶市郎
대술	예산군 대술면		4	-	1	-	-	兼任 帆土茂
예산군 계	10		-	48	48	5	2,453	
서산	서산군 서산면	1911년 9월	6	8	7	2	492	武藤不二夫
태안	서산군 태안면	1911년 9월	6	6	7	1	320	楢林榮人
해미	서산군 해미면	1912년 5월	6	6	7	-	300	今野九五
안면도	서산군 안면면	1920년 11월	6	6	7	-	280	杉原彌市郎
여미	서산군 운산면	1921년 6월	6	5	5	-	231	宮脇運造
대산	서산군 대산면	1922년 3월	6	3	3	-	149	建部馨
이북	서산군 이북면	1922년 3월	6	3	3	-	141	星厚
근흥	서산군 근흥면	1922년 6월	6	3	3	-	122	松川初二
부석	서산군 부석면	1922년 7월	6	4	4	-	199	岩崎拓郎
조금	서산군 대호지면	1922년 7월	6	3	3	-	130	事務取扱 鄭國鎮
소원	서산군 소원면	1923년 3월	6	3	3	-	131	松久保慎
정미	서산군 정미면	1924년 5월	6	3	3	-	144	山畑二郎
팔봉	서산군 팔봉면	1927년 4월	6	4	4	-	225	木村正治
음암	서산군 음암면	1929년 6월	4	2	2	-	154	井出崎滿
남면	서산군 남면	1929년 6월	4	2	2	-	125	奥藤薰
부성	서산군 지곡면	1930년 5월	4	2	2	-	120	河内幸司
고북	서산군 고북면	1930년 5월	4	2	2	-	103	木下一夫
인지	인지면		-	-	-	-	-	兼任 武藤不
성연	성연면		-	-	-	-	-	二夫
서산군 계	19		-	65	67	3	3,366	同上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아동수	학교장
					남	여		
면천	당진군 면천면	1911년 9월	6	7	7	1	364	坂本彦治郎
당진	당진군 당진면	1913년 5월	6	8	8	2	462	奥園卯作
송악	당진군 송악면	1920년 10월	6	5	5	-	198	篠田重
합덕	당진군 합덕면	1922년 4월	6	8	7	2	394	野見山直喜
신평	당진군 신평면	1922년 9월	6	6	7	-	252	須崎喜之重
송산	당진군 송산면	1923년 5월	6	6	7	-	283	福原春一
석문	당진군 석문면	1925년 4월	6	5	5	-	239	坂上十四一
범천	당진군 범천면	1929년 3월	4	2	2	-	89	福澤定恒
당진군 계	8		-	47	48	5	2,281	
온양	아산군 온양면	1908년 6월	6	7	8	1	334	森山俊郎
아산	아산군 영인면	1911년 9월	6	7	7	1	315	赤尾國之助
신창	아산군 신창면	1911년 9월	6	6	7	-	279	高橋直太郎
둔포	아산군 둔포면	1917년 4월	6	6	6	-	366	上村治八
선장	아산군 선장면	1923년 4월	6	5	5	-	225	水上正生
송남	아산군 송남면	1924년 5월	6	3	3	-	156	下居敏夫
음봉	아산군 음봉면	1927년 4월	4	2	2	-	109	佐々木百仁
인주	아산군 인주면	1930년 6월	4	2	2	-	98	事務取扱 權
도고	아산군 도고면	1930년 6월	4	2	2	-	89	寧玉
온천	아산군 온천면	1930년 8월	6	7	7	1	462	永淵泰三郎
아산군 계	10		-	47	49	4	89	
천안	천안군 천안면	1911년 9월	6	15	13	2	802	小林權作
직산	천안군 직산면	1911년 7월	6	8	7	2	363	嶺武雄
목천	천안군 목천면	1913년 6월	6	6	7	-	305	濱口三富
성환	천안군 성환면	1921년 4월	6	7	7	1	305	在原安業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이동수	학교장
					남	여		
동면	천안군 동면	1922년 4월	6	3	4	-	181	乃村善太郎
광덕	천안군 광덕면	1923년 5월	6	6	6	-	265	事務取扱 韓禎洙
수성	천안군 수남면	1925년 5월	6	3	3	-	167	阿比留赴夫
입양	천안군 입양면	1928년 4월	6	3	3	-	206	郡英一
갈전	천안군 갈전면	1929년 5월	4	2	2	-	136	山形邦夫
풍세	천안군 풍세면		-	-	-	-	-	豊留義守
천안군 계	10		-	53	52	5	2,794	井口甚八郎
계	137		-	679	678	64	34,355	

3) 사립보통학교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이동수	학교장
					남	여		
영명여자 보통학교	공주군 공주면	1928년 6월	6	5	2	4	109	金根培

나. 중등교육

1) 사립중학교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수			생도수						학교장
					내	선	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대전공립 중학교	대전군 대전읍	1918년 4월	5		24		24	95 △10	89 △5	69 △8	66 △9	48 △5	367 △37	風早實馬

△ : 朝鮮人

2) 공립고등보통학교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연한	학급수	직원수			생도수						학교장
					내	선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공주군공주읍	1922년 4월	5		19	2	1	12	71 △1	60	42	35 △4	319 △5	岡田嘉高

△ : 在朝鮮 日本人

3) 공립고등학교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연한	학급수	직원수			생도수						학교장
					내	선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대전	대전군대전읍	1921년 3월	5	5	10	3	13	60 △3	54 △1	58 △4	45 △2	14	231 △10	坂田政次郎
공주	공주군공주읍	1928년 5월	4	4	7	4	11	46 △8	89 △10	85 △14	60 △16	-	123 △41	永治壽惠治
계			-	9	17	7	24	106 △11	143 △11	143 △18	105 △18	14	364 △51	

△ : 朝鮮人

다. 실업교육

1) 공립실업학교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연한	학급수	직원수			생도수						학교장
					내	선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충청남도공립농업학교	예산군예산면	1910년 7월	5	5	10	3	13	- △53	3 △53	2 △43	2 △34	- △40	7 △123	鯨島一二
강경공립상업학교	논산군강경면	1920년 3월	5	5	11	1	12	31 △27	31 △28	20 △27	13 △25	10 △25	105 △132	龍正善
계			-	10	21	4	15	31 △80	34 △81	22 △70	15 △59	10 △65	112 △355	

△ : 朝鮮人

2) 공립실업보습학교

(1931년 5월말 현재)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 수	생도 수	학교장
조치원공립농업보습학교	연기군 조치원읍	1926년 10월	2	2	1	29	
부여공립농업보습학교	부여군 부여면	1927년 5월	2	1	1	23	
서산공립농업보습학교	서산군 서산면	1927년 5월	2	1	1	16	
해미공립농업보습학교	서산군 해미면	1927년 5월	2	1	1	21	
신창공립농업보습학교	아산군 신창면	1927년 6월	2	1	1	18	
면천공립농업보습학교	당진군 면천면	1929년 5월	2	2	2	44	篠塚傳三郎
천안공립농업보습학교	천안군 천안읍	1930년 9월	2	2	2	53	
계			-	10	9	205	
대전공립상업보습학교	대전군 대전읍	1914년 4월	2	2	1	81 △5	
조치원공립실과여학교	연기군 조치원읍	1927년 4월	3	3	4	7 △114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홍성군 홍주면	1927년 6월	3	3	8	92	加藤靖雄
계			-	8	14	180 △119	
총계			-	18	23	385 △119	

△ : 朝鮮人

라. 사립 각종학교

1) 사립일반학교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 수	생도 수
사립보인학교	논산군 구자곡면	1909년 4월	6	3	3	87
사립화림농업실습학교	서산군 태안면	1930년 6월	2	2	4	30
사립광명학교	보령군 오천면	1930년 9월	6	2	1	58
계			-	7	8	175

2) 사립종교학교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수업 연한	학급 수	직원 수	생도 수
사립영명여학교	공주군 공주읍	1905년 9월	6	4	6	59
사립만동여학교	논산군 강경읍	1908년 5월	6	2	2	40
사립영명학교	공주군 공주읍	1909년 7월	-	3	6	51
사립신도학교	논산군 두마면	1929년 4월		3	4	175
사립신성학교	논산군 두마면	1929년 4월		3	4	135
계				15	22	460

마. 청년회의소

1) 공설청년훈련소

학교명	소재지	건립연월	건립연월	인정연월일	학급 수	직원 수	생도 수
대전청년훈련소	대전군 대전읍	대전일신회	1928년 8월	1928년 11월 31일	4년	7	15
강경청년훈련소	논산군 강경읍	제국재향군인회 강경분회	1928년 9월	1928년 11월 30일	4년	6	30
공주청년훈련소	공주군 공주읍	제국재향군인회 공주분회	1930년 8월	1930년 8월 31일	4년	8	11
계						21	56

바. 유치원

1) 사립유치원

원명	소재지	건립연월	조수	직원수	원아수	건립자
대전	대전군 대전읍	1913년 11월	2	3	△69	土井信曉
공주	공주군 공주읍	1920년 4월	2	2	31(△3)	徐恩德
홍성	홍성군 홍성면	1921년 4월	2	2	33	史愛理施

원명	소재지	건립연월	조수	직원수	원아수	건립자
천안	천안군 천안읍	1922년 6월	1	2	46	河惠淑
조치원	연기군 조치원읍	1924년 9월	1	2	△31	熊倉了全
강경	논산군 강경읍	1928년 6월	1	2	30	史愛理施
신명	예산군 예산면	1928년 6월	1	2	36	李承根
소화	천안군 천안읍	1929년 3월	1	2	△31	金寶泰禪
청신	천안군 천안읍	1929년 4월	1	2	26	金翊季
대덕	대전군 대전읍	1929년 5월	2	3	52	金昌洙
강경소화	논산군 강경읍	1929년 5월	1	2	△30	江崎權定
청양	청양군 청양면	1929년 5월	1	1	17	瓊邑
계			16	25	340 △164	

Ⅲ. 태안지역 근대교육의 전개과정

1. 개화기 태안지역의 교육현황

개화기 전통 교육과 근대식 교육이 혼재된 것은 태안군 지역 또한 마찬가지였다. 곳곳에서 전통 교육이 시행되기도 하였던 반면, 1905년 이후 근대식 교육기관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전통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인물은 조선말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 그리고 난사(蘭史) 조희천(趙羲天) 선생이다. 전라도 전주가 고향인 간재 선생은 21세에 충청도 아산에 머물던 전재(全齋) 임헌희(任憲晦, 1811~1876)의 문하로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평생 관직에는 진출하지 않고 향촌에 머물면서 후진의 양성에만 힘을 쏟았다.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과 더불어 조

선 말을 대표하는 대학자였던 그의 제자는 무려 2,0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충청남도 전역에서 후학을 길러내던 선생은 1896년 봄 태안 근흥면 수룡리(水龍里)로 이사하였고, 그 후 1900년까지 5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양성함으로써 태안의 선비정신을 진작시켰다. 난사 선생은 본관이 평양이고, 원북면 대기리에서 출생하여, 500명이 넘는 제자를 키워내면서, 태안 지방에서 간재 선생과 더불어 전통교육의 두 축을 이루었다. 주도적으로 태안향약(泰安鄉約)을 시행하고 1902년 향교 중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5년 근대식 교육기관인 화양의숙(華陽義塾)의 설립에도 깊이 관여하였고, 의숙(義塾) 이건(移建) 내력을 담은 사락정개작학교기(思樂亭改作學校記)를 짓기도 하였다.

한편 태안의 근대식 교육기관은 190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태안을 대표하는 거부(巨富)였던 이희열이 1905년 태안면 남문리에 화양의숙(華陽義塾)을 설립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안면면 승언리에 승지(承旨)를 역임한 김병년(金炳年)이 광영신숙(廣英新塾)을 세웠다. 이희열(李希烈)은 태안면 남문리에서 출생하여 염전 사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했으며, 인근 빈민을 구제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았던 인물이다. 선생은 1905년 태안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화양의숙을 설립하였고, 1909년 최초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던 것이다. 화양의숙은 곧 현재 태안초등학교의 전신이다. 김병년의 본관은 안동으로, 속칭 '갈뎬 김씨'의 후손으로 시강원 보덕(侍講院 輔德)과 궁내부 승지(宮內府 承旨)를 역임하였던 선생은 국운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였고, 1906년 안면도 승언리에 광영신숙(廣英新塾)을 창설하고, 1909년 고등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광영신숙은 현재의 안면초등학교의 전신에 해당한다.

화양의숙은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이 공포됨으로써 관련 시설 일체가 정부에 기부되어 1911년 10월 1일을 기하여 태안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광영신숙은 사립 학교로 존속되었고, 1920년(대정 9)에 비로소 안면도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원래 태안군에 속했던 지역¹³⁾에서는 그 뒤를 이어서 1922년(大正

13) 태안군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산군으로 병합되었다.

11) 근흥면과 이북면(梨北面)에, 이듬해 소원면에, 그리고 1929년(昭和 4)에 남면에 각각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한편 현 당진군 정미면 정미초등학교에서는 1925년 이후의 「(서산)군내 학교일람」이 남아 있어서 당시 학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현 태안군 관내 학교 현황은 아래의〈표2 : 일제 강점기 현 태안군내 학교 현황〉과 같다.

〈표2 : 일제강점기 현 태안 관내 학교 현황〉

(기준 월일(月日) : 4월 30일)

연대	학교명	학급수	생도아동수			직원수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1925	泰安公立普通學校	8	406	62	468	8	1	9	
	安眠公立普通學校	4	198	0	198	4	0	4	
	近興公立普通學校	3	125(2)	2	129	3	0	3	() : 증원
	梨北公立普通學校	3	92	0	92	3	0	3	
	所遠公立普通學校	3	101	3	107	3	0	3	아동수 : 104명
1926	泰安公立普通學校	8	350	58	408	7	2	9	
	安眠島公立普通學校	5	197	29	226	5	0	5	
	近興公立普通學校	4	107	16	123	4	0	4	
	梨北公立普通學校	2	68	6	74	2	0	2	
	所遠公立普通學校	3	90	4	94	3	0	3	
1927	泰安公立普通學校	8	282	58	340	7	2	9	
	安眠島公立普通學校	6	223	34	257	7	0	7	
	近興公立普通學校	3	103	5	108	3	0	3	
	梨北公立普通學校	3	99	9	108	3	0	3	
	所遠公立普通學校	3	126	2	128	3	0	3	
1928	泰安公立普通學校	7	262	56	318	7	1	8	
	安眠島公立普通學校	5	219	39	258	5	0	5	
	近興公立普通學校	2	90	1	91	2	0	2	

연대	학교명	학급수	생도아동수			직원수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1928	梨北公立普通學校	3	100	14	114	?	?	?	일부 훼손
	所遠公立普通學校	3	151	5	156	?	?	?	"
1929	泰安公立普通學校	6	254	55	309	6	1	7	
	安眠公立普通學校	6	194	36(1)	231	7	0	7	(): 증원
	近興公立普通學校	2	122	0	122	2	0	2	
	梨北公立普通學校	3	109	13	122	3	0	3	
	所遠公立普通學校	3	119	8	127	3	0	3	
1930	泰安公立普通學校	6	239	61	300	7	1	8	
	安眠島公立普通學校	6	213	35	248	7	0	7	
	近興公立普通學校	3	127	4	131	3	0	3	
	梨北公立普通學校	3	112	11	123	3	0	3	
	所遠公立普通學校	3	129	5	134	3	0	3	
	南面公立普通學校	2	102	0	102	2	0	2	
1931	泰安公立普通學校	6	244	75	319	7	1	8	
	安眠島公立普通學校	6	244(3)	33(2)	277(5)	7	0	7	(): 증원
	近興公立普通學校	3	123	0	123	3	0	5	직원수 : 3명
	梨北公立普通學校	3	121	18	139	3	0	3	
	所遠公立普通學校	3	123	10	133	3	0	3	
	南面公立普通學校	2	118	11	129	2	0	2	
1932	泰安公立普通學校	6	244	79	323	6	1	7	
	安眠島公立普通學校	6	265	40	305	6	0	6	
	近興公立普通學校	3	133	0	133	3	0	3	
	梨北公立普通學校	3	104	16	120	3	0	3	
	所遠公立普通學校	3	131	16	147	3	0	3	
	南面公立普通學校	2	105	13	118	2	0	2	

연대	학교명	학급수	생도아동수			직원수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1933	泰安公立普通學校	6	248	75	323	6	1	7	
	安眠島公立普通學校	6	259(3)	47	306(3)	6	0	6	() : 증원
	近興公立普通學校	3	143	0	143	3	0	3	
	梨北公立普通學校	2	126	15	141	2	0	2	
	所遠公立普通學校	3	145	15	160	3	0	3	
	南面公立普通學校	2	106	20	126	2	0	2	
	遠北公立普通學校	2	91	13	104	2	0	2	
1934	泰安公立普通學校	6	252	94	346	6	1	7	
	安眠島公立普通學校	6	282	61	343	6	0	6	
	近興公立普通學校	3	164	16	180	3	0	3	
	梨北公立普通學校	3	137	15	152	3	0	3	
	所遠公立普通學校	3	163	13	176	3	0	3	
	南面公立普通學校	2	113	19	132	2	0	2	
	遠北公立普通學校	2	112	17	129	2	0	2	
1936	泰安公立普通學校	6	295	126	521	6	1	7	아동수 : 421명
	安眠島公立普通學校	6	298	88	386	5	1	6	
	近興公立普通學校	3	184	41	225	3	0	3	
	梨北公立普通學校	3	151	○36	○87	3	0	3	○ : 판독불능
	所遠公立普通學校	4	241	38	279	5	0	5	
	南面公立普通學校	2	123	16	139	2	0	2	
	遠北公立普通學校	2	112	27	139	2	0	2	
1938	泰安公立尋常小學校	8	456	203	659	8	2	10	
	安眠公立尋常小學校	6	317	113	430	5	1	6	
	近興公立尋常小學校	5	246	59	305	5	0	5	
	梨北公立尋常小學校	3	190	50	240	3	0	3	

연대	학교명	학급수	생도아동수			직원수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1938	所遠公立尋常小學校	6	297	78	375	5	1	6	
	南面公立尋常小學校	2	125	24	149	2	0	2	
	遠北公立尋常小學校	2	128	23	151	2	0	2	
	茅項簡易學校	1	74	13	87	1	0	1	
	古南簡易學校	1	57	21	78	1	0	1	
	賈誼簡易學校	1	30	9	39	1	0	1	
	中場簡易學校	1	46	35	81	1	0	1	
	黃島簡易學校	1	46	16	62	1	0	1	
1939	泰安公立尋常小學校	9(1)	470(39)	225(17)	495(56)	9(1)	2	11(1)	() : 증원
	安眠公立尋常小學校	6	328	119	447	6	0	6	
	近興公立尋常小學校	6	282	67	349	6	0	6	
	梨北公立尋常小學校	4	224	66	290	4	0	4	
	所遠公立尋常小學校	6	325	93	418	6	0	6	
	南面公立尋常小學校	3	179	41	220	3	0	3	
	遠北公立尋常小學校	3	167	33	200	3	0	3	
	茅項簡易學校	1	21	6	27	1	0	1	
	古南簡易學校	1	82	12	94	1	0	1	
	賈誼簡易學校	1	25	10	35	1	0	1	
	中場簡易學校	1	20	19	39	1	0	1	
	黃島簡易學校	1	34	13	47	1	0	1	
1940	安眠公立尋常小學校	7	336	152	488	6	1	7	
	南面公立尋常小學校	4	235	59	294	4	0	4	
	泰安公立尋常小學校	10	507	283	790	8	2	10	
	近興公立尋常小學校	6	305	82	387	6	0	6	
	所遠公立尋常小學校	6	292	104	396	6	0	6	

연대	학교명	학급수	생도아동수			직원수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1940	遠北公立尋常小學校	4	218	59	277	5	0	5	
	梨北公立尋常小學校	4	221	85	306	5	0	5	
	茅項立尋常小學校	2	96	19	115	2	0	2	
	古南立尋常小學校	2	97	27	124	2	0	2	
	賈誼簡易學校	1	15	15	30	1	0	1	
	中場簡易學校	1	40	24	64	1	0	1	
	黃島簡易學校	1	28	12	40	1	0	1	
	安興簡易學校	1	37	38	75	1	0	1	
1941	泰安校	13	634	312	946	11	3	14	
	安眠校	8	359	167	526	6	1	7	
	近興校	6	329	92	421	6	0	6	
	梨北校	5	226	106	232	5	0	5	아동수 : 332명
	所遠校	6	272	118	390	6	0	6	
	南面校	5	241	73	314	5	0	5	
	遠北校	5	266	49	315	6	0	6	
	安眠古南校	2	121	40	345	2	0	2	아동수 : 161명
	所遠茅項校	2	127	32	161	2	0	2	아동수 : 159명
	賈誼易校	1	18	18	80	1	0	1	아동수 : 36명
	黃島校	1	38	14	36	1	0	1	아동수 : 52명
	中場校	1	56	30	52	1	0	1	아동수 : 86명
	安興校	1	45	35	80	1	0	1	
防葛校	1	44	28	80	1	0	1	아동수 : 72명	
1942	泰安校	15	714	330	1044	9	2	11	
	安眠校	11	513	192	705	8	1	9	
	近興校	6	349	110	459	6	0	6	

연대	학교명	학급수	생도아동수			직원수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1942	梨北校	6	233	124	357	5	0	5	
	所遠校	6	285	125	410	6	0	6	
	南面校	6	330	115	445	7	1	8	
	遠北校	6	291	89	380	2	0	2	
	安眠古南校	2	122	44	166	2	0	2	
	所遠茅項校	2	123	37	160	2	0	2	
	賈誼學校	1	53	27	80	1	0	1	
	黃島學校	1	17	19	36	1	0	1	
	中場學校	1	44	17	61	1	0	1	
	安興學校	1	50	30	80	1	0	1	
防葛學校	1	49	31	80	1	0	1		

현 태안군에 속하는 지역에는 1925년 당시 공립보통학교가 5개교가 있었다.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여 1933년에는 7개교로 증가하였고, 1938년에는 공립보통학교가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개편됨과 동시에 5곳에 간이학교(簡易學校)가 설립되었다. 1940년에는 2곳의 간이학교가 심상소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41년 심상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간이학교가 모두 국민학교로 승격되었고, 동시에 방갈국민학교가 신설되었다. 그 결과 1942년 당시 현 태안군 관내에는 총 14개교가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도 서당은 중요한 교육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6년 이민녕(李敏寧) 군수가 편찬한 「서산군지」에는 1925년 말 현재의 서당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역은 아래의 <표3 : 1925년 말 현재 현 태안군 관내 서당 현황>과 같다.

〈표3 : 1925년 말 현재 현 태안군 관내 서당 현황〉

所在面名	書堂數	教員數	生徒數			一箇年經費 (圓)
			男	女	計	
南	9	9	92		92	920
近興	10	10	65		65	715
遠北	6	6	48		48	624
安眠	1	1	40		40	300
泰安	7	7	59		59	590
所遠	5	5	29		29	299
梨北	5	5	37		37	370
計	43	43	370		370	3,818

한편 일제강점기 동안 태안교육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본인 자제들이 다니는 공립 소학교(小學校) 및 중등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태안군과 해미군이 서산과 병합되었는데, 군청이 소재한 서산읍과 옛 해미현의 치소였던 해미에는 공립 소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태안 관내에는 해방될 때까지도 일본인 자제만 입학할 수 있는 소학교가 설립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상회가 태안 관내에 개설되지 못했던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중등과정의 경우에도, 서산과 해미에 1928년 농업보습학교(農業補習學校)라는 교명으로 과정이 개설되었으나,¹⁵⁾ 태안에는 설치된 바가 없다.

한편 박채근(朴彩根)은 1913년에 출생하여 1974년 작고하였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4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후대에 활동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에 태안 최초

14) 이와 관련하여 태안군민들은 항일정신의 결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도 한다.

15) 1933년에는 農業實修補習學校로 개편되었는데, 해미의 경우 1938년 폐지되었다.

의 사학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다. 선생은 탁월한 사업가로서 인천에서 자수성가를 하였고, 만년에 고향을 위한 교육사업에 뜻을 두어, 1970년 원이중학교의 학교부지를 마련해 주었고, 1973년에는 학교법인 동양학원을 설립하여 이듬해 태안읍 남문리에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아래의 논의는 이들 5인의 행적과 교육활동에 대한 고증 결과이다.

2. 개화기 태안의 교육자 5인의 행적

가. 간재(良齋) 전우(田愚)

1) 생애와 업적¹⁶⁾

전우(田愚, 1841~1922)의 초휘(初諱)는 경륜(慶倫) 또는 경길(慶估), 자(字)는 자명(子明), 호(號)는 간재(良齋)·구산(臼山)·추담(秋潭), 본관(本貫)은 담양(潭陽)이다. '간재'는 스승인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¹⁷⁾가 지어준 것이고, '구산'은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곳의 지명이다. 전우는 1841년(헌종 7) 8월 31일 전주부(全州府) 서문(西門) 밖 청석동(靑石洞) 청석교(靑石橋) 앞의 집에서 청천(聽天) 전재성(田在聖)과 남원 양(梁)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¹⁸⁾ 6세(1846년)에 『소학(小學)』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전우 집안의 가세는 넉넉했던 것으로 보이며, 부친 전재성 슬하에서 일찍부터 유교의 가풍에 따라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9세(1849

16) 간재 전우의 생애는 (金忠浩 譯, 『國譯 良齋先生 行狀』, 民族文化推進會, 2000)을 참조하였다.

17) 任憲晦 (1811~1876)의 본관은 豊川, 자는 明老, 호는 鼓山·全齋·希陽齋이다. 아버지는 天模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로 益和의 따님이다. 宋驛圭와 洪直弼 등에게서 배웠고, 1858년(철종 9) 孝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이듬해 다시 活人署別提·전라도사·군자감 정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861년 趙斗淳 등의 천거로 경연관에 발탁되었으나 역시 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1864년(고종 1) 장령·집의·掌樂正이 되었고, 이듬해 호조참의가 되었다. 이때 萬東廟의 제향을 폐지하라는 왕명이 내려지자 절대 부당함을 재삼 상소하여 다시 재항하게 하였다. 1874년 이조참판에 임명하고 승지를 보내어 나오기를 청하였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그 뒤 대사헌·패주 등에 임명되었다.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洛論의 대가로서 李珥·宋時烈的 학통을 계승하여 그의 제자인 田愚에게 전수하였다. 尹容善의 주청으로 내부대신에 추증되었다. 연기의 崇德祠에 봉향되었다. 저서로는 「전재집」 20권이 있다. 시호는 文敬이다.

18) 전재성이 충청도 洪州에서 살다가 全州로 移居한 뒤 전우를 낳았다고 하며, 큰이들 慶俊은 큰아버지인 僉正公 田宜聖의 後嗣로 出系하였다.

년) 때에 집 마루에 놓인 화분에 피어있는 매화꽃을 보고 전재성은 문득 자식의 글재주를 시험하여 볼 마음으로 향(香)자 운을 주어 시를 지어보라고 하니,

聽雪鼓絃琴韻冷 눈소리 들으며 거문고 뜯으니 운율이 싸늘하고
看花題句墨痕香 매화를 보며 시를 적으니 먹에서 향기가 나도다.

라고 즉석에서 지으니, 부친이 더욱 총애하고 수학에만 매진토록 하였다.

12세(1852년) 때부터 왕희지(王羲之)의 필법(筆法)을 익혔다고 하며, 14세(1854년)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 정동(貞洞), 삼청동(三清洞), 순화동(順化洞) 등에서 살았다. 이 때 명필(名筆)로 알려진 조송운(趙松雲)이 붓글씨로 쓴 적벽부(赤壁賦)를 모사하였는데, 진위(眞僞)를 분간하지 못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듯 한 때 글씨 쓰기에 열중하였으나, ‘말기(末技)에 머물 것이 못된다’ 하여 그만 두었다고 한다. 18세(1858년) 때에 밀양 박씨와 결혼하였으나, 불과 1년 만에 책을 싸들고 입산하였으며, 심오한 고전에 탐닉하면서 시문에 일가를 이루었고,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세(1860년)에 퇴계(退溪)의 글을 읽고 학문이 있음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하는데, “내가 20세에 비로소 『퇴계집』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뜻이 간절하던 차에, 퇴계선생의 현몽으로 학문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고 훗날 술회하였다 한다. 당시 충청도 아산(牙山)의 신양(新陽)에는 윤치중(尹致中)·서정준(徐廷淳) 등의 제자를 가르치던 임헌회의 명성이 드높았다. 이에 그는 21세(1861년) 때 신응조(申應朝)¹⁹⁾의 소개를 받아 임헌회를 만났다. 이때부터 임헌회의 가르침 아래 그의 학풍을 계승하기 시작하였고, 23세(1863년)에는 우의정

19) 申應朝(1804~1899)의 본관은 부산, 자는 幼安, 호는 桂田·荀菴이다. 同知敦寧府事 常顯의 아들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1852년(철종 3)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조정랑·부제학 등을 역임하였고, 1866년(고종 3)에 이조참판·대사헌, 1871년에 강원도관찰사, 1873년 형조판서·이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예조판서가 되었다. 1882년 7월 判府事로 있으면서 倭洋一體의 처지에서 邪學과 洋術을 배격하였는데, 특히 인천개항은 삼남과 서북의 이권을 침탈 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지리상의 요지이기 때문에 최대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수교 및 통상을 제한하려는 斥邪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재집권하게 된 대원군에 의하여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出仕하지 않았다. 뒤에 좌의정에 올랐으며, 연로하여 퇴임한 뒤에는 耆老所에 들어갔다. 저서로는 『계전집』이 있다. 시호는 文敬이다.

박규수(朴珪壽)가 보양관(輔養官)으로 천거하였으나 왕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고, 25세(1865년)에는 부친이 임헌회를 따라 공주(公州)의 명강(明剛)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스승 임헌회를 매일 같이 모셨다. 30세(1870년) 때에는 스승 임헌회가 왕을 알현하고 전우를 인재로 추천하였다. 36세(1876년)에 임헌회가 공주 성전(星田)으로 이사하자 그 곳과 가까운 연기(燕岐) 죽안(竹岸)으로 이사하였다. 임헌회의 사후(死後)인 38세(1878년)에 충북 음성(陰城) 삼현(三峴)으로 이사하였고, 42세(1882년)에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이 천거하여 8월에 선공감 가감역(繕工監 假監役)과 감역(監役)에, 9월에는 전설사 별제(典設司 別提)와 강원도 도사(江原道 都事)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상주(尙州)·장암(壯岩)·문경(聞慶)·진천(鎭川)·만죽(晩竹)·문천(文泉)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길렀다.

54세(1894년)에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을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55세(1895년)에 박영효(朴泳孝)가 수구학자(守舊學者)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개혁을 실현시키려면 간재를 죽여야 한다고 고종에게 주청하였으나 고종은 오히려 그를 순흥 부사(順興 府使)·중추원 찬의(中樞院 贊議)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다음 해인 1896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弑害)당하자 전우는 상소문을 올려 역적을 처벌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단발령(斷髮令)의 공문을 보고 통곡하며 모든 자손들과 문인들에게 죽음으로 유학의 전통을 지킬 것을 명하였다. 이후 최명희의 주선으로 충청도 태안의 근흥면 수룡리(당시는 수창동)에 와서 5년 간 후진 교육에 몰두(沒頭)하여 서산과 태안 지역의 유풍(儒風)을 크게 진작(振作)시켰다. 60세(1900년)에 공주 신전(薪田)으로 이사하였고, 관직에서 사퇴하고 정산(定山)에서 후진교육을 하고 있던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을 방문하였다.

65세(1905년) 때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3차에 걸쳐 ‘청참오적(請斬五賊)’이란 제목의 상소문을 올려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조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경세문(警世文)’ 등을 지어 이토오 히로부미를 탄핵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상소를 올렸으나 중간에서

방해를 받아 전달도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매국노들의 사주를 받은 대신들이 그를 죽이라고 고종에게 주청하였으나, 임금은 ‘너희들은 짐에게 선비를 죽인 누를 입게 하려 하느냐’고 하였다 한다. 68세(1908년)에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어지러운 세상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였으니 나도 바다로 가겠다」라고 하고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위도 서쪽에 있는 왕등도(旺燈島)²⁰⁾로 들어갔다. 이듬해 제자들의 간청으로 군산도(群山島) 구미촌으로 거처를 옮겨서 학문을 폈다. 70세(1910년)에 한일합방의 소식을 들은 간재는 분함을 못 이겨 며칠을 통곡하다가 다시 왕등도로 들어갔다. 이듬해 11월 일본인 경무부 고등관이 경비선을 타고 왕등도에 들어와 그의 동태를 살폈다. 이 때 간재는 벽에 ‘萬劫終歸韓國士 平生趨付孔門人(만겁이 흘러도 끝까지 한국의 선비요, 평생을 기울여 공자의 문인이 되리라)’라는 시²¹⁾를 게시하여 놓고 있었다. 이를 본 일경도 진짜 한국의 선비를 만났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72세(1912년)에 전우는 제자들의 간청에 따라 왕등도에서 나와 군산도에서 머물다 부안의 계화도(界火島)에 정착하고, 계화도(繼華島 ; 중화를 잇는다는 뜻)라 부르면서, 제자들이 수집한 간재문집 전고(前稿)를 완성하였다. 이후 74세(1914년)에는 그의 입해(入海) 이후의 감상을 적은 ‘해상산필(海上散筆)’을 완성하였다. 78세(1918년)의 고령에 이른 전우는 그의 손자를 앞에 불러 놓고, “나는 한국의 유민으로서 어찌 타국에 입적(入籍)하겠는가. 너도 죽을지언정 도장을 찍어 입적을 허락해서는 안된다.(吾以韓國遺民 豈肯入籍於他邦 汝雖死不可奈章)”라는 글을 써주면서 왜적(倭籍)으로 입적을 하지 말도록 하였다. 79세(1919년)에 고종의 석연치 않은 붕어(崩御) 소식을 접하고, 삼년 상복을 입기 시작했다. 또한 1920년 5월에 동아일보 사장 박영효가 주자학의 의리를 비판한 데 대하여, 이를 성토했다는 등 고령에 이르러서도 그의 기개는 속을 줄을 몰랐다. 82세(1922년)에 제자들이 수집한 원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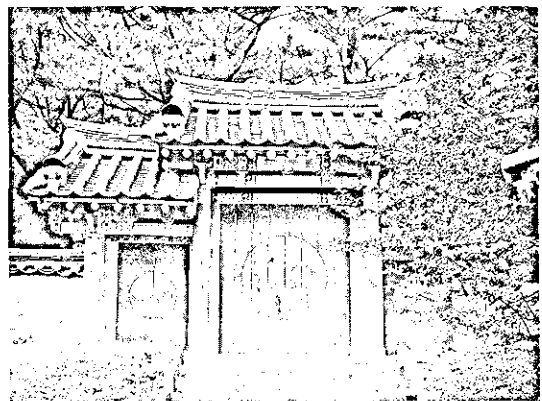
20) 왕등도는 본래 왕이 한 번 오를 만한 경치가 좋은 섬이라 하여 왕(王)등도였는데, 간재가 이곳에 온 후 이를 불경스럽다 하여 왕(旺)등도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21) 이 시구는 현재에도 계화도의 계양사에 전하고 있다.

친히 교정하여 간재문집 후고를 완성한 전우는 이해 7월 4일 82년의 생애를 마쳤다. 9월 13일 전북 익산의 선영에 묻히었는데 그의 영구를 따른 사람이 2천여 명이었으며, 장례를 보러 몰려든 사람은 6만여 인파가 넘었다 한다.

학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현실의 동요 속에서 일생을 은거로 지낸 그의 문하에는 수많은 문인(門人)들이 배출되었다. 그의 학풍은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 덕천(惠泉) 성기운(成璣運), 창수(蒼樹) 정형규(鄭衡圭),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양재(陽齋) 권순명(權純命), 현곡(玄谷) 유영선(柳永善),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 병암(炳庵) 김준영(金駿榮), 후창(後滄) 김택술(金澤述) 등 3,000여 명을 헤아리고 있다. 계화도의 계양사(繼陽祠)와 의령의 의산사(宜山祠), 지리산의 백운정사(白雲精舍), 고창의 용암사(龍巖祠), 정읍의 태산사(台山祠), 태안의 안양사(安陽祠)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간재집(良齋集)』 30책, 『간재사고(良齋私稿)』 30책, 『추담별집(秋潭別集)』 2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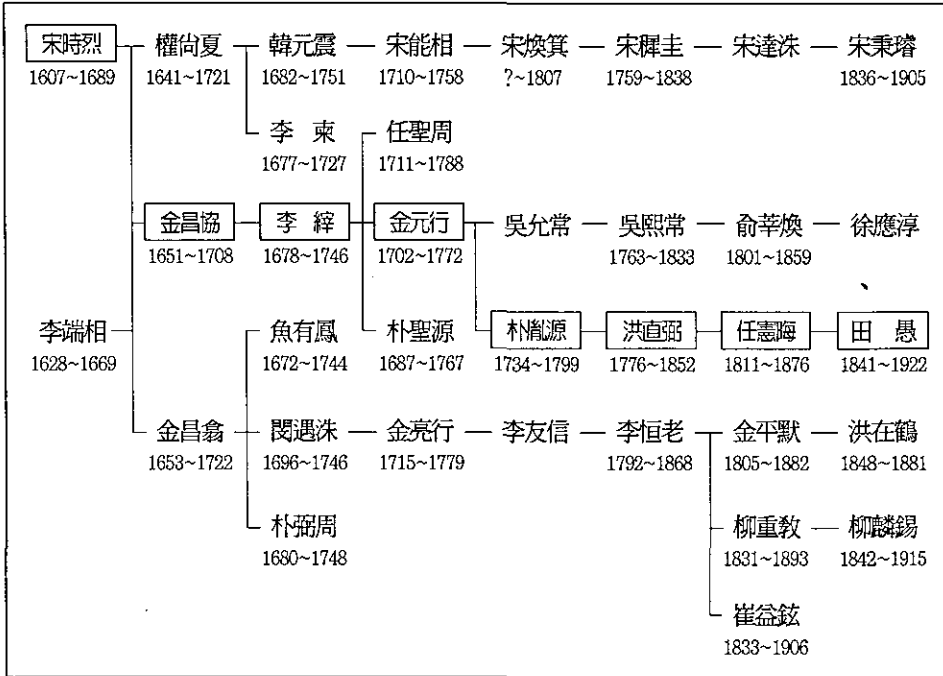
전우는 조선성리학의 마지막 시기를 장식한 대표적 학자였다.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을 이은 기호학파의 학맥을 계승하고 있으며 간재학파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여 당대의 사상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²²⁾ 전주에서 출생하였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수학기를 보내며 기호계열의 학자들과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율곡에 연원을 두게 되었고, 신응조의 소개를 통해 낙론계열의 맥을 잇고 있었던 전제 임헌회와 사제관계를 맺게 되면서 낙론의 계통을 이어 받게 된다.



안양사

22) 한국사상사연구회편,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p.620.

〈낙론(洛論) 성리학(性理學)의 맥(脈)²³⁾〉



* 밑줄 위의 인물은 낙학파(洛學派)의 인물

* 네모 안의 인물은 전우의 학맥 연원

전우의 학맥은 울곡(栗谷) 이이(李珥)의 손제자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송시열의 제자들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고 다름을 두고 호파(湖派)와 낙파(洛派)로 갈렸다. 낙파는 농암 김창협에 연원²⁴⁾을 두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 도암(陶庵) 이재와 미호(溪湖) 김원행에 이르러 크게 융성하였고, 이어서 근재(近齋) 박윤원, 매산(梅山) 홍직필, 고산(鼓山) 임헌회를 거쳐 간재

23) 崔完基, 『韓國性理學의 脈』, 느티나무, 1989. p.204 표 참조. 위의 표에 나타나는 간재 전우의 학통 연원도는 『화동연원록』의 「도통연원도」를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尹榮善은 『朝鮮儒賢淵源圖』에서 이제-김원행-박윤원-홍직필-임헌회-전우로 이어지는 學脈을 제시하였고, 尹泰順은 『東國儒賢淵源錄』을근수-조익-이단상-김창협-김원행-홍직필-임헌회-전우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24) 낙학파의 연원을 왕조실록(『순조실록』10년 12월 25일 을사조)에는 외암 이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에서는 낙학이 농암 김창협으로부터 근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우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전우의 학문성향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다는 낙론계열의 학자였다.

조선의 모든 유학자가 다 그러했듯이, 전우 역시 이(理)·기(氣) 논쟁에 참여했다. 그의 스승 임헌회의 이른바 성즉기(性卽氣)·기즉성(氣卽性)의 관점은 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당시의 주리론(主理論) 내지 유리론(唯理論)의 거유(巨儒) 기정진(奇正鎭)이나 이항로(李恒老)를 비판함으로써, 기(氣)를 강조하는 입장에 섰다. 즉 이이의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을 계승하여 이(理)는 무위(無爲)임을 주장하고 실제상의 작용은 모두 기(氣)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이의 명덕지시본심(明德只是本心)을 이어받아 심즉기(心卽氣)·심학성(心學性)을 주장하고 심즉기(心卽氣)·명덕시기설(明德是氣說)을 주장했다. 또한 이이의 심위기주(心爲氣主)를 확대하여 심본성(心本性)·심학성(心學性)을 주장하고 성존심비(性尊心卑)·성사심제(性師心弟) 등 새로운 학설을 많이 만들어 냈다. 그는 특히 미발기질체청설(未發氣質體淸說)을 창안했는데, 이는 낙론계의 학설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전우의 많은 학설은 율곡의 학설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계승 발전하려 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주자의 학설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주자가 인간의 도덕적 의지와 작용을 설명하면서 성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전우의 학문적 성격은 전통적인 유학사상을 그대로 실현시키고자 했던 점에서 조선 최후의 유학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국난에 의병활동을 하지 않고 파리장서(巴里長書)²⁵⁾에 서명하지 않은 것 등 처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우는 「추담별집」을 통하여 “외세(外勢)에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학문을 이루어 도로써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 국권을 회복한다는 명목 아래 외세와 손을 잡으면 나라를 회복하기 이전에 내 몸이

25) 巴里長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의 儒林代表 郭鍾錫·金福漢 등 137명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유림단 탄원서를 작성 서명하여 이를 김창숙이 상하이(上海)에서 파리의 만국평화회의에 우송한 것이다. 그러나 日警에 발각되어 곽종석 이하 대부분의 유림대표가 체포되었으며 일부는 국외로 망명하였다. 그 후 곽종석·김복한·河龍濟 등은 감옥에서 순사하고 그 밖의 인사들도 일경의 고문에 못 이겨 죽거나 처형되었다.

이적(夷狄)이 되는 것이다”라는 논지로 반박하였다.

2) 태안 교육에 미친 영향

간재 전우는 임헌회와 사제의 관계를 맺은 후, 스승이 돌아가실 때까지 주로 충청도 지역을 옮겨 다녔다. 하지만 태안 수창동에는 임헌회의 사후, 문인인 노백 최명희²⁶⁾의 주선으로 오게 되었다. 태안으로 이거한 시기는 56세 때인 1896년(고종 33)으로, 최명희가 주선하였다는 기록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가 태안에 오기 바로 전 해인 1895년에, 개화파 박영효가 전우는 수구학자의 우두머리로 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고종에게 주청하였던 것으로 보아, 개화파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종은 개화파의 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전우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1896년에는 일본의 정략적인 계획 아래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선생은 상소문을 올려 역적들을 처벌할 것을 역설하였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문인과 자손들에게 죽음으로 유학의 전통을 지킬 것을 명하였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전우는 기울어져만 가는 나라에 대한 걱정과 개화파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에 대한 극심한 절망감에, 공자가 말한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수창동 간재 선생의 훈학 장소

26) 崔命禧의 호는 老柏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哲宗 2년(1851)에 출생하였는데, 성품이 근엄 정직하고 博學篤行하여 명성이 세상에 널리 떨치었다. 노백의 영정은 그의 스승이었던 良齋 선생과 함께 현재 안기리의 안양사에 안치되어 있다. 지금도 근흥면 안기리에는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태안군지』 제6절 문학예술인편 참조

27) 이와 관련하여 간재는 斷髮을 행한 제자 1,000여 명을 門人錄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간재의 제자를 2,000에서 3,000명까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

타고 바다로 들어가겠다” 라는 말을 상기하며 깊은 초야에 묻혀 후진을 양성하는 것만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때 문인이었던 최명희가 태안으로 모시고자 하니 불현듯 자리를 떨치고 그리로 가지 않았나 한다. 전우가 태안에 머무른 기간은 1896~1900년의 5년 간으로 태안군 근흥면 수창동에서 머물면서 후진양성을 하였다. 노백 최명희가 전우를 만나 사제의 관계를 맺게 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말에 따르면 제자 가운데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태안 지역은 충청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학적 기풍이 덜하였던 듯하다. 최명희는 태안 근흥면 안기리에서 서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안지역의 교육과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우가 태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서산과 태안에 최명희를 비롯하여 40여 명의 문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유풍(儒風)을 크게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1900년 전우는 태안을 떠났고, 이에 최명희는 스승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향현사(鄉賢祠)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스승보다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나니, 최명희의 동문들이 그 뜻을 이어 받아 1929년에 사우(祠宇)를 짓고 토담을 축조하여 제향일(祭享日)을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 후 40년이 지난 1969년 9월 9일에 사림(士林)들의 동의에 따라 최명희의 영정과 위패를 안양사에 함께 봉안(奉安)하게 되었다.²⁸⁾

나. 난사(蘭史) 조희천(趙羲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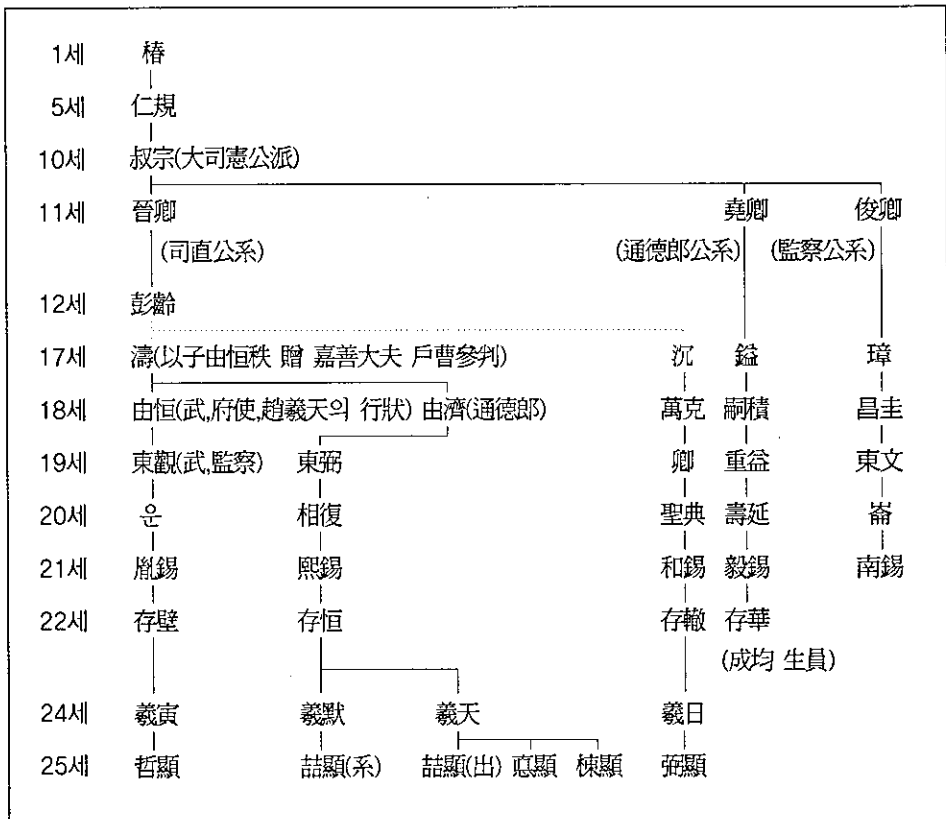
1) 가계와 성장 배경

조희천(趙羲天, 1845~1924)의 자(字)는 중오(中五), 호(號)는 난사(蘭史), 본관(本貫)은 평양(平壤)이다. 조희천은 고려 충렬왕 때 정숙공(貞肅公) 조인규(趙仁規,

28) 위 내용은 「태안군지」의 문화재와 사적지 가운데 누정과 사당편에서 인용하였다.

제5세)의 둘째 아들 연(璉)의 후손이다. 조인규는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선충익대보조공신(宣忠翊戴輔作功臣)으로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해진 까닭에 본관을 평양(平壤)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 오고 있다. 조인규의 아들 4형제가 모두 현달하였는데, 장만공(莊敏公) 조서(趙瑞)는 검교찬성사(檢校贊成事), 충숙공(忠肅公) 조련(趙璉)은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문정공(文貞公) 조후(趙瑋)는 삼사사(三司使)를 지냈으며 조위(趙瑋)는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로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해졌다. 조련의 가계는 다시 제10세 숙종(叔宗)에 이르러 분파 되었는데, 숙종의 벼슬이 대사헌인 까닭에 대사헌공파(大司憲公派)가 되었다. 조희천은 숙종의 장자

〈조희천의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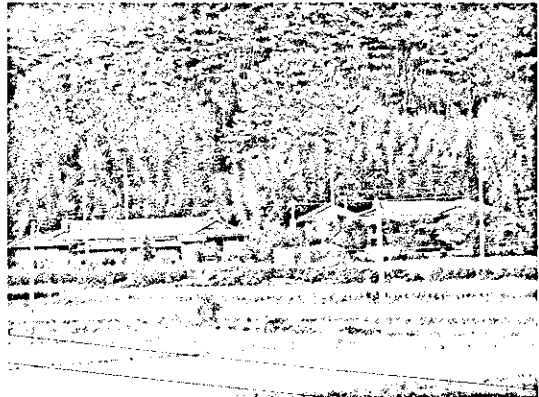


〈태안 원북면 일원〉 〈서산 지곡면 일원〉

진경(晉卿)의 후손으로, 현재 사직공계(司直公系)로 구분되고 있다. 최근 간행된 『평양조씨 대동보』에 따르면, 1480년 진경의 장자 팽령(彭齡)의 아버지의 형제 요경(堯卿)과 준경(遵卿) 형제를 따라서 태안에 복거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사직공계와 더불어 요경(通德郎公系)과 준경(監察公系)의 후손들이 각각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와 서산 지곡면 일원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조희천의 직계 선대를 살펴보면, 위로 5대조 유제(由濟)가 품계를 받았을 뿐 사환이 이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원북면 대기리에 거주하는 같은 사직공계의 19세 동관(東觀, 1709~1764)은 무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다. 같은 원북면에 거주하는 통덕랑공계의 22세 존화(存華, 1804~1889)는 1885년 을유식(乙酉式)에 부방(付榜)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았으며,²⁹⁾ 그에 따라 아버지 의석(毅錫)은 가선대부 호조참판, 할아버지 수연(壽延, 1737~1780)은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증조 중익(重益, 1702~1772)은 통훈대부 사복시 정(司僕寺 正)의 증직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희천의 가계는 1480년에 입향한 이래 19세기까지도 사환이 이어진 태안의 사족 가문 가운데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천은 대기리에서 1845년(헌종 11) 아버지 존항(存恒, 1813~1886)과 어머니 영산신씨(靈山辛氏) 용근(龍根)의 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존항은 일가인 성균관 생원 존화와 함께 글을 읽고 시를 읊으며 글씨를 잘 써서 주위에서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차



조희천 생가지

29) 족보에는 90세의 나이로 벼슬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86세의 나이에 작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래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희천의 집안은 태안 지역에서 부유한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글을 보면,

… 큰형님 휘(諱) 존화와 동생 휘 존한과 더불어 우애가 돈독하여 항상 백가지 일에 한결같이 큰형님의 지도를 따랐다. 더욱이 9년이나 거듭되던 흉년을 당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목숨을 온전히 할 수 없을 때, 세 집안 가솔이 30~40명에 이르렀으나 흉년을 당하여서는 서로 구제함이 마땅한 일이라 하여 땅을 팔아 곡식을 무역하여 생활의 방도로 삼았다. 9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매각한 전답이 10여 석지기에 이르렀고, 큰집과 작은집의 가솔들은 흉년인지 아닌지를 모르며 온전히 생활하였다.³⁰⁾

이라 하여 조희천 가문이 상당한 전답을 소유한 재력가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로 인해 어려서부터 학문을 하는 데에 그리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9년의 흉년이 지난 뒤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경제력으로 인하여 계속 과거에 응시하는 등 학업(學業)과 과업(科業)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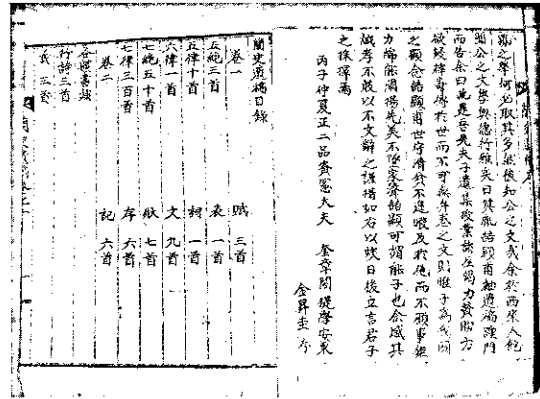
조희천은 어려서부터 언사(言辭)가 강직(剛直)하고, 의용(儀容)이 단정(端正)하였다고 전한다. 25촌 당숙인 연소(蓮巢) 조존화(趙存華)의 문하에서 수학(受學)하였는데, 머리가 명석하여 감히 다른 학동(學童)들이 그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조희천 묘소

30) 趙羲天, 『蘭史遺稿』卷 2, 『先考石溪公行狀』

특히 시작(詩作)에 능한 대문장가(大文章家)로서 위풍도 늠름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유학자로서 태안에서 평생토록 학문을 닦으며 후진의 교육과 지역민들의 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향교에서 유생들을 가르쳤고, 향약을 설립하여 고을 주민들의 교화에 힘썼으며, 1901년 향교의 중수와, 1910년 태안초등학교의 전신인 화양의숙(華陽義塾)의 증설(增設)에 참여하는 등 태안지역에서 유학뿐만이 아니라 신학문의 교육사업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79세로 일생을 마쳤는데, 문인이 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며, 장사를 지낼 때 문하생으로 가마(加麻)를 한 사람이 3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저서(著書)로는 난사기(蘭史記)가 있으며, 그의 사후(死後)에 후손이 펴낸 난사유고(蘭史遺稿)가 있다. 이밖에도 여러 권의 시집(詩集)이 전하고 있다.



난사유고

2) 생애와 업적, 그리고 태안 교육에 미친 영향

조희천의 학맥을 자세히 알 길은 없다. 단지 부친인 존향과 먼 친족인 조존화(趙存華)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이 전부이다. 존향과 존화는 이웃에 살고 있어서 매우 친하게 교류하던 사이였다. 또한 두 사람은 당시 근방에서 가장 학덕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존화는 어려서부터 시(詩)에 능하여 신동이라 불렸다고 전한다. 1858년 호서(湖西) 무오식(戊午式) 즉 충청감영에서 치르는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으나 서울에서 열리는 회시(會試)³¹⁾에는 입격(入格)하지 못하

31) 會試란 1차 시험인 중앙과 지방의 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서울에서 다시 보는 시험인 覆試를 말한다.

였다. 1884년 갑신식(甲申式)에서 다시 초시에 선발된 뒤, 다음해인 1885년 봄에는 80세가 넘는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었다. 그는 평생토록 독서(讀書)와 시부(詩賦)에 몰두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는데 문인이 수백인 이었다고 전한다. 사후(死後)에는 호우(湖右)의 사람들이 그의 학덕을 기려 향현사(鄉賢祠)에 배향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³²⁾ 1927년 이민영이 편찬한 『서산군지』에도 태안 고을의 문사(文士)들이 모두 그 문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존화는 조희천 이전 태안지역의 교육을 선도하여 이끌어 가던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희천은 대체로 부친과 조존화의 학문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재 전우를 태안지역으로 모시고 왔으며, 근흥 안기리에서 서당을 하고 있었던 노백 최명희³³⁾와도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호 호서학과 계열의 학자로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는 또한 태안향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난사유고(蘭史遺稿)』의 「향약계서(鄉約契序)」에 의하면, 조희천은 몇몇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전여씨향약과 울곡 이이의 향약을 모방하여 향약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다만 자세한 내용이 전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56세 때인 1901년에는 태안향교의 중수 현판기문을 지었다. 그 기문에 따르면, 부친인 조존항도 1871년 향교의 중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조희천의 집안은 대대로 태안향교의 향안이나 청금록에 등재된 집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난사유고』의 「발문(跋文)」에는 향교에서 강의를 열 때마다 조희천을 초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기록에 원근(遠近)에서 종학(從學)하는 자가 항상 수십 인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조희천은 부친 조존항과 스승 조존화를 이어 태안의 유학교육에 선도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32) 趙羲天, 『蘭史遺稿』卷 2, 「蓮巢先生行狀」

33) 『난사유고』권3에 노백 최명희가 난사 조희천에게 전한 序가 실려 있으며, 그 내용 중에 “난사에게 질의하여 함께 힘쓰고 또한 현세와 미래의 사람이 함께 천지로 더불어 한결같이 방대하며 같이 오래 均壽함을 연구하였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4) 趙羲天, 『蘭史遺稿』卷 3, 「贊」.

보인다. 실제로 그의 문인이 천여 명에 달했다는 기록³⁵⁾이 있으며, 그의 장례에 가마(加麻)³⁵⁾를 한 문생(門生)이 300인이었다고도 전한다. 간재 전우가 1896년부터 1900년까지 5년 간 잠시 태안지역에 머물면서 유풍(儒風)을 진작시켰다면, 조희천은 자신의 향촌인 태안에서 평생토록 유학자로서 향촌교화와 후학의 교육에 매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10년 65세의 나이로 사정(射亭)이었던 사락정(思樂亭)을 교실로 개조하여 화양의숙(華陽義塾)³⁶⁾ 증축하는데 참여한다. 태안지역 근대식 교육기관인 화양의숙 증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조희천이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아래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더하여 우리 어린 선비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고 당(堂)에 올라 추전(鄒傳·孟子)과 증전(曾傳·大學)과 사전(思傳·中庸)을 때때로 익히고, 이어서 어학(語學)과 농학(農學), 율학(律學)을 배워 일취일장하면 장차 이 풍속이 어리석은 시골이 가히 빛나고 빛나는 문향이 될 것이니 어찌 먼 백세(百世)에 하나의 커다란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³⁷⁾

즉 조희천은 유학자로서 「맹자」·「대학」·「중용」을 먼저 익힐 것을 언급하였지만, 이어서 화양의숙에서 교육하고 있는 어학(語學)·농학(農學)·율학(律學) 등의 신학문이 장차 태안지역을 발전시킬 중요한 학문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고루한 유학자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신학문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조희천은 화양의숙을 설립한 이희열의 회혼례에 축시(祝詩)를 바쳤고, 장례식에는 만사(輓詞)를 지었다. 참고로 이희

35) 加麻, 즉 首經은 상복을 입을 때 두건 아랫부분에 두르는 것으로, 짙에 삼겹질을 감은 둥근 테를 말한다. 가마는 상주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제자나 친구가 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친구나 제자는 상복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두건에 가는 삼끈으로 테두리를 두른다.

36) 화양의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37) 趙羲天, 『關史遺稿』卷 2, 「思樂亭改作學校記」.

열의 장례에서는 같은 집안의 남석(南錫)과 필현(弼顯)이 또한 만사를 바쳤다. <<조희천의 가계도>> 참조)

다. 원려당(遠慮堂) 이희열(李希烈)

1) 가계와 성장 배경

태안초등학교의 전신은 원려당 이희열(遠慮堂 李希烈, 1831~1918)이 설립한 1905년 화양의숙(華陽義塾)이다. 이희열의 자는 수경(壽卿), 호는 원려당(遠慮堂)이다. 현재 그의 관향은 고성(固城)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담은 『원려당행록(遠慮堂行錄)』이 초간된 1926년 무렵까지도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한 듯, 서천이씨 이석진(李錫晉)과 3남 이기석(李基奭)이 쓴 행장(行狀) 등에만 ‘이괄의 변란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피하여 해미(海美)로 피하였던 이희열의 11대조 이복령(李福齡)이 고성을 버리고 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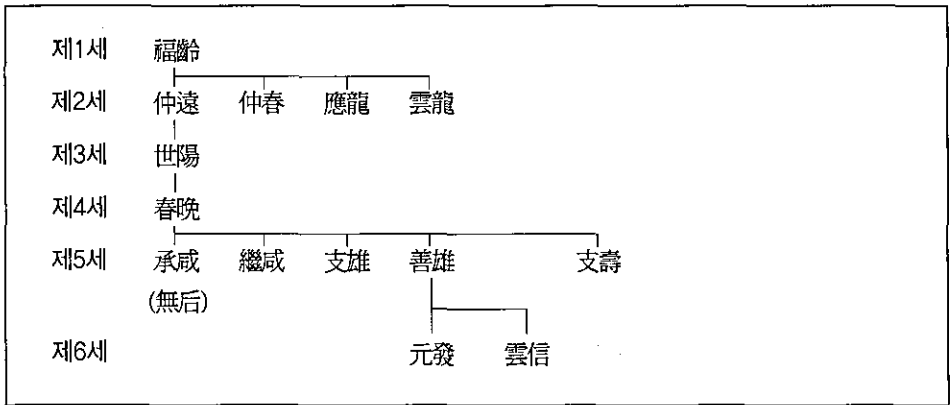
원려당 이희열

니 진주유씨의 관향을 따라 진주(晉州)로 바꾼 사실을 특기(特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행록 대부분에도 이희열은 진주인(晉州人)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1937년에 간행된 가보(家譜)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범례 첫 조항에도 “고성이라는 관향을 바꾸어 진주로 하여, 지금에 이르러 족보를 꾸미게 되었다. 따라서 진주로 바꾼 후부터 (족보를) 시작하고 고성을 관향으로 삼은 선조(先祖)는 별도로 수록한다.”³⁸⁾ 하였다. 이는 태안을 넘어서 충청도에서 손꼽힐 정도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집안을 일으킨 이후,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향을 되돌리기

38) 自固城改貫晉州而今此修譜 以晉州爲始 故固城先祖別錄于卷端.

힘들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로 해석된다.³⁹⁾ 1937년 간행된 족보에서 밝힌 바처럼, 복령(福齡)부터 그 현손(玄孫)까지의 행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 계보는 아래의 <고성 이씨 입향조~6세까지의 계보도>와 같다.

<고성 이씨 입향조~6세까지의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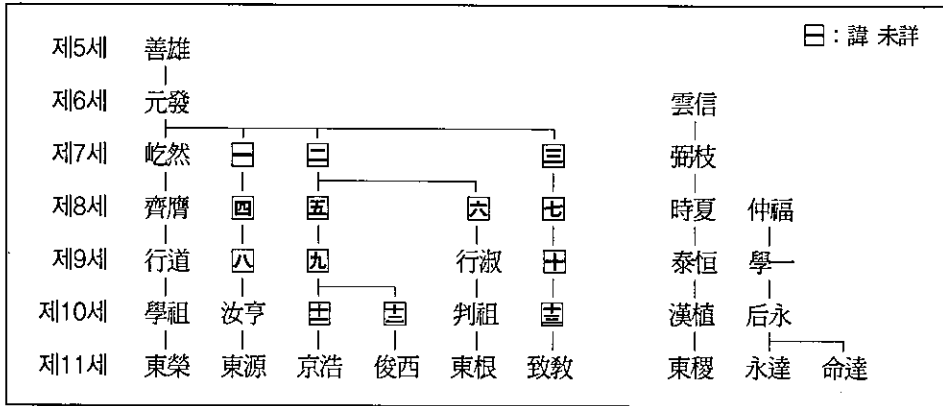


구분	諱	配位	묘소	비 고
1세	福齡	慶州崔氏(父:正求), 묘:失傳	失傳	이괄의 난을 피하여 해미로 숨고, 모친의 관향을 따라 晉州로 改貫함
2세	仲遠	全州李氏(父:萬英)		
	雲龍	洪州李氏		
3세	世陽	淸州韓氏(父:億天), 묘:合窆	근흥면 수룡리	
4세	春晚	開城車氏, 묘:同龕	태안면 장산리	
5세	支雄	金海金氏		
	善雄	金海金氏, 繼 金海金氏(父:愛臣)		通政大夫
	支壽	雙墳	태안면 環洞	

39) 조선 말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의 급격한 신분 변동과 관련된 좋은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완산이씨 李鍾淳이 쓴 家譜 序에 '후자는 영조조 문신 晉州李氏 李致彥과 同宗으로 혼동하는 일이 있으며, 譜系를 명백히 하여 고성에서 진주로 籍을 바꾼 同貫異族임을 세상에 병백히 밝히겠다.' 한 기록은 참고가 될 만한 자료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에서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상론은 생략하고자 한다.

이 가계의 행적이 뚜렷해지는 시기는 제5세 선웅의 두 아들 원발과 운신 형제 때부터이며,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선웅과 두 아들, 그리고 차자 운신의 장자와 장손은 납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계와 산직(散職)을 제수받고 있어서 일정 정도로 가문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계보를 살펴보면 아래의 <고성 이씨 元發과 雲信의 계보도>와 같다.

<고성 이씨 元發과 雲信의 계보도>



구분	諱	配位	묘소	비 고
6세	元發	延安明氏(父:遇容) 繼 金海金氏	태안면 環洞	資憲大夫(資憲公派)
	雲信	貞夫人 文化柳氏(父:通政 大愼), 묘:合窆	태안면 장산리	資憲大夫 龍驤衛副護軍(嘉義公派), 道僧과 함께 居兒島 望海菴에서 교유하다가 그의 말에 따라 環洞에 정착
7세	屹然	水原白氏, 묘:合窆	태안면 環洞	
	☐		태안면 장산리	
8세	弼枝	貞夫人 金海金氏, 雙墳	태안면 장산리	嘉義大夫 同知中樞府事
	齊膺	密陽朴氏, 묘:合窆	태안면 장산리	
9세	時夏	達成徐氏(父:嘉善 壽天), 묘:環洞	태안면 元環洞	敦寧都正
	仲福	金海金氏, 묘:上同	태안면 남산리	忌:4월 29일
9세	行道	平康蔡氏, 묘:근흥면 두야리	태안면 장산리	

구분	諱	配位	묘소	비 고
9세	㉠	平壤趙氏, 묘:合窆	태안면 산후리	릉:7월 4일
	行淑	金海金氏	失傳	
	泰恒	金海金氏, 上同	태안면 장산리	癸亥 生, 릉:4월 1일
	學一	青松沈氏, 1834년 卒, 묘:上同	태안면 남산리	1836년 卒
10세	學祖	青松沈氏, 繼 平山申氏, 묘:이북면 청산리	태안면 남산리	
	汝亨	묘:瑞山郡 南面 熊島	泰安西面 孔峴	
	田	順興安氏, 묘:上同	예산 대흥면 대울리	릉:2월 6일
	判祖	金海金氏, 묘:上同	근흥면 안기리	릉:1월 6일
	固	묘:上同	인지면 갈산리	
	漢植	平山申氏, 묘:合窆	태안면 環洞	릉:4월 17일
	漢平	金海金氏(父判官 龜琬, 묘:雙墳)	태안면 環洞	릉:4월 29일
	后永	月城李氏		릉: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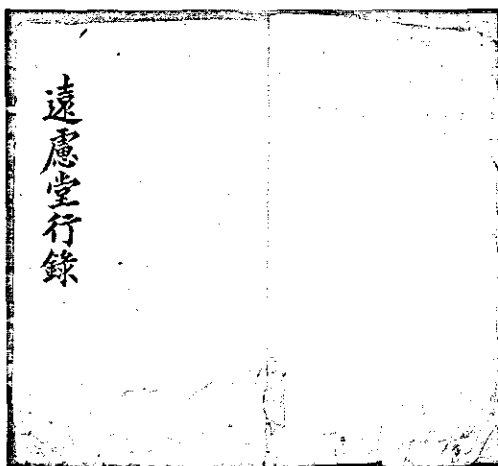
19세기 초반까지 속칭 ‘환동(環洞) 이씨’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묘소를 실전하고, 휘(諱)조차 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원발과 운신 형제, 그리고 운신의 장자·장손에게 제수된 품계와 벼슬이 오히려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유일한 자료는 태안보통학교(泰安普通學校) 제2대 교장 풍전호지조(豊田號之助, 1917년 4월~1920년 1월)가 미완성인 채로 남긴 원고를 정리하여(1921년 5월) 『원려당행록』에 수록된 글 『이희열사적(李希烈事蹟)』이다.⁴⁰⁾ 그 자료에 의하면, 운신은 검약을 실

40) 이 원고는 泰安公立普通學校에서 調査한 것임을 밝히면서, 이희열의 행적을 담은 『遠慮堂遺事』에 수록되었다. 『원려당유사』는 1926년 12월 『遠慮堂行錄』이라는 이름으로 태안공립보통학교에서 제5대 교장 大友喜幸이 지은 것으로 하여 발행되었는데, 1928년 3월 이희열의 長子 李基爽을 편집 및 발행자로 하고 본인의 집을 발행소로 하여 再刊되었다. 제목은 行錄에서 遺事로 바뀌었으나, 판심의 題字는 바뀌지 않은 채 遠慮堂行錄으로 되어 있고, 다만 원려당의 행장에 대한 有感 및 원려당행록을 읽은 소감을 담은 『奉讀遠慮堂行狀有感』(坡平后人 尹相大)과 『讀遠慮堂行錄』(濟州后人 高海攢)을 추가하고 있다.

천하여 지방에서도 두드러진 자산가가 되었고, 600석 이상을 자선사업에 투자하였으며,⁴¹⁾ 그 뜻을 이어받아 손자 시하(時夏, 제 8세) 또한 대기근을 맞아 약 1,000석(시가 약 1,000兩)으로 빈민을 구제하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입향조 복령은 인조조 화를 피하여 해미로 숨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때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태안으로

이거했다가 제6세 운신(雲信)은 도승의 말에 따라 환동(環洞, 현 태안읍 남문리)에 정착하였고, 이후 집안이 발복하여 세간에 '환동 이씨'라 부르게 된 것이다.⁴²⁾ 환동은 '고릿골'이라는 한글을 옮긴 한자어이다. 이곳은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고리 모양의 형국을 이룬다. 선대로부터 전하는 말에 따르면, '풍수지리에 따르면 반월(半月) 형국을 이루는데, 마을 터에는 12호 이상의 집을 짓지 말고, 와가가 아닌 초가집으로 해야 하며, 대문은 싸리로 달고, 닭과 소를 먹이지 말아야 하며, 타성(他姓)은 들어오지 말게 해야 한다.'고 한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반월 형국은 미래에 가문이 번창할 것을 지적하는 명당의 한 유형이다. 즉 반월은 아직 만월(滿月)이 되지 못하였지만, 점점 차 올라 장차 만월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만 지명에서도 고릿골이라 했듯이 둥그런 원형의 분지 지형을 반월의 형국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와 더불어 타성받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2호만으로 구성된 마을을 형성하는 배타성과 아울러, 초가집에 싸리문으로 집을 지으라는 부분이 관심을 끈다. 환동 이씨들의 신분적 지위를 짐작케 해주는 사실



원려당유사

41) 「원려당유사」에 이희열의 장자가 쓴 「府君行狀」에는 粟 1,000여 석으로 빈민을 구제하였다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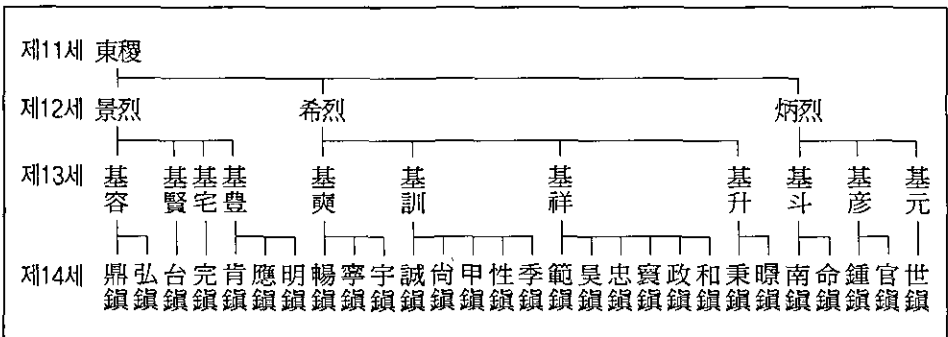
42) 1937년 家譜에서 完山人 李鍾淳은 序文에서 白華山 李氏라고도 칭하고 있다.

이기 때문이다. 닭과 소를 키우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또한 농업에 종사치 말라는 유훈(遺訓)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부분이 태안의 옛 포구와 길이다. 1872년 「태안지도(泰安地圖)」⁴³⁾를 보면, 외곽 지역의 포구가 있을 뿐이며, 태안 읍치에 가까운 포구는 남쪽 10리 거리의 장명포(長命浦)가 유일할 뿐이다.⁴⁴⁾ 그런데 또한 그 지도에는 관아와 장명포 사이의 길은 남문을 나와 환동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고, 태안의 장시는 남문 밖 경이정(憬夷亭) 앞에 개설되어 있었다. 환동 이씨가 상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음을 짐작케 해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실제로 후손들에게까지 “돈이 ‘구질’ [옛 길]에서 옆으로 빠져 환동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간접 자료를 통해서 볼 때, 환동 이씨는 최소한 6세 운신 이후 어느 정도 상업적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11세까지 환동 이씨들의 행적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다가 11세 동직의 두 아들 경렬(景烈, 1829~1885)과 희열, 특히 차자 희열에 의하여 집안이 급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희열과 그 아들들이 있었다. 우선 그 계보를 살펴보면 아래의 <고성 이씨 東稷의 계보도>와 같다.

<고성 이씨 東稷의 계보도>



43)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청구기호: 10422).

44) 趙幾天의 문집 『關史遺稿』에는 장명포에서 기우제를 지낸 「祈雨長明潭祭文」이 실려 있다.

구분	諱	配位	묘소	비 고
12세	東稷	文化柳氏, 묘:雙墳	태안면 環洞	
	景烈	金海金氏(父:仁赫), 묘:合窆	태안면 남문리	(1829~1885), 호:醉軒
	希烈	貞夫人 慶州崔氏(父:永結), 묘:合窆	예산 대흥면 노동리	(1831~1918), 호:遠慮堂, 1886년 繕工監假監役, 1900년 通政大夫, 1902년 嘉善大夫, 行狀:石梅 李錫晉
	炳烈	晉州姜氏(父:應舉), 묘:合窆	태안면 장산리	(1834~1883)
13세	基容	宜寧南氏(父:仁采), 묘:合窆	태안면 장산리	(1848~1927), 호:松堂, 司勇
	基賢	慶州崔氏(父:景麟), 묘:근흥면 두야리	근흥면 楸洞	(1858~1937), 武科, 副司果
	基宅	慶州鄭氏(父:重明), 묘:合窆	태안면 環洞	(1861~1934)
	基豊	晉州姜氏(父:洪冀)		(1867~), 호:石川
	基爽	淑人 永川崔氏. 묘:태안면 인평리 2配 淸州韓氏(父:正實) 3配 南原梁氏		(1857~), 武科, 副司果, 守門 將, 中樞院 議官, 瑞山·陰 城·泰安·高敞 郡守
	基訓	江陵劉氏(父:賢文) 2配 全州李氏 3配 礪山宋氏		(1862~), 武科, 中樞院 議官
	基祥	淑人 晉州姜氏, 묘:合窆 2配 密陽朴氏, 묘:팔봉면 덕송리 3配 濟州高氏	음암면 문양리	(1869~1935), 辛卯榜成均生 員, 瑞山·海美郡守, 私稿
	基升	慶州金氏(父:東箕), 묘:태안면 남산리 繼配 密陽朴氏(父:仁權)		(1872~), 濬(濬?)源殿 參奉, 中樞院 參議
	基斗	密陽朴氏(父:善洛)		(1869~)
	基彦	仁同張氏(父:仁和)		(1871~)
基元	慶州金氏(父:俊原)	태안면 남산리	(1877~1934)	

2) 생애와 업적

이희열(李希烈, 1831~1918)의 호는 원려당(遠慮堂)이며 아버지 동직(東稷)과 어머니 문화유씨(文化柳氏) 사이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안 읍내 남문리 속칭 '고릿골' [環洞]에서 출생하였다. 이희열은 1849년 19세의 나이로 혼인을 하였는데, 부인은 현재의 근흥면 마금리에 세거하는 경주최씨(慶州崔氏) 영철(永喆)의 따님이었다. 이희열의 생애에 대한 기록으로는 「일가삼금패일공로상이가희열씨선행략(一家三金牌一功勞賞李家希烈氏善行畧)」이 가장 구체적이다.⁴⁵⁾ 그 자료와 기타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그가 27세에 분가할 당시 가옥을 신축하고 소유한 논 10마지기 가운데 3마지기를 상속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양친의 생활을 우려하여 논 3마지기는 1년 후에 분가에 되돌려 주었고, 근검절약하여 저축한 쌀 6석을 시장에 팔아서 마련한 40량(兩)을 식리(殖利)하여 130량으로 늘려서, 33세에 귀실리(貴實里, 현 태안읍 장산리 귀실 마을)의 논 5마지기를 구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자본을 마련하여 42세에 귀실 마을에 시험적으로 염장(鹽場)을 설치하고 40여 인의 인부(雇人)를 고용하여 소금을 구웠는데, 그 후 8~9년 동안 제염업이 활황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염전을 12개소로 확충하였고, 그 생산량이 약 2,500석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강경·군산 등 전라도와 경기도 등지의 포구로 실려갔고, 다시 곡식과 직물(綿麻)로 교환하여 서울과 인천 등지로 판매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이희열의 경제적 부는 염전 경영과 상업활동을 통하여 축적되었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집안 경영을 위하여 일정한 원칙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원려당유사」에 의하면, 1905년 가헌(家憲)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들에게 일을 분장(分掌)하였는데, 장자는 가정사를 통괄하고[統管家政], 차자는 산업을 주관하며[主產業], 3자는 바깥일을 맡고[主外交], 4자는 농사와 임업

45) 목차에는 「서산공립보통학교행략기사」로 되어 있다. 이 글은 1916년 조선총독부 촉탁(勸誘) 촌상유길(村上唯吉)이 농촌개량강사(農村改良講師)로 서산을 방문했을 때 강연을 듣고 조사를 결심한 서산공립보통학교장 판원간추(板原良槿)가 편(編)한 글이다.

을 맡는[主農林] 것으로 되어 있다.⁴⁶⁾ 둘째, 매년 신년협의회(新年協議會)를 열어 전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과 당해년 예정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하도록 하였다. 신년협의회와 관련하여 1905년의 「을사신년협의회안(乙巳新年協議會案)」이 실려 있다.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축우(畜牛)·전곡(錢穀) 등의 장부 정리, 20세 이상 청년에 대한 회계업무 운번제 시행, 소작인을 대상으로 한 농계(農稷) 설립 등의 조항이 실려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거의 기업에 가까운 형태로 가정경제를 경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이희열의 아들 기석·기훈·기상·기승 4형제와 그 자손 10여 호 24인이 모두 환동에 모여서 거주하였다고 하며, 또한 이희열 내외를 위하여 백화산 아래 쌍학정(雙鶴亭)을 지어 학처럼 장수하기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 후에도 근검절약은 언제나 강조되었다. 81세의 신해신년잡(辛亥新年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에게 사농공상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한 나무와 채소 재배 또는 양계(養鷄)와 양봉(養蜂) 등을 놀이 삼아야 한다고 했으며, 노인도 힘에 부치지 않게 일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놀이패를 집안에 들이지 말고 즐기지도 말 것을 훈계하고 있다. 1916년 제1회 모임을 가진 친족강화회(親族講話會)의 내용을 보면, 부드럽고 따뜻한 의복을 입으면 신체가 허약해진다고 하고 있으며, 길경사(吉慶事)에 가서는 20분, 애흥사(哀凶事)에는 15분 이상 머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희열은 또한 경제적 부를 배경으로 납속직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원려당유사」에 따르면, 1886년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제수받는데 이어, 1900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차하였고, 1902년에는 다시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의 직을 받았다. 또한 1910년 11월 3일 조선총독부로부터 기로운사금(耆老恩輝金) 50원을 하사받았고, 1913년 6월 27일에는 상훈국(賞勳局)으로부터 삼중은배(三重

46) 「서산공랍보통학교행락기사」에는 4아들에게 업무를 분장한 조직을 서무부(庶務部)·회계부(會計部)·사업부(事業部)·외교부(外交部)라 칭하였는데, 사업부에서 1915년(始政 5) 기념물산공진회(記念物産共進會, 朝鮮物産共進會의 異稱?)에 출품한 결과 직물(織物)·산미(産米)·식림계획(植林計劃) 분야에서 3개의 금패(金牌)와 1개의 공로상을 수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銀盃) 1조(組)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부는 가까운 친지를 위한 진흥에 사용되었다. 우선 1902년 가난한 친족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논 20마지기를 내놓았고,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로 80마지기를 기부하였다.⁴⁷⁾ 그 결과 1902년(壬寅)~1913년(癸丑) 봄까지 12년간 혜택을 입은 경우가 270여 가구로 전해지는데, 관련 기증증서(寄贈贈書)와 규약이 『원려당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13년에는 나라(租) 400석을 태안군(당시 태안군 현황 : 13면 206리 7,414호)에 기부하여 산업저축기금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공동농계(共同農契)를 설립하고, 백화산(白華山) 동남쪽 황무지에 농장을 개설하는 등의 활동도 빈농의 생활개선과 일정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선행의 결과 1909년(己酉) 회혼례(回婚禮)에는 수 천명의 하객이 모이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⁴⁸⁾

이희열은 1918년 정월 7일에 사망하였다. 『원려당유사』에는 그의 묘소는 태안면 상옥리 흥주사(興住寺) 남록(南麓)이고 부인의 묘소는 부좌(附左)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37년 『가보(家譜)』에는 예산 대흥면 노동리이고 부부가 합폄(合窆)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천장(遷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사후 행장은 석매(石梅) 이석진(李錫晉)이 찬하였다. 이희열은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는데, 장자 이기석(李基奭)은 고창군수와 서산군수 등을 역임하고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고, 차자 이기훈(李基訓)은 중추원의관, 4자 이기승(李基升)은 서산군수와 해미군수를 역임하였다. 큰 사위는 강령군수(康翎郡守)를 지낸 유제언(柳濟彦)이고, 둘째 사위는 시어성기학 주사(侍御成耆鶴主事)를 지낸 박기동(朴基叢)이다. 해방 후 제1대 충청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영진(李寧鎭)은 이희열의 3자 이기상(李基祥)의 아들인데, 장자 이기석에게 입후하였다.

태안과 관련하여 이희열의 큰 공헌 가운데 하나는 군내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

47) 당시 기부한 토지 소재지와 면적, 그리고 賸地에 대해서는 『원려당유사』에 수록된 親族共有財産管理規約에 자세히 새겨 있다.

48) 이석진의 행장에는 3,000여 명, 장자 이기석의 행장에는 5,000여 명으로 되어 있다.

관을 설립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한 이희열 생전에 조직했던 산업저축계(産業貯蓄契)는 1922~1929년 사이 원 태안군 각 면에 설치된 공립보통학교 건립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그와 관련된 기록은 『원려당유사』 「구제사업(救濟事業)」편에 수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이희열은 1913년 3월 14일 서산군과 통합되기 이전 태안군에 속했던 13개면 206리(里) 7,414호를 대상으로 저축장려기본조(貯蓄獎勵基本租) 400석을 기부하였다.

그 가운데 환동(環洞)의 규약(産業貯蓄契規約)을 보면,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증식한 연후에, 빈곤자에게 연 2할 5푼의 이율로 양식과 종자를 대여해주고, 농업 개량과 산업을 장려하며, 납세자료(納稅資料)의 기본준비(基本準備)를 행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를 행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수록된 곡물분배의뢰의 건(穀物分配依頼의件)을 보면, 해당 각리(各里)에 평균분배(平均分配)를 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부조분배건(寄附租分排件)에는 각면(各面)의 호수를 파악한 후에 1두 7홉(合) 9작(勺)씩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수록된 장자 이기석의 추기를 보면, 산업저축계가 설립되어 6년 제였던 1918년 206개리에 설립된 앞의 산업저축계의 재산이 몰수되어 면립보통학교(面立普通學校) 건축비로 전용되면서 이희열의 후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몇 년 동안 집안 사람들이 침통함을 금치 못하였고, 계의 창립을 장려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취지서 등을 발송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으며, 군면(郡面)의 당국자들이 이 재산으로 인하여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설득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이희열은 1918년 정월 7일에 사망하였다.

3) 화양익숙과 태안초등학교

이희열의 나이 75세였던 1905년 9월 사대의 변천에 맞추어 백화산 남쪽 옥하

49) 『원려당유사』에는 面立普通學校로 되어 있으나, 공식 명칭은 公立普通學校이다. 『忠清南道發展史』(湖南日報社, 1932)에 의하면 大正 11년(1922)에 近興面과 梨北面에, 대정 12년에 所遠面에, 昭和 4년(1929)에 南面에 각각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沃下里)에 15칸 규모
 의 집을 구입하여 화
 양의숙(華陽義塾)을 개
 설하였다.⁵⁰⁾ 학용품[紙
 筆]을 제공하면서 수업
 료[月謝金]를 면제하였
 는데, 가르친 과목은
 윤이(倫彝)·지지(地
 誌)·역사·산술(算



화양의숙

術)·일어와 영어[日英語]였으며, 당시 교사는 한규석(韓圭錫)·김영제(金寧濟)·
 황희성(黃羲性)·이순택(李淳鐸) 등 4인이었다. 2년 후에는 지방의 실용적인 필요
 성 때문에 3개월 속성반으로 측량학(測量學)을 부설했는데 교사는 손성진(孫誠鎭)
 이었으며, 그 후 5개월 속성반의 조림학(造林學)을 개설하여 교사 최태현(崔泰鉉)
 을 초빙하였고, 다시 숙감(塾監) 김병선(金炳善)을 초빙하였다. 1910년에는 입학
 을 원하는 학생이 8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옛 활터(射亭, 思樂亭을 말함) 건물 6칸
 을 보수하고, 추가로 북쪽 터에 2개의 교실을 신축하였다. 그 비용은 여러 경로로
 마련되었다.

우선 옛 교사(校舍)를 매각한 대금 450원과 이희열의 기부금 800원 외에도, 이
 기홍(李箕洪)의 100원, 김동희(金東熙)의 50원, 백락민(白樂旻)의 40원, 손창현(孫
 昌顯)의 40원, 이종규(李鍾圭)의 30원, 이기현(李基顯)의 20원, 김기선(金基善)의
 20원, 박종언(朴鍾彦)의 10원, 강홍린(姜洪麟)의 10원, 이순삼(李順三)의 10원 등
 총 330원, 그리고 태안읍 동문리의 33석, 옥하리의 40석, 남문리 소례계(昭禮契)
 의 60석 등 총 133석이 모금되었다.⁵¹⁾

그러나 화양의숙은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이 공포됨으로써 관련 시설 일체가

50) 최근까지도 華陽義塾보다 안면도의 廣英新塾이 먼저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년도 또한 1907년으로 알려져 있었
 다. 그 오류에 대해서는 태안문화원의 정우영 원장이 기록을 검토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준 바가 있다.

정부에 기부되어 1911년 10월 1일을 기하여 태안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당시 학교 위치는 현재의 태안읍 남문리 191-3번지였고, 제1대 교장은 일본인 내등순장(內藤順藏), 교사는 3인, 그리고 2학급의 학생 46명이 있었으며, 1913년 3월 25일 제1회 졸업생 11명을 배출하였다. 개교 이후에도 태안공립보통학교의 교세는 계속 확장되었다. 1912년 7월(건평 27평, 공사비 999원 15전)과 1913년 8월(건평 27, 공사비 830원)에 각각 교실 1동을 증축하였다. 1920년 9월에는 원래의 학교 부지와 건물을 모두 이시우(李時雨)에게 매각하고, 남문리 303-3번지로 이전하였다. 이전에 따라 교실은 5칸(100평, 공사비 25,000원)이 신축되었으며, 운동장은 3,115평, 화단 325평, 학교 소유 실습 전답 466평 등이 있었다.

그 후에도 확장공사는 지속되어 1921년, 1923년, 1924년, 1926년에 각각 교실 1칸을 신축하였다.⁵¹⁾ 그후에도 학생수가 급증하면서 1938년에는 교실 2칸, 1943년에는 5칸 등의 신축이 계속되었다. 1926년 5월 실습지 420평(평당 43전)을 구입하였으며, 1926년 12월에는 운동장(977평)을 확장하였고, 1927년 5월에 도작실습지(稻作實習地) 383평(420원)을 매입하였으며, 1927년 6월에는 양잠실 10.5평(600원) 및 양계장(1평, 이하 공사비 총 280원), 농기구창고(2평), 퇴비장(2평 2습 5勺) 등을 건립하였고, 1928년 5월에는 학교에 인접한 남문리 토지 526평(평당 34전)을 매입하였다. 1923년 10월에는 학교의 교기(校旗)가 제작되었고, (李時雨 기부) 1931년 9월에는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로 운동회와 학예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1931년 10월에는 한문과(漢文科)가 폐지되는가 하면, 1936년과 1937년에는 학

51) 「일가삼금패일공로상이가회열씨선행략」에는 1906년(光武 10) 화양의숙(華陽義塾)을 설립하여 3자 이기상(李基祥)이 교주(校主)가 되고 이순택(李淳澤, 집필 당시 서산군 書記)과 한규석(韓圭錫) 등 2인을 교사로 초빙하여 친척 15~20세 사이의 1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년 6개월 후에 학생이 80인으로 증가하자 개인 돈 800원과 더불어 사정(射亭) 6칸을 기부받고 새로이 교사(校舍) 1동을 신축하였으며, 1909년 제1회 졸업생 25인을 배출하였고,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5개월 기간의 입학(林學)에 20인의 학생과 3개월 기간의 측량(測量)에 30인을 양성하는 임시 속성반 강습을 행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그 후 1911년 시설 등 일체를 정부에 제공하여 태안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기까지, 최초 2년 동안 월사금을 받지 않았으며, 그 후 무상으로 제공한 학용품과 교사의 급여 연 500원 등을 합하여 그 운영비가 3,000원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1991년 간행된 태안초등학교의 『開校八十年史』에도 이 기록을 바탕으로 연혁을 기술하고 있는 바, 「원려당유사」의 「興學校」의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추가 자료는 없다.

52) 1926년 5월 교실 1칸의 공사비는 2,70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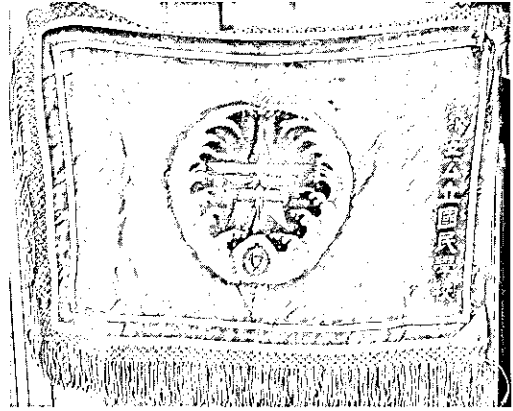
교 후원에서 경영하는 특별학급이 개설되기도 했는데, 첫 해에는 80명(남 50명 여 30명), 이듬해에는 73명이 수학하였다.

한편 일제의 간섭에 의하여 졸업생들을 동원하는 조직도 결성되었는데, 1929년 9월 9일에는 태안공립보통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태안청년단결단(泰安靑年團結團)이 조직되었고, 1934년

7월 13일에는 흥농청년단(興農靑年團)을 지정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평천리(平川里)에 단원 12명으로 조직이 결성되었으며, 1936년 8월 30일에도 태안진흥청년단(泰安振興靑年團)이 결성되었다.

태안공립보통학교는 1941년 4월 1일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 실시로 태안공립국민학교(泰安公立國民學校)로 개칭되었다.

한편 태안초등학교의 취학생은 당시 태안면 관내의 마을 출신이 95%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1920년 안면도의 광영신숙(廣英新塾, 1906년 설립)이 안면도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된 데에 이어 근흥·이원·소원·남면 등 5개교, 1930년대에 원북·모항·황도·안흥·안중(분교), 1940년대 방갈분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학생수는 1911년 태안공립보통학교로 개교 당시 46명에서 1944년 1,073명으로 2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⁵³⁾ 특히 거리가 가까운 태안면 일원의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공헌 정도를 짐작케 해 준다.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의 <표4 : 태안공립보통학교 연도별 학생 및 직원 현황> 및 <표5 : 연도별·지역별 학생수>와 같다.



태안공립국민학교 교기

53)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학교연혁지」의 다른 곳에는, 특히 1944년 재적생의 숫자가 1,502명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일제 말엽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정정하지 않은 때문으로 짐작된다.

연 도	재 적 생 수	학 급 수	직 원 수	졸업생(男 / 女)											
				숫자			졸업 후 진로								
				남	녀	계	상 업 고 교	농 업	상 업	공 업	관 리	인 문 사 학	노 동	사 망	기 타
1933				32	4	36	3/1	20/-				2/-			7/3
1934				41	6	47	6/1	21/-	1/-		1/-				12/5
1935	379			31	8	39	2/1	10/-							19/7
1936	420		6	35	4	39	1/2	13/-	2/-			4/1			15/2
1937	530	7	7	41	4	45	5/-	25/-			1/-	2/-			8/4
1938	667	9	10	41	16	57	3/1	31/-	1/-						6/15
1939	743	10	11	65	14	79	2/3	60/11	2/-			1/-			
1940	877	12	13	48	23	71	4/1	42/22	2/-						
1941	946	13	14	91	44	135	13/4	78/40							
1942	1,103	15	12	91	44	135	6/3	3/1	2/1	1/1					
1943	1,089		16	85	37	122	7/4	3/2	2/1	2/1					
1944	1,502	20	21	86	37	123	4/4	1/4	1/-	2/-					
1945				123	46	169	5/1	3/7							
계				1,356	327	1,683									

〈표5 : 연도별 · 지역별 학생수〉

연도		1938	1939	1940	1944	1955
泰安面	南門里	144	148	168	133	521
	東門里	167	165	177	179	349
	平川里	71	76	84	126	136
	盤谷里	22	28	44	59	97
	松巖里	18	21	31	46	98

연도		1938	1939	1940	1944	1955
泰安面	南山里	45	58	78	99	130
	長山里	46	64	68	95	132
	朔善里	29	49	51	91	129
	山後里	18	17	14	28	
	漁隱里	1	4	5	11	2
	上玉里	43	47	51	55	137
	仁坪里	4	23	36	126	67
	島內里	11	15	16	29	5
南面		7	2	2		
八峰面		10	10	11		
近興面		4	4	11		13
遠北面		15	12	20		15
기타		4		6		
계		658	743	873	1,073	1,833

※ 1938년, 1944년, 1955년의 합계에서 각각 1명, 4명, 2명의 착오가 확인되었으나 원 자료의 표기대로 따랐음.

일제강점기 태안초등학교의 신입생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점진적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1917년 이후 기록된 현황을 보면, 남녀 신입생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1930년대에 들어서는 전체 지원자의 30% 이상을 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5년까지 여학생이 졸업한 경우는 없으며,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표4 : 태안공립보통학교 연도별 학생 및 직원 현황> 참조) 대체로 문맹을 면하는 정도 이상의 여성 교육을 기대하지 않았던 탓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여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간간히 졸업한 여학생이 직업을 가진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전통질서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1940년대 전체 졸업생의 급증은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입생의 연령이 후대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1920년대까지 20세 전후의 신입생 또는 고학년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점차 일부 고학년 편입생을 제외하면 고령자의 입학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래의 <표6 : 연도별 남녀 신입생 현황> 참조)

연도별 남녀 신입생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6 : 연도별 남녀 신입생 현황>

연도	학년	모집정원		지원자수		입학생		연령(남/녀)		
		남	녀	남	녀	남	녀	최고	최저	평균
1917	1	45	15	45	15	45	15	22/21	7/7	12/ 9
	3	1	1	1	1	1	1	22/ 8		22/ 8
	4	3		3		3		17/ -	13/ -	15/ -
1918	1	45	15	35	5	35	5	16/10	8/ 8	16/ 9
	2			2		2		12/ -	11/ -	11/ -
	3			1		1		12/ -		12/ -
	4			2		2		16/ -		16/ -
1919	1	40	10	53	21	53	21	13/13	8/ 8	13/ 9
	2			3		3		13/ -	12/ -	13/ -
	4			2		2		15/ -	15/ -	15/ -
1920	1	50	30	56	18	56	18	17/12	8/ 7	11/ 9
	2			2	3	2	3	15/12	11/11	11/11
	3			4		4		19/ -	14/ -	17/ -
	4			1		1		14/ -		14/ -
	5			11		11		19/ -	14/ -	15/ -

연도	학년	모집정원		지원자수		입학생		연령(남/녀)		
		남	녀	남	녀	남	녀	최고	최저	평균
1921	1	60	20	51	25	51	25	17/12	9/ 6	13/10
	2			2		2		18/ -	14/ -	16/ -
	3			2		2		19/ -	11/ -	16/ -
	4			4		4		19/ -	14/ -	16/ -
	5			7		7		18/ -	10/ -	12/ -
1922	1	70	30	80	20	80	20	12/12	8/ 8	10/ 9
	2			18		18		13/ -	12/ -	12/ -
	3			6		6		13/ -	13/ -	13/ -
	4			3		3		15/ -	14/ -	14/ -
	5			3		3		15/ -	15/ -	15/ -
1924	1	70	20	75	20	70	20	11/10	8/ 7	10/ 9
	2	10		22		10		13/ -	12/ -	12/ -
	3	19		23		19		14/ -	13/ -	13/ -
	4	20		30		20		18/ -	13/ -	15/ -
	5	23		63		23		20/ -	16/ -	18/ -
	6	10		15		10		19/ -	17/ -	17/ -
1925	1	50	20	30	7	30	7	10/11	6/ 6	7/ 7
	2			13		13		11/ -	8/ -	10/ -
	3			6		3		12/ -	9/ -	11/ -
	4			10		9		16/ -	9/ -	13/ -
	5			45		22		18/ -	10/ -	16/ -
	6			28		18		21/ -	15/ -	17/ -
1926	1	80	20	73	10	73	10	10/10	6/ 6	6/ 7
	2	20		8		8		11/ -	10/ -	11/ -
	3			1		1		11/ -		11/ -
	4			5		5		13/ -	10/ -	12/ -
	5			23		23		16/ -	14/ -	14/ -
	6				1		1	-/ 16		-/ 16

연도	학년	모집정원		지원자수		입학생		연령(남/녀)		
		남	녀	남	녀	남	녀	최고	최저	평균
1927	1	50	17	50	17	50	17	10/12	5/ 6	8/ 7
	2	4	1	4	1	4	1	10/10	9/ -	10/10
	3	2	3	2	3	2	3	11/ 8	10/ 7	11/ 8
	4	3		3		3		16/ -	9/ -	13/ -
	5	3		3		3		16/ -	14/ -	15/ -
	6		1		1		1	-/17		-/17
1928	1	60	20	51	10	51	10	11/11	6/ 6	8/ 6
	2			6	2	4	2	10/12	10/12	10/12
	3			2	1	2	1	11/12	11/ -	11/12
	4			2	1	2	1	12/12	12/ -	12/12
	5			3		3		13/ -	13/ -	13/ -
1929	1	55	15	50	14	41	12	9/11	6/ 6	7/ 7
	2			4	1	2	1	10/ 9	9/ 9	9/ 9
	3			8		6		12/ -	10/ -	11/ -
	5			3		3		13/ -	12/ -	12/ -
	6			1		1		12/ -	12/ -	12/ -
1930	1	45	15	37	18	37	18	9/12	6/ 6	8/ 8
	2			1		1		8/ -		8/ -
	3			2	1	2	1	11/15	11/ -	11/15
1931	1	50	25	73	31	50	25	9/11	6/ 6	8/ 8
	2			3	3	3	3	10/14	9/10	9/11
1932	1	45	25	50	23	42	23	9/11	6/ 6	7/ 7
	3			2		2		9/ -	9/ -	9/ -
	4			2	1	2	1	11/10	9/ -	10/10
	5			6		6		17/ -	13/ -	15/ -
1933	1	45	20	51	26	43	19	10/11	6/ 6	7/ 7
	2	5		2	2		2	-/ 8	-/ 8	-/ 8
	3		5	2	3	1	2	11/13	-/11	11/11
	5	10	3	8		8		15/ -	11/ -	13/ -

연도	학년	모집정원		지원자수		입학생		연령(남/녀)		
		남	녀	남	녀	남	녀	최고	최저	평균
1934	1	50	30	55	37	50	30	10/11	6/ 6	7/ 8
	2	4	1	3	1	3	1	11/ 8	10/ -	10/ 8
	4	8		8		8		15/ -	12/ -	13/ -
1935	1	50	25	67	43	49	26	10/10	8/ 7	9/ 9
1936	1	52	27	104	50	52	27	9/ 9	6/ 6	8/ 8
	2	1	1	11	3	1	1	10/11		10/11
	3	6	1	6	1	6	1	12/13	9/ -	12/13
	4	7	1	17	1	7	1	15/14	13/ -	14/14
	5	7	1	7	1	7	1	17/14	13/ -	16/14
1937	1	45	31	100	70	45	31	9/ 9	8/ 6	8/ 7
	2	55	30	57	31	55	30	11/11	7/ 8	10/10
	5	2		2		2		13/ -	11/ -	12/ -
1938	1	97	38	114	45	97	38	9/ 9	6/ 6	8/ 8
	2	44	17	44	17	44	17	9/ 8	7/ 7	8/ 7
	6	1		1		1		15/ -		15/ -
1939	1	127	63	138	70	127	63	9/ 9	7/ 7	8/ 8
1940	1	126	64	140	75	126	64	9/ 9	7/ 7	8/ 8
1941	1	117	65	178	65	117	65	9/ 9	6/ 6	8/ 7
	2	1	1	1	1	1	1	9/10		9/10
	3	7	1	9	1	7	1	12/12	10/12	11/12
1942	1	172	69	223	74	223	74	9/ 9	6/ 6	8/ 8
	2	6	3	8	4	6	3	11/11	10/11	10/11
	3	3	1	5	1	3	1	12/12	11/12	11/12
1943	1	106	80	288	180	106	80	9/ 9	6/ 6	8/ 9
	2	4	3	7	4	4	3	11/10	10/ 8	10/ 9
	3	3	4	5	8	3	4	12/12	11/11	12/12
1944	1	81	25	314	101	314	101	9/ 9	6/ 6	7/ 7
	2	1	1	1	1	1	1	10/10	10/10	10/10
	3	1		1		1		11/-		11/-
	4	1	1	1	1	1	1	12/12		12/12

한편 태안초등학교를 거쳐간 교원은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역대 교장을 거론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인 2인을 포함한 총 14명이 재임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7 : 역대 교장 현황 (1911~1945년)>과 같다.

<표7 : 역대 교장 현황(1911~1945년)>

순번	성명	임기	비고
1	내등순장(內藤順藏)	1911 10. 1~1917. 4. 16	홍성공립보통학교로 전근
2	풍전호지조(豊田號之助)	~1920. 1. 14.	오천공립보통학교로 전근
3	중미저태당(中尾猪太郎)	~1925. 3. 31	퇴직
4	지번보(池邊保)	~1926. 3. 31	직산공립보통학교로 전근
5	대우희행(大友喜幸)	~1927. 3. 1	조치원공립보통학교로 전근
6	임병덕(林炳億)	~1928. 3. 31	燕東公立普通學校로 전근
7	소견산풍심(小見山豊心)	~1931. 3. 31	퇴직
8	유림영인(楡林榮人)	~1934. 7. 12	서천공립보통학교로 전근
9	길전직태(吉田直太)	~1938. 9. 2	陽村公立尋常小學校로 전근
10	길전웅치(吉田熊治)	~1939. 3. 31	
11	근등덕부(近藤德夫)	~1940. 3. 31	
12	윤창구(尹昌求)	~1942. 3. 31	
13	삼원미시랑(杉原彌市郎)	~1942. 12. 14	안면공립국민학교로 전근
14	사도철이(寺島鐵二)		

해방 후인 1945년 9월 25일에는 안명선(安明善) 교장이 부임하였고, 교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근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때문인지 1946년의 졸업식은 6월 29일에, 입학식은 9월 1일에 거행되었다. 당시 졸업생은 남학생 114명, 여학생 48명 등 총 162명이었으며, 신입생은 남

학생 342명, 여학생 121명 등 총 463명이었다. 1959년과 1960년에는 연이은 교사(校舍) 신축공사가 있었다. 1960년에는 어은분교(1948년 설치), 1964년에는 화동과 송암분교(1963년 설치)가 각각 독립되었고, 1996년에는 초등학교로 개칭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5년 2월 현재 졸업생은 총 19,731명(1945년까지 1,683명 포함)이며, 교직원은 52명이고, 각 학년이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재학생은 1,253명이다.

라. 소정(紹庭) 김병년(金炳年)

1) 가계와 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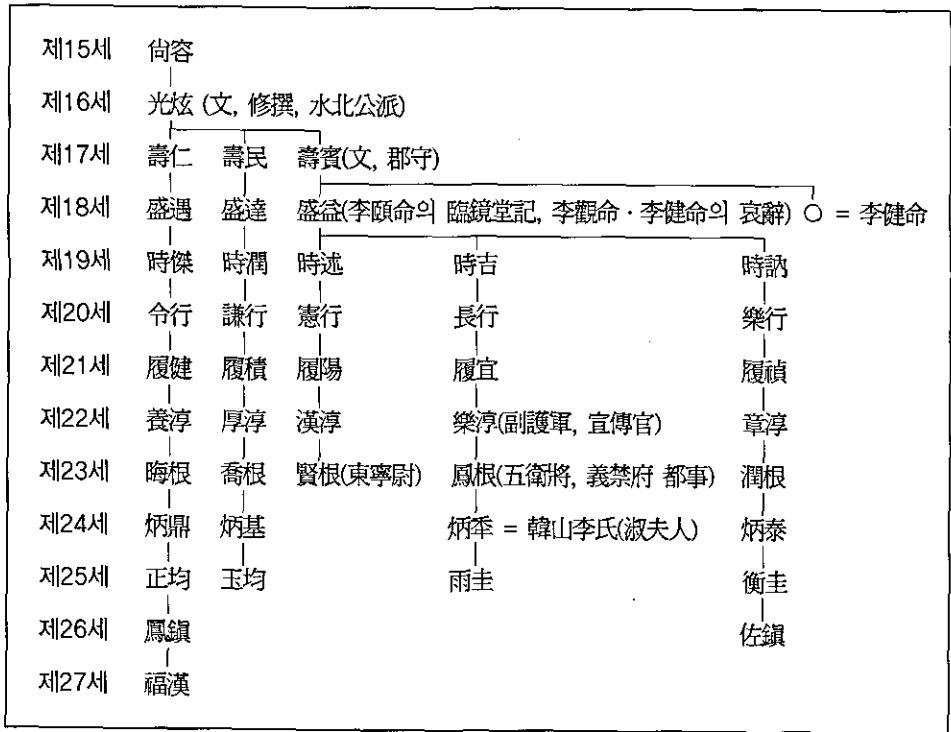
갈피에 세거하던 안동 김씨는 속칭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후예로서, 세간에서 '갈피 김씨'로 불려지는 충청도의 대표적인 명문가 가운데 하나이다. 홍주의 안동 김씨는 수북(水北) 김광현(金光炫, 1584~1647)을 입향조로 하는 수북공파이다.⁵⁴⁾ 홍주목사를 지냈던 김광현은 아버지 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후, 홍주 오촌동(鰲村洞)에 은거하다가 타계하였다. 그 후 후손들이 일대에 세거하였으므로 세칭 '갈피 김씨'라 하는 것이다.(〈김병년의 가계도〉 참조)

갈피 김씨가 비록 홍주에 세거하였으나 서울과의 교류가 계속되었고, 특히 청음 김상헌의 대종가를 비롯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여러 지파에 누대로 입양하였다. 또한 한말에 이르기까지 사환도 끊이지 않았으며, 한국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인물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고, 승정원 승지로 있던 중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으나,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리자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고균(古筠)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은 개화파의 거두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김이양(金履陽, 1755~1845)은 벼슬이 좌참찬에 올랐으며, 1844

54) 수북공파에 대한 논의는 김영한의 글과 면접 자료를 정리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김영한, 2005, 「충청도 세거 안동 김씨의 가계와 인물」, 『일동장유가의 퇴석 김인겸』,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한어문교육학회.

년 90세의 나이로 궤장을 하사받았던 인물로서, 그의 손자 현근(賢根)이 부마도위로서 동녕위(東寧尉)가 되었다. 독립운동가인 백야(白冶) 김좌진(金佐鎭, 1889~1930) 또한 수북공의 후손이다. 그 외에도 여류 문장가로 이름이 높은 호연재(浩然齋, 1681~1722), 독립운동가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1846~1922) 등도 모두 같은 일가이다.

〈김병년의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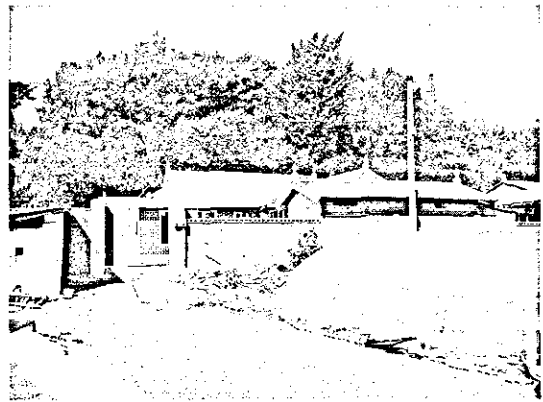


2) 생애와 업적

김병년(金炳季, 1855~1932)의 자는 성연(聖淵), 호는 소정(紹庭), 본관은 안동으로, 1855년 홍주목 갈피에서 아버지 봉근(鳳根)과 어머니 진주 소(蘇)씨 사이에

서 출생하였다. 부인은 한산 이씨 용직(用植)의 따님이다. 1887년(고종 24) 별시(別試) 병과(丙科) 7등으로 급제하면서 그 해 12월 곧바로 부교리(副校理, 종5품)에 제수된 이후,⁵⁵⁾ 순탄한 벼슬살이를 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임금이 명에 따라 교리(정5품)로 승차하였으며,⁵⁶⁾ 같은 해 5월에는 사간원 헌납(獻納)으로 자리를 옮겼고,⁵⁷⁾ 10월에는 병조 정랑(正郎)으로 옮겼으나 12월 병으로 사직하였다가,⁵⁸⁾ 1년 후인 1889년 11월 홍문관 응교(應敎)로 다시 복귀하였고,⁵⁹⁾ 1890년 윤2월에 성균관 사성(司成, 종3품)으로 벼슬이 올랐고,⁶⁰⁾ 같은 해 11월에는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신병으로 사직하였다.⁶¹⁾ 12월 다시 예조참의(禮曹參議)로 복귀하였고,⁶²⁾ 1891년 11월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로,⁶³⁾ 1892년 정월에는 호조참의로,⁶⁴⁾ 3월에는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으로 옮겼고,⁶⁵⁾ 1892년 4월 다시 우부승지가 되었다.⁶⁶⁾

한편 김병년이 궁내부 승지 벼슬을 사직한 것은 1901년이라 전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안면도에서 김병년이 거주하던 집

55)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12월 22일(甲辰)조; 『일성록』 고종 24년 12월 22일조.

56) 『승정원일기』 고종 25년 정월 20일(壬辰)조.

57) 『승정원일기』 고종 25년 5월 27일(무인)조.

58) 『승정원일기』 고종 25년 10월 17일(을미)조; 同 12월 5일(임오)조.

59) 『승정원일기』 고종 26년 11월 26일(무진)조.

60)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윤2월 26일(병인)조.

61)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11월 13일(기묘)조; 同 12월 4일(기해)조.

62)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12월 18일(계축)조.

63) 『승정원일기』 고종 28년 11월 22일(임오)조; 『일성록』 고종 28년 11월 22일조.

64)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정월 27일(정해)조.

65)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3월 4일(임술)조.

66)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4월 19일(정미)조.

하여 1892년 이후 행적을 확인할 길이 없으며, 다만 국운이 기울어 가는 상황에 비애를 느끼면서 고향인 갈포로 내려와 잠시 머물렀고, 뜻한 바가 있어서 가솔을 이끌고 안면도로 들어왔으며, 이후 인재양성에 여생을 바칠 각오로 학교설립을 서둘렀다는 이야기가 전할뿐이다. 그리고 먼저 지방유지들을 설득하여 호응시킴과 동시에 당시 주변의 대표격인 편준익(片準翊)의 사재투입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안면도 승언리에 1906년(광무 10) 11월 10일 학교를 세우고, 같은 해 12월 28일에 대한제국 학부대신으로부터 '광영신숙(廣英新塾)'이라는 교명으로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⁶⁷⁾ 한편 김병년은 만년에 다시 거주지를 서산읍내로 옮겼으며, 1926년 이민녕(李敏寧) 군수가 『서산군지』를 간행할 당시 서문을 썼다.⁶⁸⁾ 아들로는 김우규(金雨圭)가 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 유학생으로 광영신숙의 교사로서 무보수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산군지』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서산농회(瑞山農會) 통상의원(通常議員), 삼림조합(森林組合) 평의원, 서산보통학교 학무위원(學務委員), 서산면 면협의원(面協議員) 등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⁹⁾

한편 김병년이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서산지단(瑞山支團)을 조직할 당시 깊이 간여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독립단은 3·1운동이 실패한 후, 1919년 4월 15일 만주로 망명한 박장호(朴長浩)·조맹선(趙孟善)·백삼규(白三圭)·조병준(趙秉準)·전덕원(全德元)·박양섭(朴陽燮) 등 단체대표와 의병 계열의 인사 560여 명이 분립하고 있던 여러 단체를 해체하고 단일기관으로 만든 조직이다.⁷⁰⁾ 그 본부는 류허현에 있었고, 지단(支團)·분단(分

67) 『서산군지』(1926, 한국인문과학원 영인본) 인물조에는 이와 관련하여, '안면도에 몸을 숨기고 섬 주민들과 협의하여 광영학교를 설립하였으니, 서산군내 (근대식) 학교의 嚆矢'라는 기록이 전한다. 金炳年 安東人 號紹庭 仙源 金尙容后 韓哲宗六年乙卯生 性清簡篤學博識 登文科官承旨 見世道日非逃名晦身于安眠島 興島民協議設立廣英學校 教之以新教育 此爲本郡內設學之嚆矢 晩年移居于瑞山面獐里 終日端坐手不釋卷若將終身 其子金雨圭. 이 기록과 관련하여 서산군내 첫 근대식 학교는 華陽義塾이었음은 앞에서 살핀 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68) 晩年移居于瑞山面獐里 終日端坐手不釋卷若將終身 其子金雨圭. 『서산군지』(1926, 한국인문과학원 영인본)

69) 『서산군지』(1926, 한국인문과학원 영인본) 官公職員錄條.

團) 등을 설치하여 국내외에 모두 100여개소의 지단·지부를 설치하고 있었다.⁷¹⁾ 그런 가운데 현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 출신의 서병철(徐丙轍, 1893~1977)⁷²⁾이 대한독립단 서산지단 조직을 모색하던 중 유태길(劉泰吉) 여사의 도움으로 서산읍 장리에 거주하는 김병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김병년과의 협의를 거친 후 안면도로 간 서병철은 오몽근(吳夢根)·이종헌(李鍾憲)·가재창(賈在昌)·임종석(林鍾錫)·임정호(林楨鎬)·염성환(廉星煥)·편무연(片茂捐)·이재국(李在國)·박준용(朴準用)·박봉래(朴鳳來) 등을 중심으로 서산지단을 구성하고 안면도를 근거지로 삼아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 밀고에 의하여 모두 체포되었고, 서병철 등은 모두 옥고(獄苦)를 치루게 되었다. 그 가운데 이종헌은 공주법원에서 2년 6월의 형량을 언도 받았으나 항소하였고,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판사에게 항의를 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4년형을 언도 받기도 하였다.⁷³⁾

대한독립단 서산지단을 조직할 당시 서병철이 김병년과 협의를 했다는 점은 이미 밝혔거니와, 그 중심 인물이었던 이종헌(李鍾憲, 1890~1957)은 김병년이 설립한 광영신숙의 학생이었고,⁷⁴⁾ 1918년 졸업 후에는 모교의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70) 그 임원으로는 都總裁 朴長浩, 副總裁 백삼규, 諮議部長 朴治翼, 군사부장 전덕원, 총무부장 金平植, 재무부장 康世憲, 司翰長 金起漢, 부참모장 朴陽燾, 총참모 조병준, 참모 宋尚圭·康圭默·趙濟杰·李廷根, 총단장 趙孟善, 부단장 崔永浩·金元燮, 서무 金逸, 고문 安秉瓚 등이 임명되었다. 대한독립단은 대한제국의 재건을 주장하는 북벽주의 계열의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19년 말경에는 단군기원 또는 대한제국의 연호인 용희를 주장하는 박상호·백삼규·전덕원·李雄海·김평식 등의 紀元獨立團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호 사용을 주장한 申禹茲·邊昌根 등의 民國獨立團으로 대립하였다. 1920년 12월에는 韓族會·청년단연합회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 사령부에 통합되고, 1922년 2월 류희현에서 한족회·光韓團 등 독립운동단체들과 회합, 大韓統軍府를 조직하고 발전적인 해체를 하였다.

71) 국내 총지단장은 洪濟業, 평안북도 鄭禹範, 평안남도 安昌一, 경기도 韓惠履 등이었다. 金承學·白義範 등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孟憲奎·劉一優 등은 만주 輯安縣과 長白縣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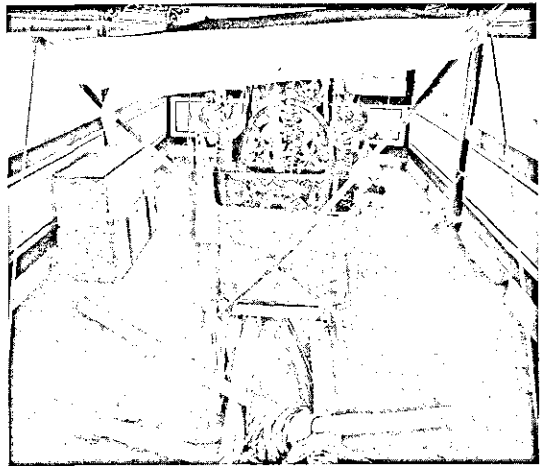
72) 1918년 4월 무렵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서산 일대의 유지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운동자금을 모집했다. 3·1운동 때는 서산만세운동에 가담했고,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일원으로 가입했다. 1920년 5월 서울 鍾路區 仁義洞에 있는 全基奉의 집에서 金相玉·金東浮 등과 암살단을 조직, 친일분자를 없애고자 하였다. 1920년 10월 독립단 서산지단사건으로 붙잡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921년 10월 암살단사건으로 붙잡혀 1922년 4월 정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73) 이와 관련하여 홍주의병을 주도하였던 같은 水北公派의 후손 志山 金福漢과의 교류 사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병년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김복한의 경우에는 『志山集』 등 관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74)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91번지에서 奎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 후 광영신숙의 제9대 교장이 되었는데 3·1운동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대한독립결사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19년 11월 평안남도 대한독립단 검거사건에 연루된 이종성(李鐘聲)이 상해임시정부의 재무관으로 활동하던 서병철의 부탁을 받고 이종현과 접촉하게 되었던 것이다. 4년 간의 옥고를 치른 다음에도 이종현은 교육사업에 전력을 쏟으면서도 또한 화수회·시제·대동계 등의 명목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일을 하였고, 해방 후에는 안면면 초대 면장으로 재직하다가 1957년 68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1977년 12월 13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1990년 5월 28일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315호로 지정된 태안 승언리 상여(泰安承彦里喪輿)도 김병년과 관련된 유물이라 전한다. 김병년은 한때 시장원 보덕(侍講院 輔德)의 자리에 있으면서 원화군(完和君, 1868~1880)⁷⁵⁾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상여는 안면도 승언리 주민을 동원하여 국장을 치를 때 사용되었던 것이라 하며, 그 후 김병년은 자신이 죽으면 이 상여로 장사 지내 달라고 유언을 하여 나라에서 그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의 장례 후에도 계속 이 마을에서 보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상여는 현재 김병년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집 인근에 보관되어 있다.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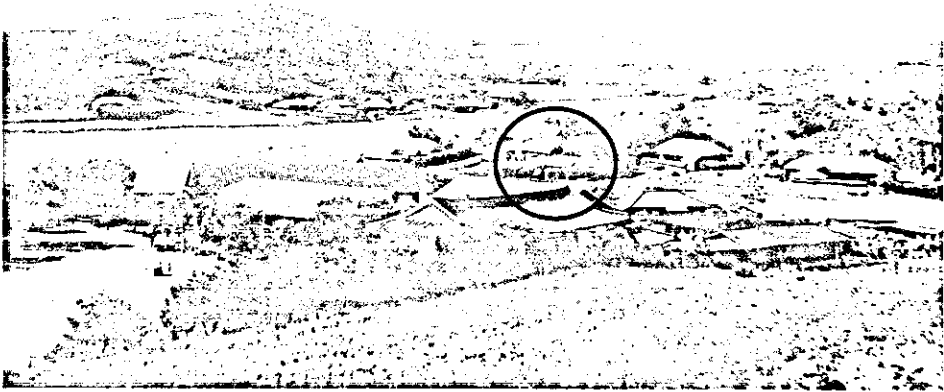


승언리 상여

75) 고종 5년 윤4월 10일淑媛 李氏의 몸에서 탄생한 고종의 장남으로, 고종 13년4월 10일 完和君으로 봉해졌고, 고종 17년 정월 2일 세상을 떠났으며, 융희 원년(1907) 8월 24일에 完王으로 추봉되었다. 세자로 책봉하려 하면서 민비와 대원군의 갈등을 촉발시켰다고도 하며, 이에 명성황후가 독살하였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한다.

3) 광영신숙과 안면초등학교

김병년이 설립한 광영신숙(廣英新塾)의 위치는 현 안면초등학교 북쪽 약 200m 지점이다. 당시 건물은 검은색 페인트칠이 된 함석지붕으로 1970년경까지 남아 있었다. 최초의 졸업생은 화양의숙과 같은 해인 1909년에 배출하였다. 그 설립년도는 화양의숙에 불과 1년 2개월 늦은 1906년 11월 10일이었으나,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된 시점은 태안공립보통학교보다 8년 7개월이나 늦은 1920년 6월 5일이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원려당유사」 「구제사업(救濟事業)」편의 기록을 보면, 1918년경 서산군 각 면에 보통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안면도에서는 광영신숙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던 까닭에, 현 태안군 관내 다른 면보다 최소 2년 이른 시기에 개교할



1960년대 안면초등학교와 광영신숙 건물(원 안)

76) 상여는 仰楨(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상여 위로 높이 치는 천막) 틀 앞뒤에 봉황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고, 네 귀에 鬼面像이 서 있다. 용마루 앞뒤 부분에는 용틀임 모양이 조각되어 있고, 용마루 가운데에는 특이한 형상의 저승 사자상이 서 있다. 流蘇(상여의 네 귀에 드리우는 매듭 장식)와 寶帳(상여에 둘러치는 휘장이) 약간 훼손되기는 했으나 부재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요 재료는 나무이며,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고전적이며 화려하다. 상여의 크기는 길이 2.2m, 너비 1m, 높이 1.5m이다. 승언리 마을에서 소유하고, 이 마을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면도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인가는 1920년 2월 1일인데, 광영신숙을 인수한 시점은 6월 5일인 것으로 보아, 인수를 둘러싼 다소의 조율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개교 당시 안면도공립보통학교의 수업년 한은 4개년이었다.

개교 후 1920년 10월 20일에는 본관 4개 교실이 준공되었다. 1926년 4월 22일에는 수업년한이 6개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27년 1월 25일 조선식 와가(瓦家) 3개 교실이 준공되었으며,⁷⁷⁾ 1937년 3월 20일에는 강당을 겸한 와가 3개 교실이 준공되었다.⁷⁸⁾ 1938년 4월 1일에는 조선교육령 개정에 의하여 안면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되었으며, 1941년 4월 1일에도 교육령 개정에 따라 이름이 안면공립국민학교로, 다시 1996년 3월 1일 안면초등학교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설 간이학교(簡易學校)도 설치되었는데, 1934년 4월 2일에는 고남간이학교, 1937년 9월 20일 황도간이학교, 같은 해 11월 29일 중장간이학교가 설치되었다. 1938년 4월 1일에는 고남 간이학교가 고남심상소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43년 4월 1일 중장간이학교가 중장분교로, 이듬해 같은 날자로 황도간이학교가 황도분교로 개칭되었다. 해방 후인 1947년 7월 25일에는 창기·대야도·간월도 등 3개 분교가 부설되었고, 1947년에는 중장분교가 안중공립국민학교로, 그리고 1949년 창기분교가 창기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66년 인가되었던 방포 분실(1학급)은 1971년 방포국민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68년에는 죽도와 나치도 분교가 부설되었다. 1945년 당시 재학생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창기리(91명), 정당리(175명), 승언리(443명), 중장리(78명), 신야리(38명) 등으로 모두 안면도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한편 광영신숙을 포함한 안면초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총 8,1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의 <표8 : 안면도공립보통학교 연도별 학생 현황 (1920~1945)>과 같다.

77) 이 건물은 1970년 11월 21일 철거되었다.

78) 강당은 1971년 10월 1일 철거되었다.

〈표8 : 안면도공립보통학교 연도별 학생 현황 (1920~1945)〉

연 도	학 급 수	신입생			학생수			졸업 후 진로						
		남	녀	계	남	녀	계	상 업 교 육	농 업	상 업	공 업	회 사	노 동	기 타
1920	2	50		50	64		64							
1921	2	50		50	96		96	1/-	7/-					
1922	2	54		54	140		140	3/-	6/-					
1923	3	65		65	193		193	4/-	12/-					
1924	4	41	4	45	190		190	6/-	23/-					
1925	4	58	5	63	198		198	5/-	22/-	1/-				2/-
1926	5	35	17	52	197	29	226	4/-	38/-				1/-	
1927	6	49	12	61	223	34	257	3/-	38/-				2/-	3/-
1928	5	49	8	57	319	38	357	1/-	20/1	6/-			2/-	3/-
1929	6	39	6	45	193	37	230		23/1				1/-	
1930	6	59	5	64	216	36	252	1/-	22/6				1/-	6/-
1931	6	56	6	62	247	35	282	2/-	21/6					2/2
1932	6	60	10	70	267	42	309	2/2	32/2				2/-	3/-
1933	6	60	22	82	264	50	314	1/-	25/5				2/-	1/-
1934	6	60	21	81	282	61	343	1/-	32/5				1/-	
1935	6	68	18	86	299	69	368		36/3				2/-	1/-
1936	6	60	20	80	299	88	387		47/8				1/-	
1937	6	54	21	75	304	98	402	5/-	50/7					4/-
1938	6	53	23	76	314	112	426	9/-	43/11					3/-
1939	6	50	20	70	328	119	447	2/-	39/11					
1940	7	65	47	112	336	152	488	6/3	34/13	2/-		2/-		
1941	8	74	42	116	359	117	476	13/1	42/19					
1942	9	180	64	244	312	191	503	7/1	42/21					
1943	9	50	30	80	380	260	640							
1944	9	44	36	80	436	233	666							
1945	11	50	30	80	523	302	825							

안면초등학교에서는 1924년부터 여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에 들어서는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40년 이후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졸업 후 간간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사례도 확인되지만, 그 비율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한편 개교 이후 1945년까지 안면초등학교의 역대 교장은 한국인 3인 포함 11인이었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9 : 역대 교장 현황 (1920~1945년)>과 같다.

<표9 : 역대 교장 현황(1920~1945년)>

순번	성명	임기	비고
1	梶村武三郎	1920. 4. 3~1922. 3. 31	退職
2	三浦長次郎	1922. 3. 31~1922. 8. 31	退職
3	金顯九	1922. 8. 31~1924. 12. 31	結城普通學校로 전근
4	黃昌顯	1924. 12. 31~1928. 3. 31	調琴普通學校로 전근
5	杉原彌市郎	1928. 6. 11~1937. 3. 31	定山普通學校로 전근
6	荒井融	1937. 3. 31~1939. 3. 31	仙掌小學校로 전근
7	松川初二	1939. 3. 31~1942. 3. 31	新陽國民學校로 전근
8	井上良信	1942. 3. 31~1942. 12. 12	儀堂國民學校로 전근
9	杉原彌市郎	1942. 12. 12~1944. 8. 31	扶蘇國民學校로 전근
10	樗山喜曾次	1944. 8. 31~1945. 6. 12	鷄龍國民學校로 전근
11	西原寅夫	1945. 6. 12~1945. 10. 25	江景南町國民學校로 전근

한편 광영신숙은 서산 읍내의 근대식 교육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908년 서산읍의 한동백이라는 청년이 안면도에 왔다가 광영신숙을 견학한 후 부친을 비롯한 인근 유지를 설득하면서 군수에게 건의하였고, 그 결과 ‘풍전신숙’이 개교하였다고 한다. 또한 광영신숙의 졸업생들이 3·1운동, 그리고 그 후의 항일운동을 주도하였음은 앞에서 살핀 바가 있다.

안면도 출신의 일본유학생도 많았다. 1922년경 유학생으로는 승언리 출신 박정래와 박동래, 그리고 일본 명치대학에 유학한 박준래도 있었다. 고남리 최동설도 서울 중동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했으며, 장곡리 강태현은 1922년 일본에 유학갔다가 1929년에 돌아왔다. 태안군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서산군의 일본유학생이 28명인데, 그 가운데 안면도 출신이 5명이었다.⁷⁹⁾

마. 동호(東湖) 박채근(朴彩根)

1) 가계와 성장 배경

현 태안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한 박채근(朴彩根)은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생으로 관향은 밀양(密陽)이고, 호는 동호(東湖)이다. 방갈리는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에 따라 방축리(防築里)·관갈리(貫葛里)·민어포리(民漁浦里) 등을 합병하여 방축리의 방(防)자와 관갈리의 갈(葛)자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 현재는 방갈 1구와 2구로 나누어져 있다. 박채근의 생가(生家)는 방갈 2구에 해당하는 개시내(開市內) 마을에 있었는데, 개시내는 오늘날 학암포(鶴岩浦) 해수욕장(1968년 개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개시내의 지명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중국과 교역하던 무역항(貿易港)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특히 질그릇을 주로 수출하였다고 해서 분점포(盆店浦)라 했다고 한다. 또한 분점포는 무역항으로서 뿐만 아니라 중선(重船)을 비롯한 많은 어선들의 출입이 잦았던 어항(漁港)으로서도 활기가 넘쳤으며, 장시(場市)가 열려서 질그릇을 파는 점포들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개시내를 우리말로 풀면 시장이 열리는 안쪽이라는 뜻에서 개시내(開市內)라고도 하였다 한다.⁸⁰⁾ 그러나 『임원경제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각종 읍지, 1910년경의 『한국수산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조사자료에서 이와 관련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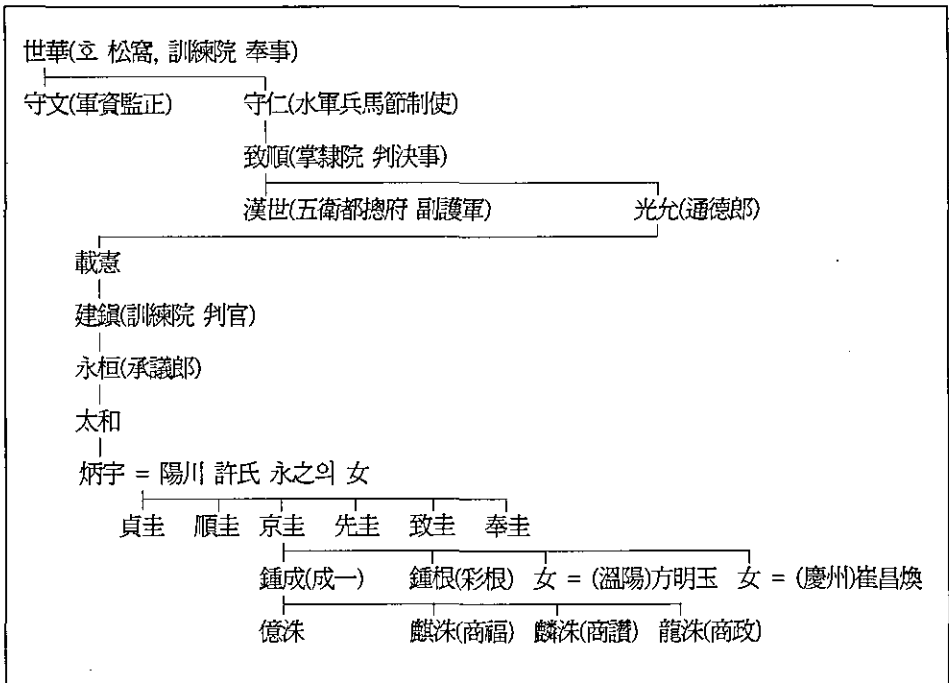
79) 향토문화연구소, 1995,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마을 안면도 승언리』.

80) 『태안군지』(1996).

어포를 출입하는 어선들과의 교역이 부분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짐작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박채근은 밀양 박씨 봉사공파⁸¹⁾이다. 그의 10대조인 장예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를 지낸 치순(致順)이 서산군 이북면(梨北面)에 정착하면서부터 태안에 세거하게 되었다. 방갈리에는 조부인 병우(炳宇)때 이거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 계보는 아래의 <원북면 방갈리 밀양 박씨 박채근의 가계도>와 같다.

<원북면 방갈리 밀양 박씨 박채근의 가계도>



병우(炳宇)는 6형제를 두었는데, 박채근의 부친인 금촌공(琴村公) 선교(先敎)는

81) 밀양박씨 봉사공파의 파시조가 되는 세화(世華, 號 松窩)는 승정(崇禎) 기유(己酉)년에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훈련원(訓練院) 봉사(奉事)를 지냈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승문원(承文院) 판교(判校)에 증직되었다.

그 중 넷째이다.⁸²⁾ 금촌공의 여섯 형제들은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방갈리 일대에 모여 살았으나, 이들의 살림살이는 전반적으로 가난했다고 한다. 토질이 척박하고 관개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한 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적었으며, 그나마 가뭄이 든 해에는 벼농사는 포기하고 논에다 밭곡식을 심어 근근이 생계를 이어야만 했다고 한다.

금촌공은 “천성이 관후 인자하고 극진지효(極盡之孝)로 향당(鄉堂)의 칭찬이 자자하였으며 세유공명(世有公名)하고 가전덕화(家傳德和)이며 친척 화목하고 인보상조하여 세인의 모범이 되는 처세가로 알려졌었다”고 한다. 공은 서령 유씨(瑞寧柳氏)와 혼인하여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성일(成一)은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 때문에 차남인 채근이 형을 대신해서 부모를 봉양하였다. 박채근은 일본계 하역회사인 조선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함흥지점으로 발령이 나자 자신의 근무지로 고향의 부모를 모시게 된다. 그는 함흥을 거쳐 원산, 청진지점 등에 근무했었는데, 현재 금촌공의 묘가 북한 땅인 평강 분수령(分手嶺)에, 어머니 서령 유씨의 묘가 해주 용당포(龍塘浦)에 남아 있게 된 것도 금촌공과 서령 유씨가 그의 근무지를 따라 함께 생활하다 사망했기 때문이다. 모친인 서령 유씨는 향년 65세, 금촌공은 향년 80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박채근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부모 묘소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을 늘 마음 아파하였고, 1970년 방갈리 생가지에 설단(設壇)하였다. 설단을 하면서 발간한 기념시첩(記念詩帖)에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못다 한 효성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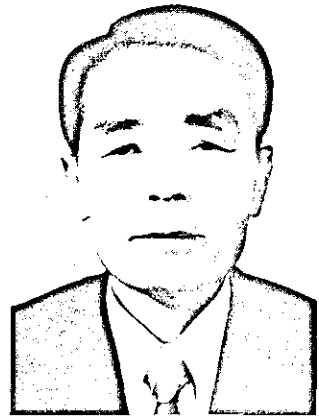
不肖彩根은 三生의 累가 쌓여 萬事に 잘못됨이 많은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故
鄉땅 親戚속에서 父母를 모시고 安樂한 奉養을 해드리지 못하고 生活에 쫓겨

82) 족보에는 字가 先教, 諱는 先耄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이름은 先教였으며, 향렬을 맞추기 위하여 先耄로 수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족보를 편찬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본고에서는 實名을 다르게 됴을 밝혀두는 바이다.

南北으로 漂泊하다보니 兩親은 따라서 客裏辛酸을 겪어야만 하였고 …(중략)…
 8·15 解放으로 南北이 分離되니 時日을 지체하다가는 生存者도 故郷으로 도라
 오지 못할 版局인지라 未死餘身도 天地의 痛恨을 안은채 回郷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父母님 墓前에 慟哭하고 하직할세 天地가 漠漠하여 보이는 것이
 없고 山川도 草木도 모두가 悲痛의 幻像으로만 明滅하여 앞을 가리어 떠러지지
 안는 발자욱을 옮기고 山程 水程에 風餐露宿으로 근근히 得達하여 依舊한 故郷
 山川과 第宅을 바라보며 先塋下에 省墓하려하니 父母님 모시고 같이 오지 못한
 서름만 속구쳐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이하 생략)”

2) 생애와 업적

박채근(朴彩根, 1913~1975)은 성공한 실업가이자 사회사업가로 명망이 높았다.
 그의 생애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24세 무렵 직장을 찾아 고향인 방갈리를 떠나
 기 전까지의 시기, 다음으로 인천으로 가서 조
 선운수주식회사[朝鮮運輸株式會社, 속칭 ‘마루
 보시’]⁸³⁾의 사원이 되면서 인천-원산-청진-함
 흥에 근무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다시 고향 방
 갈리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기, 그리고 다시 인천
 으로 옮겨 수산업·운수업·유류업 등을 통해
 사업가로 성공하기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동호 박채근

박채근은 19세에 인근 동리의 경주 최씨와
 혼인하였고, 만아들 상복이 3살이 되던 24세가
 지 고향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였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83) 조선운수주식회사는 1962년 한국미곡창고에 피흡수 합병되었고, 한국미곡창고는 뒤에 대한봉운으로 社名을 바꾸었다.

정규교육은 받지 못하였다. 교통이 불편하여 왕복 120리가 넘는 태안읍내 태안공립보통학교(태안읍 소재)까지 걸어야만 하였고, 그렇다고 하여 태안읍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택한 길은 3년 동안 저녁마다 친구 세 명과 함께 20리 떨어진 이곡리(梨谷里)의 서당을 다녔고, 그곳에서 천자문·동문선습·소학을 배우고, 대학까지 읽었다고 한다. 그런 연후에 개시내 자신의 집에 야학(夜學)을 열었고, 인천으로 떠나기 전까지 동네 아이들에게 언문과 한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는 고향에서 부모와 처자를 부양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1936년 24세의 나이로 일거리를 찾아 인천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당시 인천은 개항장으로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당시 방갈리에 이웃한 만대 포구에서는 인천을 왕래하는 기선이 기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기술이나 학력이 없었던 관계로, 인천으로 이주한 초창기에는 무척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으니, 셋방살이를 하면서 인천항의 부두노동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힘겨운 부두노동을 하는 와중에도 밤에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야간학원에 다녔다. 고향에서 서당을 다녔던 관계로 한문에 능통했던 그는 남들보다 빨리 일본어를 익힐 수 있었고, 2년 정도 학원을 다닌 뒤에는 일본어로 된 책을 막힘 없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박채근은 항만하역회사였던 조선운수에서 3년에 한번 조선인을 대상으로 임시사원을 뽑는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결국 이 일이 향후 사업가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당시 조선운수는 전국 주요 항만과 철도역의 운송과 하역을 전담하던 회사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거대 국영기업이었다. 박채근은 조선운수 인천지점의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근무성적이 좋아 3년 후에는 정식사원으로 승진하면서 황해도 해주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이후 그는 해방 후 월남할 때까지 함흥·청진·원산지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청진과 원산지점에 근무할 당시에는 해륙운수사(海陸運輸社)라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기도 했다. 해륙운수사는 조선운수의 하역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하청회사였다. 그는 가능한 한 고향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일제의 강제징용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전시 하에서 일제는 향만하역노동자들을 강제징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조선 운수의 정식사원이 되면서 생활에 다소 안정을 찾았고, 고향과 멀리 떨어진 함흥으로 전근하게 되면서 고향의 부모님을 함께 모시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의 향학열은 식지 않았고, 함흥에서 그는 함남중학교(咸南中學校) 야간반을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박채근은 그 동안의 사업기반과 재산을 버리고 어렵게 태안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월남한 직후에는 남의 배를 빌려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사서 강경이나 군산 등지에 팔고, 그 대금으로 젓갈을 매입하여 다시 태안 인근에 파는 증개상을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약간의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그는 다시 인천으로 옮겨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연평도에서는 조기잡이가 성행했는데, 대부분의 어선이 냉동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위 ‘풍선’이었던 까닭에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여야만 했다. 박채근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동력선을 구했고, 얼음 등의 자재를 실어서 조기잡이 어선과 물물교환을 하였고, 다시 조기 등을 어업조합에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박채근은 이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벌어들였다.

박채근은 수산물 증개를 통하여 마련된 자본금으로, 후일 대한항공을 설립한 조중훈과 동업으로 대동운수를 설립하였다. 후일 조중훈은 한진운수를 설립하여 독립하였고, 박채근은 혼자 대동운수를 경영하다가, 1964년 대양석유상사(大陽石油商社)로 업종을 전환하여 유류사업에 뛰어들었다. 인천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 그는 미군이 사용하던 유조바지선을 구입하였고, 그의 예측이 맞으면서 사세가 확장되었고, 대양석유상사는 3년 후 회사를 법인화하면서 동양석유주식회사(東洋石油株式會社)로 사명(社名)을 바꾸었다. 현재 동양석유주식회사는 12척의 유조선을 소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인천항·군산항·평택항 등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3) 태안여상의 설립과 변천

박채근은 타향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해가며 사업가로서 성공하였으나, 또한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사업에도 열심이였다. 특히 공식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까닭에 교육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유달리 교육과 관련한 일화도 많았다. 인천고시학원(仁川考試學院)의 학생들이 야간학습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자기 집 마루와 2층 거실을 1년 동안 무상으로 내어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고향의 여러 학교에 시설비를 보조하고, 각종 교구(校具) 등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일은 예사였으며, 태안군 원북면의 원이중학교 부지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학교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하여야만 건립비용을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 부지를 매입해 주었던 것이다. 현재 원이중학교에는 박채근을 칭송하는 송덕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송덕비 전문

흠어진 능력을 모아 덕성을 알게 하고
 육영사업을 위해 큰 재산을 아끼하지 않고
 마음 받을 계발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모두 수리 모아 함께 칭찬하여
 돌비석을 높이 세우노라

1973년 7월

원이중학교 설립기성회

그의 교육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1973년 태안읍 남문리에 동양학원을 설립하여 태안여상을 개교하는 것으로 꽃 피우게 된다. 현 태안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태안군 최초의 고등실업교육기관이자 여성교육기관이다. 박채근은 생전에 여자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음을 안타까워하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여성교육이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

는 학교설립 당시 취장암으로 투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업이라는 사명의식으로 태안여상의 설립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고 한다. 건립장소, 설계에 서부터 기초공사까지, 그리고 책·결상과 기자재는 물론 조경식수까지 심혈을 기울이면서 노심초사했다고 한다.⁸⁴⁾ 그러나 박채근은 태안여상이 개교하고 미처 1년이 지나지도 않은 1974년 12월 11일 57세의 나이로 타계하였고, 1975년 1월 9일 제2대 이사장으로 박채근의 장남 박상복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장례는 학교장으로 치러졌으며, 묘소는 학교 뒷산이다. 태안 주민들은 그의 생전인 1974년 4월 27일 교내에 송덕비를 세웠고, 사후인 1974년 12월 15일에는 묘소에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추모비 전문

박채근 선생 가시다. 1974년 12월 11일 새벽
생전에 가꾸어 온 동백꽃 피기 전에
동호 선생 영원히 가시었네.
대망의 뜻을 풀고 한양 길에 오르시어
인내 투지 결정되어
사회사업 이루기에 젊음을 바치시고
이 교장의 선봉이 되시었네.
명복을 비오나니 고이 잠드소서
1974년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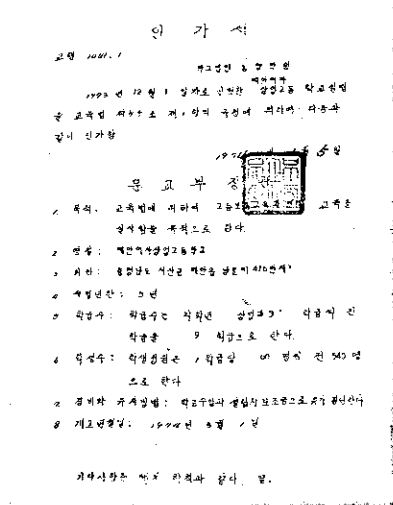
송덕비 전문

그려도 못 다 그린 고향땅 높은 터에
생애를 기울이어 배울 자리 지으시니
높으나 높은 그 뜻을 길이 담아 전하리.
1974년 4월 27일

84) 『태안여고 三十年史』(2004).

이러한 과정에서 설립된 태안여상은 1973년 학교법인 동양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74년 3월 2일 개교하였다. 인천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태안에 학교를 세우려는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여건이 낙후한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고, 남학생을 위한 태안고등학교의 짝을 이루어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또한 산업화가 진행 중이던 1970년대의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실무능력을 갖춘 여성을 양성할 수 있는 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 아래 1972년 태안읍 남문리에 부지 4만여 평을 구입하였고, 1973년 7월 1일 본관 교사를 착공하였으며, 1974년 1월 5일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9학급, 540명)로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974년 3월 2일 3개 반 181명의 입학생을 받아들였다. 초대 이사장은 박채근, 초대 교장은 최승열이었다.

개교 당시 태안여상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시설과 교구재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동호체육관(1975년, 186평), 기숙사(매인사, 1977년 260평, 2000년 64명 수용 시설), 도서관(1977년), 음악관(1978년), 별관(1977년 2층 370평, 1981년 3층 3개 교실), 신관(1984년, 5층 20개 교실, 614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설립인가서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제1회 입학식

평), 다목적 강당(로즈홀, 2001년) 등을 건립함으로써 시설을 확충하였고, 초기부터 버스를 도입하여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을 도왔다. 개교 이후 태안여상은 양적·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1974년에 15학급 900명으로, 1975년에 21학급 1,260명, 1979년에 27학급 1,620명으로 학칙변경인가를 받았다. 1983년에는 상업과 18학급, 회계과 6학급, 정보처리과 3학급으로, 1984년에는 상업과 15학급, 회계과 6학급, 정보처리과 6학급으로, 1986년에는 상업과 18학급, 회계과 6학급, 정보처리과 6학급으로 분과하였고, 1997년에 한 학년에 보통과 2학급, 상업과 3학급, 정보처리과 5학급으로 편성하였고, 1998년에는 태안여자고등학교로 학칙변경인가를 받고 교명을 바꾸었다. 1977년 179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태안여상 시절 총 23회에 걸쳐 10,8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을 포함하여, 2004년 현재까지 총 28회에 걸쳐 12,6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84년에 개교 10주년을 맞아 『건학 10년사』를, 2003년에는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태안여고 30년사』를 발간하였다. 2005년 현재 태안여고에는 각 학년마다 보통과 2학급, 유통경영과(3학년은 사무자동화과) 3학급, 정보처리과 3학급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 30학급에 827명이 재학 중이다.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63명의 교사와 일반직 직원 10명이 재직하고 있다.

IV. 나가는 글

19세기 후반기는 격변기였다.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리학적 전통은 그 명맥을 다하여 갔고, 서구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교육체계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전통 학문을 고수하려는 흐름과 더불어, 새로운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는 태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으로는 조선 말 성리학계를 대표하는 전우라는 거유(巨儒)가 5년 동안 머물면서 후학들을 양성하였고, 또한 태안의 선비 조희천이 향약을 시행하고 향교에서 강의를 행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염전 경영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상인 출신의 이희

열이 화양의숙이라는 태안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승지를 역임한 충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홍주 갈피 출신의 안동 김씨 김병년이 안면도에 들어와서 서구 학문을 교육하는 광영신숙을 세웠다. 한편 훨씬 후대의 일이지는 하나, 원북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출생하여 인천에서 사업가로 입신양명한 박채근은 1974년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들의 출신과 행적을 살펴보아도 격변기다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전국적인 명망을 누렸던 간재 전우와 소정 김병년이 태안에서 후학을 양성하였으나, 간재 선생이 전통 성리학에 매진하였던 데에 반하여, 소정 선생은 서구식 근대 교육에 그 뜻을 두었다. 그리고 태안 사족 출신의 난사 선생은 간재와 표면적으로 유사한 길을 걸은 듯하나, 이희열이 설립한 화양의숙에 깊이 간여하고 있어서, 또한 전통 교육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 상인 가계 출신으로 짐작되는 이희열이 상업을 통하여 축적한 부를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에 투자한 사실은 새로운 계층의 부상으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실제로 이희열과 그 후손들은 교육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태안 지역사를 주도하는 가계로 성장하였다. 가난한 농민 출신의 박채근은 해방 후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사업가였다. 외지에서 부를 축적한 그가 고향의 교육을 위하여 투자한 일은, 해방 후 한국교육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 외에도 태안 교육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면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남간이학교와 그 후신인 고남소학교를 개교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최문식, 그리고 중장간이학교와 안중국민학교 신설에 공로가 큰 오병호와 박문백, 황도간이학교 설립에 공이 큰 강명준, 창기분교장 신설에 공이 큰 채시묵, 사립 안면중학원을 단독 창설하여 원장으로 재임한 박동래, 이를 고등공민학교로 승격시킨 박정래와 다시 안면중학교로 승격시키면서 기성회장을 역임한 채상근, 안남삼육고등공민학교의 설립과 안남중학교의 개교에 공이 큰 이원우와 최용환, 그리고 안곡국민학교의 윤주방, 누동국민학교의 이운장, 장동국민학교의 정동욱, 신야국민학교의 박성태, 방포국민학교의 채상근, 영항국민학교의 전효림, 안상국민학교의 정동근, 안면고등학교의 성태

영, 창기중학교의 채규승 등은 모두 안면도 교육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들이다.

본고는 그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하여 그 구체적인 행적을 추적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또한 자료의 부족과 연구진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그마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자료의 발굴을 통하여, 그리고 정우영 원장을 비롯한 태안문화원 관계자의 도움, 그리고 본고에서 다룬 인물들과 관련된 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기초조사는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 작업은 종착점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초석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면 연구자들의 질정과 더불어, 향후의 발전적인 조사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 도움을 주신 분들

- 박병태(남, 85세, 전 안면초등학교 교장)
- 박상복(남, 72세, 현 태안여자고등학교 이사장)
- 박상호(남, 74세,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 이견상(남, 71세,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 이병두(남, 54세, 현 태안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 조세현(남, 72세,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
- 조한식(남, 65세,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

그리고 귀중한 학교의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태안초등학교 조원선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안면초등학교 최영규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태안여자고등학교의 김동환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일성록」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평양조씨 대동보』
 『진주이씨가보(晉州李氏家譜)』 (1937)
 『조선유현연원도(朝鮮儒賢淵源圖)』 (尹榮善)
 『동국유현연원록(東國儒賢淵源錄)』 (尹泰順)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教淵源)』 (장지연)
 『원려당유사(遠慮堂遺事)』 (李基奭, 1928)
 『난사유고(蘭史遺稿)』
 『서산군지』 (李敏寧, 1926, 한국인문과학원 영인본)
 『忠淸南道發展史』 (湖南日報社, 1932)
 『학교연혁지』 (태안초등학교 소장)
 『학교연혁지』 (안면초등학교 소장)
 『태안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10422)
 『태안군지』(1996)
 『개교 팔십년사』 (태안국민학교, 1991)
 『금촌선생 설단 기념시첩(琴村先生設壇記念詩帖)』 (박상복, 1970)
 『태안여고 30년사』 (태안여자고등학교, 2004)
 『건학 10년사』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 1984)
 『2005학년도 학교현황』 (태안초등학교)
 『공주 영명학교의 창설』 (중도일보 1988년 12월 14일자)
 『개신교의 전도와 교육』 (중도일보 1989년 1월 18일자)
 김영한, 2005, 『충청도 세거 안동 김씨의 가계와 인물』 (『일동장유가의 퇴석 김인검』,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한어문교육학회).
 김충호(역), 2000, 『국역 간재선생 행장』, 민족문화추진회.
 손인수, 1998, 『신교육의 발단과 근대학교의 성립』, 『연세의학사』, vol. 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이시용, 2002, 『개화기 경기교육에 관한 고찰』, 『기전문화연구』 vol. 29-30, 인

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 최완기, 『한국성리학의 맥』, 느티나무.
- 충청남도교육위원회, 1982, 『충남교육사』.
- 향토문화연구소, 1995, 『태안 해안국립고원의 마을 안면도 승언리』.

태안지역의 도교유적(道敎遺跡)

정우영 _ 태안문화원장

• < 목 차 > •

- I. 머 리 말
 - II. 태안(泰安)의 유래(由來)
 - III. 우리나라에서의 도교 유입
 - IV. 소격서(昭格署)와 태일전(太一殿)
 - V. 태일전에서의 기도 내용
 - VI. 소격서(昭格署)와 태일전(太一殿)의 효과
 - VII. 태일전의 효과 후 도교의 유적
 - VIII. 결 론(結論)
- ◆ 참고문헌

태안지역의 도교유적(道敎遺跡)

I. 머 리 말

도교(道敎)란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로서 신선사상(神仙思想)의 근본인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또는 복서(卜筮)와 무축(巫祝) 그리고 참위(讖緯) 등을 더하고 거기에 도가철학(道家哲學)을 가입하고 여기에 다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종교를 말한다.¹⁾

이를 다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설명하여 본다면 중국(中國)의 후한(後漢)말기에 장릉(張陵)의 오두미교(五斗米敎)가 도교의 원류(源流)이며 그의 자손은 용호산(龍虎山)에서 정일교(正一敎)를 개교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진(晉)나라의 갈홍(葛洪)은 포박자(抱朴子)를 지어 일파(一派)를 만들고 양(梁)나라의 도홍경(陶弘景)은 모산파(茅山派)를 형성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위(北魏)의 구겸지(寇謙之)에 이르러 이러한 오두미교는 도교(道敎)로 확립되어 국가적 종교로 발전하면서 불교(佛敎)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시초는 고구려 영류왕 7년인 624년에 당(唐)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청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로 인

1) 음양(陰陽)은 우주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기운(氣運) 즉 음(陰)과 양(陽) 오행(五行)은 우주(宇宙)간의 다섯 가지 원리 즉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 복서(卜筮)는 길흉(吉凶)을 점치는 것. 무축(巫祝)은 무당(巫堂)을 통하여 기도(祈禱)하는 것. 참위(讖緯)는 미래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의 조짐이나 예언. 도가철학(道家哲學)은 중국에서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사상 일파의 설(設)을 따르는 학자들의 학문.

하여 도사(道師)로 하여금 천존상(天尊像)과 도법(道法)을 가지고 와서 노자(老子)를 강론(講論)하게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는 불노(佛老)의 교법을 배워 왔으며 보장왕 2년인 643년에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청으로 도사 속손(叔孫)등 8인과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을 보내오는 등 고구려에서도 불교 이외로 도교(道教)도 열심히 숭상(崇尚)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신라에서는 당나라와 문물교류가 성행하였으므로 도교가 상당히 유행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여 소개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려에서는 예종 때에 송(宋)나라 휘종(徽宗)이 도사를 보내어 도법을 전하니 개성(開城)의 북쪽에 복원관(福源觀)을 세워 삼청상(三清象)을 모시고 도관, 도사(道觀, 道士)를 두었으나 국가나 임금의 기축(祈祝)에 그쳤을 뿐 일반민중의 종교적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다만 성신(星辰)에 대한 신앙, 또는 부적(符籍)의 사용, 경신(庚申)을 지키는 것 등에 불과하였을 뿐이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고려의 뒤를 이어 도교의 재초(齋醮)를 행하기는 하였지만 도관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경복궁(景福宮)의 북쪽에 소격서(昭格署)를 두어 태일전(太一殿), 삼청전(三清殿) 등을 세워 놓고 때때로 치재(致齋)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소격서의 삼청전에서는 옥황상제(玉皇上帝), 태상노군(太上老君), 보화천존(寶華天尊)등 남자상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태일전에서는 칠성제수(七星諸宿) 등 여자상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국사대사전 상에 나타나는 기록들이다.²⁾

이러한 도교는 우리의 고유한 신앙(信仰)과 습속(習俗)에 조절되어야 했고 먼저 전래된 유교(儒教) 및 불교(佛敎)와의 조정이 불가피했으므로 여러모로 변모(變貌)되지 않을 수 없었다.³⁾

2) 국사대사전(國事大辭典), p696.

3) 한국도교사상연구(車柱瓚 著), p12, 1978년 12월 20일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행

그러면서도 도교(道敎)는 우리나라에서 유교(儒敎) 및 불교(佛敎)와 함께 유불선 삼교로 인정을 받아왔던 중요한 종교였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살펴보더라도,

상문도가지언(嘗聞道家之言)知足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금소득다의(今所得多矣) 하필구다(何必求多)

일찍이 도가(道家)의 말을 들으니 족(足)할 줄 알면 욕(辱)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얻은 바가 많으니 어찌 구할 것이 더 있겠습니까?⁴⁾

위의 글은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의 아들인 근구수왕(近仇首王)이 태자로 있을 때 고구려군이 침입하여 와서 태자가 이를 진격하여 크게 이기고 도망치는 적(敵)을 쫓아 수곡성(水谷城 : 황해도 신계군협계의 지명) 서북에까지 왔을 때 장군(將軍) 막고해(莫古解)가 태자에게 진격을 그만 하도록 타이른 말이다.

여하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도가(道家)의 말을 많이 응용(應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도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뿐만 아니라 도교의 유적(遺跡) 또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안읍의 백화산(白華山)에는 태을암(太乙庵)이라는 암자(庵子)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애삼존불상(磨崖三尊佛像) 부근의 바위에는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암각문(巖刻文)이 새겨져 있음을 볼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태안의 백화산에는 도교의 유적이 남아 있는 특이한 지역이기도 하다.

어느날 도교를 연구하는 스님 한 분이 필자를 찾아와 말하기를 “전국 각지를

4) 삼국사기 24(백제본기 2) 하권, p29, 1983년 2월 15일 을유문화사 발행.

찾아 다니며 도교의 유적을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하였는데 태안의 백화산에는 태을암이나 태을동천과 같은 도교의 유적들이 남아 있으니 태안에서 혹시 도교에 관한 문헌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러한 질문에 필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태안(泰安)에서 도교에 관한 문헌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그때부터 도교에 관하여 연구해 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실력이 부족하고 미천한 관계로 한계에 부딪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유일하게 백화산이나 태안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도교의 유적을 도외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태일전의 재초(齋醮)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 제사(祭祀)로 이어졌던 경이정(淸夷亭)에서의 재우제(宰牛祭)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제(中央大祭) 또는 백화산 정상에 있었던 소도(蘇塗 :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소) 터와 태일전(太一殿) 터 등은 태안(泰安)에서만 볼 수 있는 도교의 유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란에서는 태안지역에 남아있는 도교유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면서 이 글을 쓰기 전에 필자가 집필하였던 “중앙대제(中央大祭)의 근원”을 비롯하여 “태을전(太乙庵)에 대한 기고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잘못 기록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참고문헌을 제공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특히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는 등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신 충남역사문화원의 오석민 박사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린다.

II. 태안(泰安)의 유래(由來)

태안의 시작은 소도(蘇塗)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 같다.

물론 소도(蘇塗) 이전의 아득한 옛날에도 신·구(新·舊)석기 시대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등 확인할 수 없는 선사시대(先史時代)가 태안이라고 하여 없었을리는 만무하지만 유사이후(有史以後)의 세대만을 가지고 살펴 본다면 태안에서는 자연적으로 마한(馬韓)의 신소도국(臣蘇塗國)이라는 군장국가에 있었던 소도(蘇塗)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기 때문이다.

삼한시대(三韓時代)에 태안의 백화산(白華山)정상에는 소도라는 제사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5월의 수릿날과 10월의 상달에 제주(祭主)인 천군(天君)을 선발하고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소도는 매우 신성한 곳으로서 죄인이라도 이곳으로 도망하여 들어오면 처벌하지 않았다고 하니 서양의 아실리(asilie) 또는 아실림(asylum)과 같은 것이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소도의 명칭은 제단(祭壇)앞에 세우는 큰 나무인 솟대(立木)의 음역이 변경되어 솟대, 솟대, 하다가 소도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삼한시대에 소도(蘇塗)가 있어서 신소도국(臣蘇塗國)이라는 군장국가가 있었던 태안은 백제시대에 성대혜현(省大兮縣)이라 부르다가 통일신라의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소태(蘇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기에 이르는데 소태(蘇泰)라는 이름은 소도(蘇塗)에서 음역이 변경된 이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태현(蘇泰縣) 시절에 소태 이외로 음역이 약간씩 변경된 소주(蘇州) 또는 소성(蘇城) 등으로도 불려지면서 고려조의 충열왕 때까지 이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 고려조의 충열왕 24년인 1298년에 태안군 출신의李大順(李大順) 선생이 소태(蘇泰)에서 태안(泰安)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고치게 되므로서 소태는 태안으로 변경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태안(泰安)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첫 자인 태(泰)자가 소태(蘇泰)에서의 태(泰)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아울러 당시의 이 지역에는 세곡선들이 난행량(難行梁)앞 관장항에서 계속하여 파선하기에 이르자 지령산에 안파사(安波寺)라는 절을 짓고 항해의 안전운항을

5) 국사대사전, p697.

빌었음은 물론 난행량(難行梁)이라는 지명에서 안흥량(安興梁)이라는 지명으로 고쳤음과 아울러 마을 이름을 파도리(波濤里)라 부르기에 이르렀으니 당시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할 만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명들은 안흥(安興), 안면(安眠), 안파사(安波寺) 등 첫머리에 안(安)자가 많이 들어가는 등 다른 것보다는 세곡선의 안전항해가 제일의 숙원이었다. 그렇다면 지명의 끝자에 안(安)자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리하여 소태(蘇泰)에서 태(泰)자를 따고 안흥(安興), 안면(安眠) 등에서 안(安)자를 따서 태안(泰安)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일부 학자는 국태민안(國泰民安)에서 한 자씩을 따서 태안(泰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빙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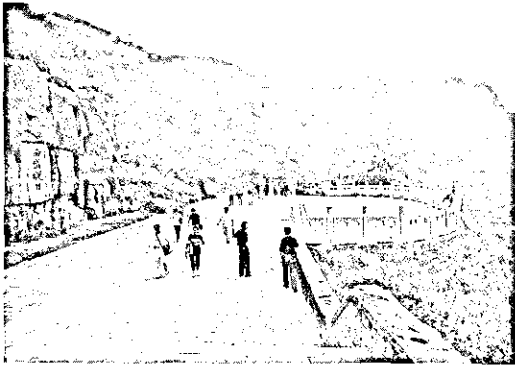
물론 국태민안(國泰民安)에서 한 자씩을 따서 우리 태안(泰安)의 지명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모두가 공인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러나 당시의 태안은 세곡선들이 계속하여 파선을 당하고 있었으며 왜구(倭寇)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결코 편안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사항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국태민안(國泰民安)에서 한 자씩을 따서 태안이 되었다는 사항을 다른 지역의 인사들은 수긍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태안(泰安)이라는 이름은 소태(蘇泰)에서 태(泰)자를 따고 안흥 안면 등에서 안(安)자를 따서 태안(泰安)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태안의 전신은 소태(蘇泰)였으며 소태에서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소도(蘇塗)라는 제사터의 명칭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솟대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태안(泰安)이라는 지명이 있음은 물론 태안의 옛 지명인 소주(蘇州)라는 도시도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중국 태산

태안은 산둥반도의 중심도시로서 태산(泰山)밑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이다.

태산에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오악독존(五嶽獨尊)이라는 암각문(巖刻文)이 새겨져 있음을 볼 수도 있는데 오악(五嶽)이란 중국 고대 신앙에 나오는 5대 명산(名山)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산악신앙이 있어서 전국시대(戰國時代) 이후 오행사상(五行思想)의 하나로 오악의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⁶⁾

태산(泰山)의 정상에 새겨진 오악독존이란,

孔子聖中之泰山(공자성중지태산) 泰山巔中之孔子(태산악중지공자)

공자는 성인중의 태산이고 태산은 산악중의 공자다

라는 뜻으로 태산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태산은 공자의 고향에 있는 명산으로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태산제(泰山祭)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등 유명한 명산이다.

우리나라 태안의 백화산과 제향 등 신을 숭배한 내용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한 명산이고 반도의 중심도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나라의 태안과 비슷함은 물론 도교의 유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태안과 비슷하여 공통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로 보아 우리나라의 태안과 연관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6) 세계백화대사전, p1252, 1994년 민중서관(民衆書閣) 발행.

소주(蘇州) 또한 상해(上海)의 남쪽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한없이 넓은 평야지역에 둘러싸여 가도 가도 지평선만 보이고 산이 보이지 않는 평야도시이다.

그러나 소주(蘇州)의 지명은 옛날부터 어미지향(魚米之鄉)이라고 하여 고기와 식량이 풍부한 살기좋은 곳이라는 뜻으로서 어미(魚米)를 합한 것이 소(蘇 : 차조기소) 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소주(蘇州)라는 지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중국의 태안(泰安)이나 소주(蘇州)는 우리나라 태안(泰安)과는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각설하고 태안의 백화산(白華山)에는 옛날에 신(神)을 숭배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도(蘇塗)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백제시대인 6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마애삼존불상(磨崖三尊佛像)이 이곳의 백화산에 조각되게 된다.

마애삼존불상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곳에 조각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동국대학교의 장충식 박사는,

백화(白華)는 백화(白花)와 동일하며 신라 의상의 저서인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은 의상이 당에서 돌아와 낙산의 해변 관음굴에서 재계예배(齋戒禮拜)할 때의 발원문(發願文)으로 전해지는 등 백화란 곧 관음의 상징이다.

五嶽이란 東嶽에 泰山(山東省所在) 中嶽에 崇山(河南省所在) 南嶽에 衡山(湖南省所在) 西嶽에 華山(山西省所在) 北嶽에 恒山(河北省所在)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의 백화산이란 승경의 해안고절처(海岸孤絕處)인 관음도량의 상징이므로⁷⁾ 중앙의 보살은 종래의 견해대로 관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백화산에는 조선조 성종 10년인 1479년에 경상도 의성현(義城縣)으로부터 태일전(太一殿)이 옮겨 오게 된다.⁸⁾

그렇다면 태안의 백화산(白華山)은 아득한 옛날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도

7) 소성의 향기 9집, p27, 2003년 12월 20일 태안문화원 발행.

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태안군조 사묘편.

(蘇塗)가 있었고 백제시대인 6세기 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애불상인 태안마애삼존불상이 조각되었음과 아울러 15세기인 조선조 성종 때는 태일전이 옮겨 오게 되는 등 옛날부터 매우 신성한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도교 유입

옛날 중국의 후한 말(後漢末)에 장릉(張陵 : ?~178)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장릉은 사천(四川)의 학명산(鶴鳴山)에서 허다한 신(神)이 강림(降臨)해서 신출정일맹위법(新出正一盟威法)을 자기에게 전수했다면서 이 법(法)으로 질병(疾病)을 고쳐 주어 많은 신도들을 얻었고 신도들로부터 쌀과 비단을 바치게 하였다.

그 뒤 그의 손자되는 장로(張魯)가 그 뒤를 이어 오두미도(五斗米道)의 교법을 완성시켰는데 오두미(五斗米)란 오행(五行)을 뜻하는 말로서 다섯 말의 쌀이란 뜻인데 도(道)를 닦고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오두미(五斗米)를 내게 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오두미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장로(張魯)는 그의 조부 장릉(張陵)을 천사(天師)라 칭하면서 오두미도(五斗米道)를 일명 '천사도(天師道)' 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장로(張魯)가 죽고 난 후 이러한 천사도(天師道) 역시 일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중국의 진(晉)나라에 갈홍(葛弘 : 283~343)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갈홍의 자(字)는 지천(祗川)이고 호(號)는 포박자(抱朴子)로서 그는 도교의 연금술사였다.

어린 시절에 유교(儒敎)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성년이 되면서 도교의 신선도(神仙道)에 큰 관심을 갖게 되므로서 35세 때에 자신의 호이기도 하지만 노자(老子)의 견소포박(見素抱樸)에서 글자를 따 포박자(抱朴子)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포박자(抱朴子)는 진(晉)의 건무원년(建武元年)인 317년에 내편 20권, 외편 50권 등 모두 70권으로 구성된 책이었는데 선도실현을 목적으로 호흡법이나 방중술, 등의 건강법을 비롯하여 종래의 사상, 종교로서의 도교에 대한 해석, 약물학, 화

학, 의학등 과학적 방법을 도입시킨 책이다.

이와 같이 천사도 이외로 갈홍은 포박자를 지어 도교의 일파가 여기에서도 형성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양(梁)나라에 도홍경(陶弘景 : 451~536)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자(字)는 통명(通明)이고 호(號)는 은거(隱居)로서 시인이었음과 아울러 의사(醫師)였다.

일찍이 궁중에 들어가 황제의 자녀들을 가르쳤고 492년 남경(南京)의 북동쪽에 있는 구곡산(九曲山)에 들어가 칩거하면서 도교의 연구와 실천에 힘썼다.

그는 도교의 원류인 노장철학(老莊哲學)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도교의 일상수양 방법을 재형성하려고 하는 한편 도교서적을 편집하고 주석을 붙이는 작업도 하였다. 또한 적절한 식사법과 생활방식을 연구하여 의학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진고(眞誥), 등진은결(登眞隱訣),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도홍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교의 일파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도교는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므로서 국가적 종교로 발전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남북조 시대에 북위(北魏)의 도가사상가인 구겸지(寇謙之 : 365~48)가 나타나 태무제(太武帝)의 신임을 얻어 유불(儒佛)의 의례와 신선사상을 받아 들이고는 자기가 태상노군(太上老君)으로부터 운중음송신과지계(雲中音誦新科之誡)를 받았으면서 장로(張魯)의 천사도(天師道)를 개혁 자기가 천사가 되어 도교로 확립시키므로서 국가적인 종교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⁹⁾

이러한 때에 산악신앙(山岳信仰) 및 천신(天神 : 하늘신)을 숭배하던 우리나라에서는 도교의 영입이 절실하였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장자(莊子)의 남화경(南華經)과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은 삼국시대나 고려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유교사상(儒敎思想)으로 통제되었던 조선시대에도 지식인들 사이에 많이 애독되고 있었으니 우리나라에서의 도교신앙은 고유신앙과 일치하므로서 주민 속으로 빨리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도교에서는 심신(心身)의 평안과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얻는 것을

9) 한국도교사상연구(치주환 저), p26, 1978년 12월 20일 한국문화연구소 발행.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대한 치유의 방법으로 부록(符籙), 부수(符水), 주축(呪祝) 등의 방법이 쓰여지게 되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생법(養生法)과 의술(醫術)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도교의 의술과 복양법은 대단히 발달해서 동양의학사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과¹⁰⁾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었다

실례를 들어 조선조 명종 때의 유명한 학자였던 북창(北窓) 정염(鄭謙) 선생의 용호비결(龍虎秘訣)상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風邪之患(풍사지환) 伏藏血脈之中(복장혈맥지중) 而冥行暗走(이명행암주) 不知爲殺身之斧斤矣(불지위살신지부 근의) 傳經深入膏肓(전경심입고맹) 然後尋醫服藥(연후심의를복약) 亦已晚矣(역기만의) 正氣風邪(정기풍사) 如冰炭之不相容(여빙탄지불상용) 正氣留(정기유) 則風邪自走(칙풍사자주) 百脈自然流通(백맥자연유통) 三宮自然升降(삼궁자연승강) 疾病何由而作乎(질병하유이작호) 稍加精勤(초가정근) 則必至於延命却期(칙필지어연명각기)

풍사의 질환은 혈맥속에 숨어있어 가지고 캄캄한 어둠속에서 돌아다니므로 그것이 몸을 죽이는 도끼임을 알지 못한다. 오래되어 경絡(經絡)에 옮겨가고 고맹속에 깊이 들어간 연 후에 의사를 찾아가 약을 쓴다 해도 이미 늦는다. 정기(正氣)와 풍사(風邪)는 빙탄같이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정기가 머물러 있으면 풍사는 절로 달아나고 백맥이 절로 유통하고 삼궁이 절로 승강하는데 질병이 어디로 해서 생겨나겠는가. 조금만 정근하면 반드시 수명을 연장시켜 죽는 날을 뒤로 물리치게 될 것이다.¹¹⁾

위의 글을 살펴 본다면 질병은 미리부터 범접하지 못하게 운동도 하고 영양을

10)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저), p240.

11) 정염(鄭謙)의 북창비결(北窓秘訣) 제1장, 수단지도(修丹之道) 편.

보충하여 정기를 살려야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강은 자기가지켜야 한다는 말로서 오늘날의 건강법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항이 확인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창(北窓) 정염(鄭堧) 선생은 음율(音律)과 현금(玄琴)에 밝아 장악원주부로 가곡의장단을 지도하는 한편 천문 예술에도 조예가 깊어 관상감(觀象監)과 혜민서교수(惠民署敎授)를 겸했다.

6살에 중국어를 비롯하여 베트남어 등에 통달하여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인이나 베트남인들로부터 조선에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느냐고 감탄을 받았다고 한다. 좌의정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을 하라는 꾸중을 여러 번 들었지만 끝내 과거도 보지 않고 벼슬도 하지 않은 채 책만 쓰고 남들의 질병만 고쳐주었지만 도교(道敎), 불교(佛敎) 등에 능통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허준(許浚) 선생이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쓰는데 선생의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과 아울러 선생의 동생인 정작(鄭碻) 선생이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도교는 종교의식인 제사(祭祀) 이외로도 의약이나 부적 등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아 불교가 국교였던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불교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음은 물론 유교를 국교로 내세움으로 불교를 억제했던 조선조 시대에도 도교의 재초(齋醮)는 계속되므로서 오히려 유교, 불교보다도 더 많은 호평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니 유교, 불교와 함께 도교를 유불선 삼교라 칭하였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도교에서의 제사의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전각이 소격서(昭格署)였으며 소격서 안에는 태일전과 삼청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어 이후부터는 소격서(昭格署)와 태일전(太一殿)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소격서(昭格署)와 태일전(太一殿)

소격서(昭格署)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도교의 재초(齋醮)를 지내던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복원궁(福源宮)이 있었는데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살펴보면 복원관(福源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福源觀在王府之北(복원관재왕부지북) 太和門內(태화문내) 建於政和間(건어정화간)

복원관은 왕부의 북쪽 태화문 안에 있다. 정화년간(政和年間 : 정화(政和)는 중국 송(宋)나라 휘종(徽宗)의 연호로서 재위기간은 1111년에서 1117년까지이다.)에 건립되었다.¹²⁾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복원관은 1111년과 1117년 사이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조선조가 건국되면서 태조에게 조박(趙璞) 선생은 소격전(昭格殿) 한 곳만을 놓아 두고 복원궁(福源宮), 신격전(神格殿), 구요당(九曜堂), 소전색(燒錢色), 대청관(大清觀), 청계배성소(淸溪拜星所) 등을 혁파하라고 상소하여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었다.¹³⁾ 조박(趙璞) 선생의 호(號)는 우정(雨亭)이고 자(字)는 안석(安石)으로서 태종대왕(太宗大王)인 이방원(李芳遠)과는 동서지간이다.

조선조의 1등 개국공신으로 평원군(平原君)에 봉해졌음은 물론 벼슬이 화려하였던 선생이었으니 상소(上疏)가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볼 때 고려 시대에는 소격서(昭格署)를 소격전(昭格殿)이

12)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저).

13)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조원년(1392년) 8월 9일의 기록.

라 불렀음을 알 수가 있고 아울러 소격전 이외로도 재초를 시행하던 곳이 복원궁을 비롯하여 여러곳이 있었지만 조선조가 건국되면서 모두 폐해 버리고 소격전만 남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태일전 터

이러한 소격전(昭格殿)은 세조 11년인 1466년에 소격서(昭格署)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그런데 연산군 때 대제학을 역임한 성현(成愼 : 1439~1504) 선생이 쓴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昭格署皆憑中朝道家之事(소격서개빙중조도가지사) 太一殿祀七星諸宿(태일전사 칠성제수) 其象皆被髮女容也(기상개피발여용야) 三清殿祀玉皇上帝(삼청전사 옥황상제) 太上老君(태상노군) 普化天尊(보화천존) 十餘位皆男子像也(십여위개남자상야)

소격서는 다 중국 조정의 도교의 행사에 따르고 있다. 태일전에는 칠성제수를 제사하는데 그 신(神)의 형상은 다 파발(被髮)한 여인의 모양을 하고 있다. 삼청전에는 옥황상제, 태상노군, 보화천존 등 10여 위를 제사하는데 다 남자 형상이다.¹⁴⁾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소격서 안에는 태일전과 삼청전이 있었고 삼청전에는 남자상을 태일전에는 여자상을 모신 것으로 되어 있다.

성현(成愼) 선생의 호(號)는 용재(慵齋)이고 자(字)는 경숙(敬叔)으로서 조선조의

14) 용재총화(慵齋叢話) 성현 저(成愼 著) : 용재는 성현 선생의 아호(雅號)이다. 용재총화는 조선조 초기의 정치 사회제도 및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저서로는 용재총화(慵齋叢話) 이외로도 허백당집(虛白堂集), 풍아록(風雅錄), 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풍소귀범(風騷軌範), 경륜대궐(經倫大軌) 등 많은 저서를 남기셨던 분이시다.

예종, 성종, 연산군 때에 많은 저서를 남기신 훌륭한 학자로서 도교에도 능통하였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상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격서에 근무하는 직관(職官) 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本朝昭格署(본조소격서) 有三清殿(유삼청전) 掌三清星辰醮祭(장삼청성진초제) 定提調一員(정제조일원) 令一員(영일원) 別提(별제) 參奉各二員(참봉각이원) 雜織尙道(잡직상도) 志道各一人(지도각일인)

본조(本朝)는 소격서(昭格署)를 두었는데 거기에는 삼청전이 있어 삼청(三清), 성진(星辰)의 재초를 관장했다. 원은 제조 1원, 승 1원 제조와 참봉 각 2인, 잡직으로 상도, 지도 각 1명이 있다.¹⁵⁾

앞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상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소격서(昭格署)내에는 삼청전(三清殿)만 있었을 뿐 태일전(太一殿)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는 당시의 태일전은 소격서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자리의 방위에 따라 이동하는 지방에도 있었기 때문에 소격서 안에서의 태일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청전의 그늘에 가려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까닭이 아니었을까? 아울러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太一天之貴紳(태일천지귀신) 自漢以來(자한이래) 歷代奉事(역대봉사) 屢獲嘉祥(루획가상)

태일은 하늘의 존귀한 신으로 한(漢)나라 이래 역대 제왕들이 받들어 섬기어 자주 좋은 상서를 얻었습니다.¹⁶⁾

15) 增補文獻備考, p223.

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태일전에서는 피발(被髮)한 여자상을 모신 것 보다는 하늘의 존귀한 신(神)인 옥황상제(玉皇上帝)를 모셨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태종실록을 계속 살펴보면,

是以前朝置福源宮(사이전조차복원궁) 昭格殿(소격전) 淨事色(정사색) 別建大清觀(별건대청관) 又於良和寧(우어간화령) 巽忠州(손충주) 坤富平(곤부평) 乾龜州(건귀주) 方隊所次之宮(방대소차지궁) 營建宮觀(영건궁관) 以行醮禮(이행초례)

그러므로 전조에서 복원궁, 소격전, 정사색을 두고 따로 대청관을 세웠으며 또 간방(良方 : 동북쪽)인 화령(和寧)과 손방(巽方 : 동남쪽)인 충주(忠州) 곤방(坤方 : 서남쪽)인 부평(富平) 건방(乾方 : 서북쪽)인 귀주(龜州)에 머무르는 궁마다 궁관을 세워 초례를 행하고…….¹⁷⁾

라는 기록도 나오는데 이러한 기록을 살펴 본다면 고려시대의 태일전(太一殿)은 소격서(昭格署)와는 상관없이 화령(和寧)과 충주(忠州), 부평(富平) 또는 귀주(龜州) 등으로 이전하였음도 알 수가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소격서와 합한 후에는 소격서 안에도 태일전이 있었고 별자리의 방향에 따라 이전하는 지방에도 태일전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만일 태일전이 두군데에 있었다면 소격서(昭格署)안에 있었던 태일전에서는 피발한 여자상을 모시고 제향하였을지 모르지만 방향에 따라 이전하는 태일전에서는 옥황상제를 비롯한 남자상과 피발한 여자상을 모두 함께 모시고 제향하였다고 추측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조선조 성종 7년인 1476년에 대구부사(大邱府使) 최호원(崔灝元)이 상소한 상소문(上疏文)내용을 살펴보면,

16)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4년(1404년) 2월 21일의 기록.

17)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4년(1404년) 2월 21일의 기록.

태일(太一)은 인간의 오복(五福) 일을 총괄하고 세상을 어루만져 함께 변화시키니 사전(祀典 : 제사의 예절)의 예를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신(神)은 항상 구궁(九宮)을 따라 순환하며 이전하는데 매 궁마다 45년씩 머물니다.

지난 세종 16년(1434년)에 손방(巽方)으로 옮겨서 경상도의 의성현 땅 빙혈(氷穴)에 태일전의 사당을 짓고 봉사(奉祀 : 제사를 받들어 모심)한 지 43년이 되었으니 2년이 지나면 궁수(宮數)가 차서 마땅히 곤궁(坤宮 : 서남 방향)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¹⁸⁾

위의 글을 살펴보면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태일전은 45년이 되면 궁수(宮數)가 차서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소격전(昭格殿)이었던 개성(開城)으로부터 간방(艮方 : 동북쪽)인 화령(和寧)에 태일전을 옮겨 짓고 45년동안 초례를 행하다가 손방(巽方 : 동남쪽)인 충주(忠州)로 태일전을 옮겨 짓고는 다시 45년동안 초례를 행하다가 곤방(坤方 : 서남쪽)인 부평(富平)으로 태일전을 옮겨 지었다. 다시 45년동안 초례를 행하다가 건방(乾方 : 서북쪽)인 귀주(龜州)로 옮겨 짓고는 45년동안 초례를 행하다가 중궁(中宮)인 개성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간방(艮方 : 동북쪽)인 강원도의 통천(通川)으로 태일전(太一殿)을 옮겨 짓고는 45년 동안 초례를 지내다가 세종 16년인 1434년에는 손방(巽方)인 경상도 의성현(義城縣)의 빙혈산으로 태일전을 옮겨 짓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간방(艮方)인 동북쪽에 태일전이 있었던 사당은 함경도의 함흥(咸興)이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강원도의 통천이었다는 사항이 조선왕조실록상에 나온다.

태종실록을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고,

命修通州太一殿仍施丹青(명수통주태일전잉시단청)

18) 태종실록(太宗實錄).

통주(통천)의 태일전을수리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단청도 칠하게 하였다.¹⁹⁾

성종실록상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을 볼 수도 있다.

전조(前朝 : 고려)에서는 통천(通川)에서 제사하였고 국조(國朝 : 조선)에 이르는 갑인년(1434)이 45년째가 되므로 의성(義城)에 옮겨서 제사하였습니다. 갑인년으로부터 무술년(1478)에 이르면 45년째가 되므로 마땅히 곤방으로 옮겨야 합니다.²⁰⁾

위의 글은 풍수학 교수 최호원(崔灝元)의 상소문 때문에 소격서(昭格署) 내에서 강화도의 마니산이 곤방(坤方)이라 하여 태일전을 옮기려고 하는 안(案)과 이를 반대하는 안(案)에 대하여 알가알부하는 것을 보고는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이 성종 임금께 보고한 내용이다. 그런데 태종 때의 학자였던 김첨(金瞻) 선생이 태종 임금께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도 나온다.

國初詳定(국초상정) 廢福源宮(폐복원궁) 神格殿(신격전) 淨事色(정사색) 京城只留大清觀(경성지유대청관) 昭格殿二所(소격전이소) 又於五次之宮(우어오차지궁) 良方永興郡(간방영흥군) 立觀行醮(입관행초) 崇奉之禮(승봉지예) 可謂備矣(가위비의)

건국 초기에 상정할 때 복원궁, 신격전, 정사색을 폐지하고 서울에는 단지 대청관과 소격전 두 곳만 남겼고 태일신이 다섯 군데 머무는 궁의 간방인 영흥궁에 도관을 세워 초례를 행하였으니 받드는 예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²¹⁾

19)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12년(1412년) 10월 21일, 御前會議時.

20) 成宗實錄, 성종(成宗), 7년 8월 24일의 기록.

21) 太宗實錄, 태종 4년, 2월 21일, 김첨(金瞻)의 상류문(上疏文) 중에서.

위의 기록을 살펴 본다면 간방(艮方 : 동북쪽)의 태일전은 함경도의 영흥군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영흥군에 있었던 것은 태조가 즉위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도교적인 기축법에 의하여 도연포(都連浦 : 함흥부근)에 제성단(祭星壇)을 쌓고 태백금성(太白金星)을 제사했다고도 한다.²²⁾ 이런 것으로 볼 때 함경도의 영흥군에서도 태일신을 모시고 초례를 행하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간방(艮方 : 동북쪽)에 있었던 태일전은 함경도의 함흥이 이태조의 고향이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하여 태일초례를 지냈음으로 간방(艮方 : 동북쪽)에 있었던 태일전은 함경도의 영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성종실록에 나타난 임사홍(任士洪)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 간방(艮方 : 동북쪽)에 있었던 태일전은 함경도의 함흥이 아니라 강원도의 통천(通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세종 16년인 1434년에 경상도의 의성현으로 옮겨졌던 태일전은 함경도의 영흥군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통천에서 옮겨진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의성현으로 옮겨진 태일전에서는 경상도 관찰사 신인손(辛引孫) 선생의 초현으로 제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신인손 선생은 태일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太清新殿創氷山(태청신전창빙산) 河漢昭回列定環(하한소회열정환) 五色寶光連
下土(오색보광연하토) 三台華蓋擁中間(삼태화개옹중간) 齊心十日趨宮陛(제심십일
추궁폐) 祝壽千年拜帝顏(축수천년배제안) 願使風調仍雨順(원사풍조우순) 藹然
和氣滿人(에연화기만인환)

하늘의 새 전각은 방산에 창건되었고 은하(銀河)의 돌아감은 정환에 벌려 있

22)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지), p122.

다. 오색의 보광은 하토에 이었고 삼태의 화개는 중간에 끼어 있다. 마음을 재개하기 10일 황궁의 섬돌로 달리고 수명을 수축하기 천년황제의 모습에 절한다. 원하옵기는 비, 바람 순조롭도록 화기에애함이 인환에 가득하도록 하였다.²³⁾

신인손(辛引孫) 선생의 호(號)는 석천(石泉)이고 자(字)는 조운(祚胤)으로서 세종대왕과는 세자 때부터 가까운 사이로 특별대우를 받았던 명망이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친히 향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며 태안으로 태일전이 옮겨진 이후부터는 왕으로부터 향이 내려지지를 앓았다는 것이 의성에 있는 박 찬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항은 이규경(李圭景) 선생이 쓴 『오주연문(五洲衍文)』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다. 오주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일전은 지금 의성현(義城縣) 동빙산(東氷山)에 있는데 매년 상원(上元)에 향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빌더니 성중기해(己亥)에 의성에서 태안 백화산(白華山)으로 옮겨 모신 이후로는 향도 보내오지 않는다. 이 역시 소격서에 속한 것이므로 소격서가 없어지자 그 제전도 폐지되고 만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도 태안의 백화산에 있었던 태일전에는 향을 보내오지 앓았던 것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태일전이 의성현의 빙산에 있을 때는 초현을 맡고 있던 경상도 관찰사 신인손(辛引孫)선생과 세종대왕과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이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다만 의성에 있는 박 찬 변호사의 말에

2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慶尙道) 의성현(義城縣) 고적조편

그런데 경상북도 의성군에 살고있는 박찬(朴燦)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의성현지(義城縣誌 : 조선조 영조 13년 1757년 발행)를 참고로 보이면서 하한소회열정환(河漢昭回列定環)이 하한소회열숙환(河漢昭回列宿環)으로 기록되어야 맞는다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상의 정환(定環)은 숙환(宿環)이 맞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定環이나숙환은 다같이 별자리를 논(論)하는 말로서 같은 뜻이라 한다. 박 찬 변호사는 한때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던 인물로서 지금은 지역에서 향토사학자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다.

수궁이 갈 뿐이다.

어쨌거나 의성현의 빙산에 있던 태일전도 성종 7년인 1476년에 대구부사 초호원(崔灝元)의 상소를 받아 들어 태일전을 옮길 곳을 찾아 보라는 명(命)을 내리게 된다. 그리하여 강화도의 마니산을 선정하였으나 곤방(坤方 : 서남쪽)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되었는데 당시의 사항을 성종실록에서 살펴보면,

태일전을 옮기면서 방위를 가리지 않는다면 옮기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마니산은 경성(京城)의 서쪽에 있으니 태방(兌方)이라 하면 가하지만 신방(申方)과 경방(庚方)의 두 방위를 넘어서 곤방이라 하면 크게 서로 맞습니다. 태일은 곤방에 있는데 사당(殿)은 태방에 지으면…….²⁴⁾

이와같은 최호원의 강력한 상소에 의하여 태일전은 강화도의 마니산을 포기한 채 충청도 태안의 백화산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성종실록 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禮曹啓今緣前觀象監正李宗敏(예조계금연전관상감정이종민) 啓本太一殿移建可當(계본태일전이건가당) 坤方在忠淸道泰安白華山西南(곤방재충청도태안백화산서남) 古城寺北高平處距(고성사북고평처거) 京城三百三十里請今工曹營建從之(경성삼백삼십리청금공조영건종지)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 관상감정 이종민의 계본에 의하건데 태일전을 옮겨 세우는 데에 마땅한 곤방은 충청도 태안의 백화산 서남쪽 고성사(古城寺)북쪽의 높고 평평한 곳에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가 3백3십리라 하니 청컨대 공조로 하여금 영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⁵⁾

24)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成宗) 8년, 2월 18일의 기록.
25)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8년(1477년) 6월 1일 기록.

그로 인하여 성종 9년인 1478년에 태안의 백화산으로 태일전이 옮겨지게 되었으며 태일전에서의 제사 방법은 경상도 의성(義城)에서의 예에 의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참봉(參奉)은 서울에 사는 사족(士族: 문벌이 좋은 집안)의 자제 가운데서 재주를 시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벽지인 태안의 태일전에서 1년의 임기를 채우면 서울의 참봉으로 영전하여 주는 조건이었다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상의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성종실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볼 수가 있다.

신(臣)이 근일 기우향사(祈雨香使: 기우제를 맡아행하는관리)로서 소격서(昭格署)의 제물(祭物)을 보건대 잣, 개암은 다 더러운 사람을 시켜 껍질을 벗기므로 정결하지 않은 듯하니 이 뒤로는 껍질 채 바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도류(道流: 잡직의 하나인 벼슬)는 겨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알면 다 훈도(訓導: 큰 고을에 두었던 종9품 벼슬)가 되어 보려고 하므로 남아 있는 자는 다 미열(迷劣)하여 일에 정통하지 못하니 태일전참봉(太一殿參奉)에 소격서의 도류를 차출하여 보냈다가 가려울 때에 경직(京職: 서울에 있는 벼슬자리)을 제수하면 그들도 그 직임을 즐겨서 일에 정려(精勵)할 것입니다.²⁶⁾

V. 태일전에서의 기도 내용

그렇다면 태일전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빌면서 제사를 지냈을까?
고려사(高麗史)를 살펴보면,

太一於壽春宮以穢火災(태일어수춘궁이양화재)

26)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12년(1481년) 6월 12일 경연장(經筵場)에서 홍 응이 임금께 보고한 내용.

태일신께 화재가 없기를 빌며 제사 지냈다.²⁷⁾

醮太一於文德殿以祈風雨調順(초태일어문덕전이기풍우조순)

문덕전에서 비, 바람 순조롭도록 빌면서 태일초제를 올렸다.²⁸⁾

醮七十二星於明仁殿又醮天皇大帝太一及十六神以禳疾疫
(초칠십이성어명인전우초천황대제태일급십륙신이양질역)

72성계 초제를 지내고 이어서 명인전에서 천왕대제계 초제를 올림과 아울러 태일급의 16신께 질병이 없기를 빌며 제사 지냈다.²⁹⁾

이어서 조선왕조실록 상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우선 태종실록(太宗實錄)을 먼저 살펴보면,

行太一醮以(행태일초이) 小寒大寒(소한대한) 沈霧故祈禳也(심무고기양야)

소한 대만에 안개가 끼었기 때문에 기양(祈 : 복은 들어오고 재앙은 물러가라고 비는 기도)을 하였다.³⁰⁾

라는 기록에 이어,

開城大井名山(개성대정명산) 大川行太一醮於(대천행태일초어) 昭格殿是日小雨

27)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7권, 문정대왕시(文宗大王時).

28)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10권, 선종대왕시.

29)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17권, 의종대왕시.

30)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2년(1402년) 1월 24일의 기록.

(소격전시일소우)

개성과 명산 대천에 비를 내리도록 빌게 하고 태일초를 소격전에서 행하였다.
이날 약간의 비가 내렸다.³¹⁾

行太一醮禮(행태일초례) 攢非時雷動也(낭비시뢰동야)

태일초례를 행하였으니 때아닌 천둥을 빌기 위함이었다.³²⁾

라는 기록들이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세종 때의 기록들을 살펴 보면,

祈雨于風雲雷雨(기우우풍운뢰우) 又行太一祈雨醮(우행태일기우초)

풍운뢰우에 기우하다. 또 태일성에 기우하는 초제를 행하다.³³⁾

라는 기록에 이어,

行祈雨太一醮(행기우태일초) 聚巫僧徒祈雨(취무승도기우)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태일초제를 행하였다. 무당들과 중들을 모아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게 하였다.³⁴⁾

라는 기록에 이어,

31)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5년(1405년) 5월 24일의 기록.

32)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5년(1405년) 12월 5일의 기록.

33)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년(1420년) 4월 26일의 기록.

34)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18년(1436년) 6월 6일의 기록.

祈請于太一(기청우태일)

태일에 기청제를 행하였다.³⁵⁾

라는 기록과

行太一祈雨醮(행태일기우초), 又徒又風雲雷雨(우도우풍운뢰우) 三角木覓漢江
(삼각목며한강)

태일기우초제를 행하고 또 풍운뢰우 삼각덕목을 한강에서 기우하다.³⁶⁾

行太一祈雨醮(행태일기우초)

태일기우의 초제를 행하였다.³⁷⁾

또는,

행기우태일초례(行祈雨太一醮禮) 행석척취무승도기우(行蜥蜴聚巫僧徒祈雨)

비를 비는 태일초례를 행하다. 석척기우제 취무기우제 승무기우제를 함께 행
하였다.³⁸⁾

라는 조선왕조실록 상의 기록들 이외로도 태일전에서의 기도 내용은 한없이 많다

35)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0년(1438년) 7월 13일의 기록.

36)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0년(1438년) 7월 13일의 기록.

37)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1년(1439년) 4월 21일의 기록.

38)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2년(1440년) 4월 25일의 기록.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 상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齊心十日(제십십일) 皇宮陸祝(황궁괘축) 壽千年拜帝顏(수천년배제안) 願使風調
仍雨順鵲(원사풍조잉우순작) 然和氣滿人窳(연화기만인환)

마음을 재개하기 10일 황궁의 섬들로 달리고 수명을 수축하기 천년황제의 모습에 절한다. 원하옵기는 비, 바람, 순조롭도록 화기애애함이 인환에 가득하도록 하였다.³⁹⁾

매년 상원(上元)에 향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빌더니…….⁴⁰⁾

이상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태일전에서의 기도내용은 대체로 비를 비는 기우제를 비롯하여 폭풍, 천둥 등 풍수해(風水害)를 예방하고 나라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좋은 복(福)은 들어오고 나쁜 재앙(災殃)들은 물러 가라는 내용의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었음을 볼 수가 있다.

VI. 소격서(昭格署)와 태일전(太一殿)의 혁파

이와 같이 태일전이 방위에 따라 태안의 백화산에까지 옮겨지게 된 후 백화산에서의 태일제는 계속되었지만 방탕이 심하였던 연산군은 도교의 풍습의 하나인 경신(庚申)을 지키는 일마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수경신(守庚申)이란 경신일에 밤을 자지 않고 날을 새우는 도교의 풍습이다.

경신일에 날을 새우는 풍습은 장생법(長生法 : 오래 사는 비결)에서 시작되었는

3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慶尙道) 의성현(義城縣) 고적조 편.

40)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五洲衍文)

데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악행(惡行)의 정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그 비례로 빼앗아 버려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이다.⁴¹⁾

이러한 경신일에 연산군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今日庚申也(금일경신야) 爲戲以賭之(위희이도지) 大司憲李諱等啓(대사헌이집 등계) 人君無戲事(인군무희사) 守申之戲(수신지희) 閭巷豪俠兒所尙也(여향호협아 소상야) 今令承政院效之(금영승정원효지) 禁中非戲遊之地(금중비희유지) 近臣非賭博之類(근신비도박지류) 請命停之(청명정지) 不聽(불청)

오늘은 경신일이니 함께들 수야하고 장난삼아 노름들이나 하라. 대사헌 이집(李諱) 등이 아뢰기를 임금에게는 장난이란 없는 것입니다. 수경신 하는 놀이는 여향(閭巷)의 호협아(豪俠兒)들이 숭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정원에게 그것을 본뜨게 하시다니 금중(禁中)은 놀이하는 곳이 아니옵고 측근의 신하들은 도박하는 부류들이 아닙니다. 그만 두도록 명하십시오. 그러나 그 청을 듣지 않았다.⁴²⁾

이와 같은 연산군조를 거쳐 중종조에 이르러 소격서에 대한 혁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중종 13년인 1518년의 7월 27일 사헌부 대사헌 이항(李沆), 사간원 사간 김희수(金希壽) 등은 다음과 같은 합동상소를 올린다.

夫道敎異端之一耳(부도교이단지일이) 荒怪妄誕欺世襲天(황괴망탄기세설천) 賊吾道之甚者(적오도지심자) 少有識見(소유식견) 孰不欲斷絕其根本(숙불욕단절기근본) 衰世之君(쇠세지군) 不能自強於爲善(불능자강어위선) 欲動私勝(욕동사승) 恠

41)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저), p190.

4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迫禍福(출박화복) 其於吉凶(기어길흉) 邪正之間(사정지간) 固已眩瞶顛倒(고기현 무전도) 莫適爲執(막적위집) 徒事玄虛(도사현허) 以致衰亂危亡之禍(이치쇠란위망 지화) 而所謂道力神功(이소위도력신공) 終不能救焉恤(종불능구언)

대저 도교는 이단의 하나입니다. 황괴망탄하고 세상을 속이고 하늘을 더럽히고 오도(吾道)를 심히 해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으면 누가 그 근본을 단절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쇠미한 세상의 임금은 선(善)한 일을 하는데 스스로 힘쓰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려고 하고 화복(禍福)에 겁내고 길흉(吉凶)과 사정(邪正) 사이에서는 눈이 어지러워져 전도(顛倒)시키고 옳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한갓 현허(玄虛)를 일삼아서 쇠란(衰亂)과 위망(危亡)의 화(禍)를 불러오는 데도 이른바 도력(道力)과 신력(神功)은 끝내 그것을 구(救)해 내지 못합니다.⁴³⁾

뿐만 아니라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기묘제현(己卯諸賢)들이 소격서의 혁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昭格署乃左道之甚者(소격서내좌도지심자) 而所當革罷者也(이소당혁파자야) 近聞因草茅之言(근문인초모지언) 延訪大臣(연방대신) 大臣皆言可革(대신개언가혁) 而自上獨執(이자상독집) 以爲不可(이위불가) 朝議咸以爲未便(조의함이위미편)

소격서는 이단 중에서도 심한 것으로 마땅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근자에 듣기로는 민간의 말에 따라 대신에게 물으시자 대신들은 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하께서 홀로 고집하시고 안된다고 하셔서 조정의 의론이 다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⁴⁴⁾

43)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13년 6월 21일의 기록.

44)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13년 6월 21일의 기록.

라고 주청하고는 이어서,

삼대이상(三代以上) 고무좌도(固無左道) 이년대장구(而年代長久) 쇠세지군(衰世之君) 불선수어내(不先修於內) 이외봉좌도(而外奉左道) 이기장년(而祈長年) 만 무시리(萬無是理) 청속혁파(請速革罷)

3대 이전에는 본래 이단이 없었으나 연대가 오래 되자 쇠세의 임금이 먼저 안으로 자신의 덕(德)을 닦지 않고서 밖으로 이단을 신봉하여 장수를 빌었습니다. 전연 그렇게 될 까닭이 없으니 속히 혁파하시기 바랍니다.⁴⁵⁾

이상과 같이 조광조를 선두로 한 기묘제현들은 중종(中宗)과 옥신각신하면서 소격서의 혁파를 주장하였으나 중종은 조종조(祖宗朝)에서부터 해내려 오던 일을 폐지할 수 없다고 굳게 거부하면서 맞서 소격서의 혁파가 어렵게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조광조(趙光祖) 등이 밤중까지 물러나지 않고 집요하게 혁파를 요청하는 통에 중종은 결국 마음을 돌려 소격서를 혁파하라고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린다.

昭格署非不知左道(소격서비불지좌도) 但其來已久(단기래기구) 故以爲不可革(고이위불가혁) 今見輿情(금견여정) 改曷혁거(皆欲革去) 當俯循輿情(당부순여정) 但命革(단명혁) 則其祭祀自不得爲也(즉기제사자불득위야) 其設陳之具(기설진지구) 必爲處置(필위처치) 如位版等物(여위판등물) 亦不須埋置(역불수매치)

소격서는 이단임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다만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고 여겼을 뿐이다. 지금 여론을 보니 다들 없애기를 원하니 마땅히 여론에 굽어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없애기를 명(命)하는 것은 그 제사를 자연히 지낼 수 없게 되니 그 진실한 제구를 만드시 처치해야 한다는 것이

45)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13년 7월 27일의 기록.

다. 위판같은 물건들 역시 물어둘 것 없다.⁴⁶⁾

이렇게 하여 소격서를 혁파하게 되자 충청도에 있는 태일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종종 임금은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린다.

既草昭格署而(기초소격서이) 忠淸道太一殿不今並撤(충청도태일전불금명철) 請
並捧承傳(청병봉승전) 曰既草本原則(알기초본원칙) 枝葉之事(지엽지사) 該曹自當
察而處之(해조자당찰이처지)

소격서는 혁파하였으나 충청도에 있는 태일전은 아울러 철거하지 않았으니
아울러 승전을 받게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본원을 혁파하였으면 지엽의 일은
해조가 스스로 살펴서 처리할 것이다 하였다.⁴⁷⁾

이렇게 하여 태안의 백화산에 있던 태일전도 종종 13년인 1518년의 9월 4일
45년을 채우지 못한 39년만에 강화도의 마니산으로 옮겨지기 6년 전에 혁파되기
에 이른다. 만일 이 때에 태일전이 혁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안의 태일전은
45년이 되는 1524년에 강화도의 마니산으로 옮겨지게 되므로서 자연적으로 없어
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묘사화(己卯土禍)로 인하여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게 되자 종종은 모후
(母后)의 병중간청(病中懇請)이라 하여 제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격서를 서
울에 부활시키게 되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왕조실록상에 나타난다.

太一殿草席地衣盡破云(태일전초석지의진파운) 祭享所以草席爲地依似爲樂慢宜
考(제향소이초석위지의사위란만의회고) 前例卽以正席改排(전례즉이정석개배)

46) 종종실록(中宗實錄), 종종 13년 9월 3일의 기록.

47) 종종실록(中宗實錄), 종종 13년 9월 3일의 기록.

태일전의 겹자리로 된지가 죄다 망가졌다고 하는데 제향석에서 초석을 지의로 삼는 것은 무례할 듯하니 전례를 상고하여 정석(正席 : 돛자리)으로 개배하여야 하겠다.⁴⁸⁾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중종 23년인 1528년에 헐려진 태일전이 다시 복원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복원되었던 소격서(昭格署)나 태일전(太一殿)도 선조 때에 이르러 임진왜란을 겪고나서 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Ⅶ. 태일전의 헐파 후 도교의 유적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안의 백화산에 있던 태일전(太一殿)은 조선조 중종 13년인 1518년의 9월 4일에 헐려졌다. 그리하여 몇 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산 정상 태일전의 옛 터에는 당시에 사용하였던 주춧돌들이 한 두 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화유적을 모르는 일부의 군인들이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흙을 매립함으로써 주춧돌마저 흙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태안의 백화산보다 45년이나 먼저 태일전을 맞이하여 제향을 올렸던 경상북도 의성군의 빙산에는 아직까지도 태일전 터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백화산에 있었던 태일전이 없어지고는 그 자리로 부터 200~300m의 아래쪽에 태을암(太乙庵)이라는 암자(庵子) 하나가 생기게 되었다. 태을(太乙)이란 태일(太一)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태일전이 헐려지면서 이곳에 그 자료들을 옮겨 암자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48)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23년 윤 10월 3일 기록.

아울러 태을암 주변에는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암각문이 새겨져 있음도 볼 수가 있다.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암각문은 지금으로부터 82년 전인 1923년에 김규항(金圭恒)씨가 김해김씨(金海金氏)들의 족보를 소장하면서 새겨진 내용이라는 사항을 암각문에 새겨놓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조 말엽 태안의 경이정(�景夷亭)에서는 음력으로 정월보름날 새벽에 재우제(宰牛祭)를 지내고 있었다.

재우제(宰牛祭)의 초헌(初獻)은 태안군수가 하였는데 소를 통으로 잡아서 제사를 올렸다고 하여 소우(牛)자를 넣어 재우제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우제는 백화산 정상에서 지내던 태일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내용이다.

정월보름날에 제향을 올렸든지 또는 10일 동안 근신하였다든지 제향의 내용이 비, 바람이 순조롭고 화기에애함이 인환에 가득하도록 하는 등 국태민안을 빌었다든지 초헌관이 지방의 성주(城主)인 태안군수 였다든지 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 백화산 정상에서 지내던 태일제와 흡사하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우제는 도교의 유적인 태일제에서 유래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우제도 1914년 태안군이 폐군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태안 시내권의 이장들은 자비로 제물을 장만하여 태안읍장을 초헌으로 하는 제향을 올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제(中央大祭)의 시초이다.

이와 같은 중앙대제(中央大祭)는 태안군이 복군되자 태안읍장에서 초헌을 태안군수로 바꾸어 오늘까지 성대하게 지내고 있다.

VIII. 결 론(結論)

태일전은 별 방위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간방(良方 : 동북쪽)인 화령(和寧)에서 손방(巽方 : 동남쪽)인 충주(忠州)로 옮겼다가 다시 곤방(坤方 : 서남쪽)인 부평(富

平)으로 옮겼었고 그곳에서 45년이 지나자 다시 건방(乾方 : 서북쪽)인 귀주(龜州)로 이동하면서 제향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강원도의 통천(通川)에 태일전을 모셨다가 그곳에서 45년을 경과한 다음 경상도 의성의 빙산으로 옮겼다가 그곳에서 다시 45년을 경과한 다음 충청도 태안(泰安)의 백화산으로 옮겼으며 충청도의 태안에서 45년이 경과한 후 강화도의 마니산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소격서의 혁파로 인하여 39년만인 1518년 9월 4일 태안의 백화산에서 혁파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도교는 원래부터 믿어 오던 토속신앙과 일치하여 주민 속으로 전파하기가 용이하였었을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그 자취마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달민족이라면 누구나 다같이 하늘이 내려다 본다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수경신(守庚申)을 지키는 일, 동토, 안택, 산신제 등의 풍습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음과 아울러 제향을 정성껏 지내다가 중지하면 죄를 짓는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이 생겼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교(道敎)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유불선 3교가 아니라 유교(儒敎), 불교(佛敎), 기독교(基督敎)의 3교로만 알고 있다. 아울러 도교에 대한 문헌(文獻) 또한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구(求)해진 일부의 문헌을 보고 기고를 하고 보면 또다른 문헌이 나오는 등 실력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혼선을 빚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도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몇 천년 전인 태고 시절부터 우리 지역의 백화산에는 옛날부터 '소도(蘇塗)'가 있었던 신성한 지역이었으므로 태일전이 옮겨오기 이전에도 항상 제향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으며 제향을 중지하면 하늘에 죄를 짓는 것만 같아 불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나라에서 태일전을 옮겨 오게 하고는 정성껏 제향을 모시므로 주민들도 불안한 마음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는데 나라에서 소격서를 혁파하면서 태일전도 혁파하기에 이르자 주민들은 마음속으로 제사가 없어진 것을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던중 1894년 동학혁명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군수가 피살을 당하였고 태안 읍성이 무너졌음은 물론 안흥성이 무너졌고 관아들이 모두 불타버리는 비운을 맞게 되자 주민들은 모두가 초조하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은 백화산에서 매년 거행하던 태일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노(怒)하신 결과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태일제와 같은 제향을 다시 부활하여 정성껏 지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태일제와 비슷한 재우제를 경이정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우제 역시 1914년 태안군이 폐군되므로 말미암아 군수가 없게 되자 제향을 주도할 사람이 없어져 재우제도 자연적으로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재우제가 중단되자 태안읍장을 비롯한 지역의 유지 또는 태안읍의 마을 리장(里長)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재우제를 대신하는 제향을 경이정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제이다.

아울러 중앙대제 역시 옛날의 재우제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태안군수가 초헌을 하면서 제향을 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중앙대제도 음력으로 정월보름날 새벽에 제향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사장이 10일간을 근신한다는 사실, 국태민안을 빌고 있다는 사실 등은 태일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태일전이 없어져 유일한 루정으로 남아 있던 경이정에서 제향을 모셨던 재우제와 같이 중앙대제도 경이정에서 모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의미가 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안에는 태을암(太乙庵)이라는 암자(庵子)와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암각문(巖刻文)이 있는 등 도교의 유형유적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임과 아울러 중앙대제(中央大祭)라는 도교(道敎)의 무형유적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삼국사기
2. 조선왕조실록
3. 신증동국여지승람
4. 증보문헌비고
5. 한국도교사상연구
6. 국사대사전
7. 세계백과대사전
8. 소성의향기
9. 북창비결
10. 용재총화
11. 오주연가

이원면(梨園面) 행정구역(行政區域) 변천(變遷)에 대한 고찰(考察)

이은우 _ 서산향토문화연구회

• < 목 차 > •

- I. 머리 말
- II. 평신진(平薪鎭) 관할 때의 이원면(梨園面)
- III.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이원면(梨園面)
- IV. 1895년(고종 35)의 행정구역 개편 후의 이원면(梨園面)
- V. 1914년(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 후의 이원면(梨園面)
- VI. 1973년의 행정구역 개편 후의 이원면(梨園面)
- VII. 맺 음 말

이원면(梨園面) 행정구역(行政區域) 변천(變遷)에 대한 고찰(考察)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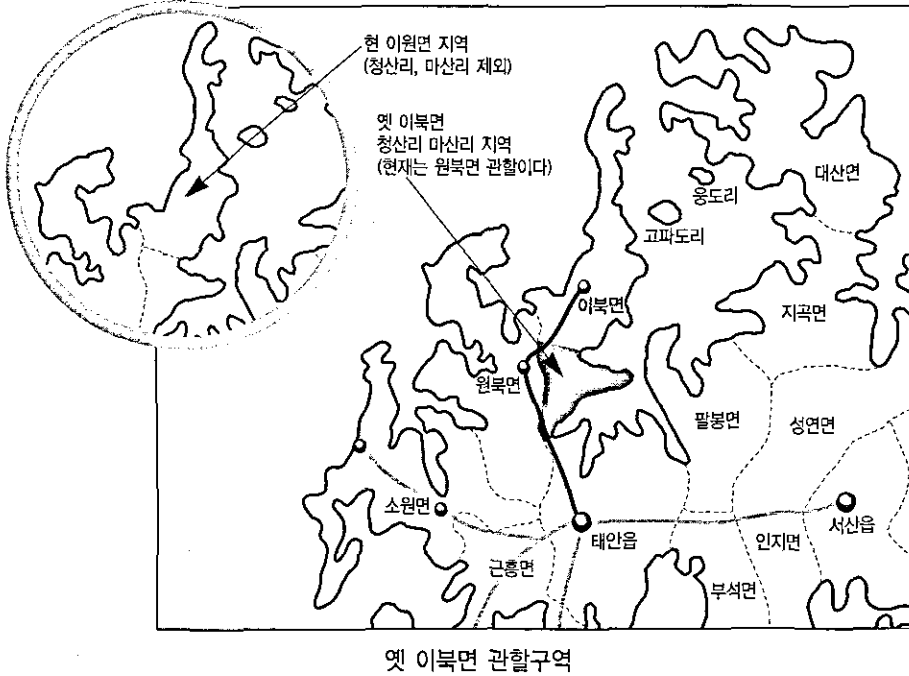
이원면(梨園面)의 행정구역은 여느 읍면(邑面)의 행정구역 보다 특이한 변천사를 가지고 있다. 1973년 7월 1일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는 현 원북면(遠北面) 청산리(靑山里)와 마산리(馬山里)를 관할하고 있어서 면직원이 청산리(靑山里)와 마산리(馬山里) 지역을 출장하자면 필히 원북면 소재지를 경유해야 되고 마산리(馬山里)는 불과 200m 내의 지근거리에 있는 원북면 사무소를 두고 8km가 넘는 이원면사무소(梨園面事務所)를 왕래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은 말할 수 없었다.

1950년대 말 경부터 1960년까지 이원면장을 한 조태호씨는 청산리(靑山里) 2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장을 역임하는 8년여를 매일 원북면사무소(遠北面事務所) 앞을 경유, 11km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통근하기 때문에 집에서 원북면사무소까지 3km, 다시 원북면사무소에서 8km를 오가야 하는 기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는 상상키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행정구역이었던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원면(梨園面) 지방은 관방(關防)의 개념에서 생겨난 행정구역으로 조선시대에 태안군 관할이 아니라 팔봉면(八峰面) 호리(虎里)에 소재했던 파지도만호(波知島萬戶) 내지 대산면(大山面) 화곡리(花谷里)에 있었던 평신진첨사(平薪鎭僉使) 관할

로 있었던 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II. 평신진(平薪鎭) 관할 때의 이원면(梨園面)

평신진(平薪鎭) 관할로 있었던 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인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평신진지(平薪鎭誌)의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연혁(沿革)과 설진(設鎭) 조(條)(충청도읍지 p509)

전해 오기는 대산면에 붙여 서산의 끝으로 모년에 설진 항금산에 있었는데 모년이설 하여 겸 감목관 등으로 있었다. 말을 먹이는 목장이 망일산 아래, 즉 구진

에 있었다. 지난 임진년(효종 3년, 1652) 이것이 이진되어 삼길 산하로, 즉 본진이 있었다.

諺傳大山面附於瑞山至某年設鎮於 亢金山下矣又於某年移設 兼監牧官 等 馬場
於望日山下卽 令舊鎮是也等 去壬辰又移鎮於三吉山下卽 令本鎮是也

나. 관 직(官職)

참사는 일원인데 감목관을 겸했다. 1794년(정조 18년)에 목마장이 남양으로 가고 화성군에 옮겨 별도의 파총으로 하였다.

僉使一員初以監牧官兼竝至正廟甲寅移馬南陽又爲分籍罷牧官○以三十羯移屬華
城浚兼屯牙共別中司把總

다. 면 리(面里)

대산면은 십삼 동 리로 원호가 칠백육십칠호이고 남자가 일천육백오십명이고 여자는 일천칠백십오명이다.

大山面十三洞里 元戶 七百六十七戶 男丁一千六五十口, 女丁一千七百十五口

이원면은 여덟 동 리 이백삼십삼호로 남자가 오백명이요 여자가 오백오명으로 옛날은 태안 소속이었다.

梨園面 八洞里元戶二百三十三戶男丁五百口女丁五百五口古屬泰安

倉宅面三洞里 元戶一百七十二戶男丁三百四十五口,女丁三百八十口古屬沔川

Ⅲ.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이원면(梨園面)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이원면(梨園面) 인구현황과 현 행정구역명

면명	방	면명	리명	거리(리)	가구수	인구 수			현 행정구역명			비고
						계	남	여	시군명	면명	리명	
태안군(泰安郡)	북(北)	북일도면(北一道面)	고파도리(古波島里)	40	24	91	44	47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古波島里)	
			균방리(均方里)	30	25	78	38	40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2리(馬山里二里)	
			산후리(山後里)	30	23	70	34	36	태안군	태안읍	후산리?(山後里?)	
			만대리(萬垓里)	30	70	233	113	120	태안군	이원면	내리2리(內里二里)	
			관동리(官洞里)	30	40	120	58	62	태안군	이원면	관리(官里)	
			당하리(堂下里)	30	64	280	130	150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棠山里)	
			사창리(社倉里)	20	32	114	56	58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社倉里)	
			옹점리(瓮店里)	15	10	24	11	13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1리(浦池里一里)	
			중리리(中狸里)	20	53	158	76	82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2리(靑山里二里)	
			이촉리(二促里)	15	92	342	160	182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1리(靑山里一里)	
			흑점리(黑店里)		14	45	26	19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2리(靑山里二里)	
계					437	1,508	746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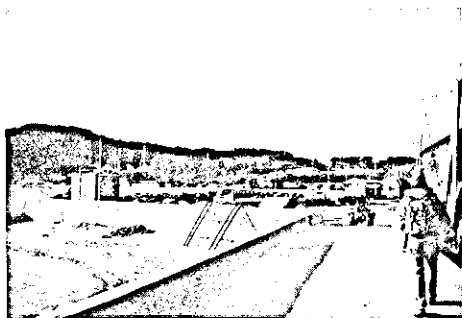
* 이 때에 서산군 문현면(文峴面) 고파도리(古波島里)가 있어서 10호에 인구 21명에 남 10명, 여 11명으로 고파도리가 작은 섬이지만 2개 군에서 관할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지금도 고파리(古波島里) 주민들은 윗말과 아랫말은 옛 태안 땅이었고 '끝뿌리(端嘴) 마을'만이 서산군 땅이었다고 증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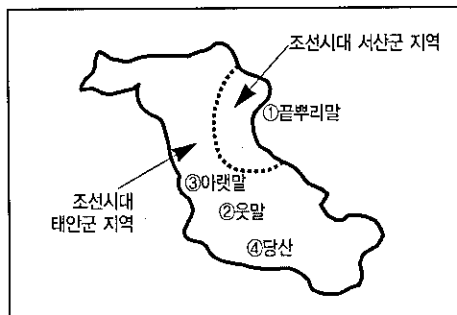
윗말(옛 태안군 지역)



아랫말(옛 태안군 지역)



끝뿌리말(옛 서산군 지역)



고파도리 지도

필자는 1987년에 간행된 서산의 문화 창간호 「읍·면·동리의 변천에 대한 관심」에서 산후리(山後里)가 지역의 증언을 들어서 태안읍의 산후리(山後里)로 비정하였었는데 태안군동일도면(東一道面)에도 35가구에 106명이 사는 산후리가 있고 북일도면(北一導面) 산후리(山後里)는 태안군(泰安郡)에서 30리(里)지점에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청산리(靑山里) 2구 지역이 아닌가 추정된다.

IV. 1895년(고종 35)의 행정구역 개편 후의 이원면(梨園面)

이때 이원면(梨園面)지역에는 북일면(北一面)과 이원면(梨園面)으로 나뉘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북일면(北一面)이란 이름은 북일도면(北一導面)에서 도(導)자

만 뻐 이름이지만 태안군 소재지에서 북측에 있는 첫 번째 면(面)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이원면(梨園面)이란 배나무가 많아서 얻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요새말로 말하자면 '배나무과수원면(梨果樹園面)이란 의미이다.

1. 북일면(北一面)의 각 동리명

○ 웅점리(甕店里), 갈두리(葛頭里), 이화리(梨花里), 청산리(靑山里), 태포리(苔蒲里), 사창리(社倉里), 내포리(內蒲里), 외포리(外蒲里), 굴향리(掘香里), 장작리(莊作里), 중리리(中狸里), 마산리(馬山里), 하리리(下狸里), 사증리(思增里), 고파도리(古波島里)

이 때에 고파도리(古波島里)는 태안군(泰安郡) 북일면(北一面) 소속으로 되어 독점 관할하게 되며 그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까지 14년간 계속된다.

○ 분지리(分地里), 당하리(堂下里), 청산리(靑山里), 궁동리(宮洞里), 마동리(馬洞里), 외동리(外洞里), 내동리(內洞里), 만대리(萬垔里), 야곡리(冶谷里), 야금리(冶金里),

이때 행정구역개편을 보면 면(面)과 동리구역(洞里區域)이 오늘과 같이 확연히 구분키 어렵게 지그재그로 구획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청산리(靑山里)의 경우 북일면(北一面)에도 이원면(梨園面)에도 있기 때문이다.

V. 1914년(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 후의 이원면(梨園面)

1914년의 행정구역개편에서 이원면(梨園面)과 북일면(北一面)을 합하여 한 면으로 하면서 이원면(梨園面)에서 이(梨)자를 취하고 북일면(北一面)에서 북(北)자를 따서 이북면(梨北面)이 되었다. 이때 각 동리의 개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원면(梨園面) 각 동리의 개편 상황

군면명	리 명	개편 후 리명
태안군 (泰安郡) 북일면 (北一面)	외청산리(外靑山里), 이화리(梨花里), 흑점리(黑店里), 갈두리(葛頭里).	청산리(靑山里)
	마산리(馬山里), 하리리(下狸里), 사증리(思曾里), 중리리(中狸里), 태포리(苔蒲里) 일부.	마산리(馬山里)
	사창리(思倉里), 장산리(莊山里), 태포리(苔蒲里) 일부.	사창리(社倉里)
	굴향리(掘香里), 내포리(內蒲里), 외포리(外蒲里), 이원면 분지리(梨園面 分地里) 일부.	포지리(蒲地里)
태안군 (泰安郡) 이원면 (梨園面)	내동리(內洞里), 외동리(外洞里) 일부.	내리(內里)
	관동리(官洞里), 외동리(外洞里), 마방리(馬防里)의 각 일부.	관리(官里)
	활곡리(活谷里), 아곡리(冶谷里), 당하리(棠下里), 청산리(靑山里), 마방리(馬防里) 일부.	당산리(棠山里)

VI. 1973년의 행정구역 개편 후의 이원면(梨園面)

1973년 이북면(이북면)이 이원면(梨園面)으로 바뀌고 오랫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 왔던 마산리(馬山里), 청산리(靑山里)가 원북면(遠北面)으로 이속되어 7개리를 관할하던 면(面)에서 5개 리를 관할하는 작은 면(面)으로 되었다.

VII. 맺 음 말

불완전하지만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그동안 이원면(梨園面) 행정구역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지도서(輿地圖書)는 발간년도가 1759년(영조35)으로 명백하다, 하지만 충청도읍지는 편찬년도가 18세기 중엽으로 전해질 뿐 정확한 년도는 알 수 없다. 또한 각 읍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어 늦은 것은 이보다도 더 늦은 것으로 전해진다.

18세기 중엽이라면 1759년에 발간된 여지도서와 같은 시기인데 이보다는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지도서에 없는 이원면(梨園面)이라는 새로운 면명(面名)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신진(平薪鎭) 소속이 된 이원면(梨園面)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있어 왔었는지 또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된 동리(洞里)와 그리고 관할이 일치하는 지도 궁금한 일이다. 어찌하던 간에 이원면(梨園面)의 행정구역은 당초 관방(關防)의 개념을 가지고 획정된 연유로 바다를 끼고 길게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음력 매월 7·8일 경에 나타나는 반달형태인 상현(上弦)의 면(面)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창(社倉)이란 조선시대 환곡(還穀)을 저장하는 곳집이 있던 곳이다. 변두리라 할 수 있는 사창리(社倉里)에 사창(社倉)의 위치가 적합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환곡(還穀)보다는 군량을 저장 해 두는 곳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당산리(棠山里)는 조선시대 당하리(堂下里)에서 연유된 지명인데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집 당(堂)자라 했어야 할 것을 아가워 당(棠)자로 바뀌어진 것 같다.

이밖에 토기를 구어 내던 도요지(陶窯址)가 있어서 생긴 흑점리(黑店里), 야철지(冶鐵址)가 있어서 생긴 야금리(冶金里), 터가 좋아서 생긴 이름으로 보이는 만대리(萬垓里), 그리고 이끼 태(苔)자와 부들포(蒲)를 쓰는 태포리(苔浦里), 그 외에도 부들포(蒲)를 쓰는 마을이 여러 군데 보이는 것도 특이한 것이다, 또 마산리(馬山

里), 마방리(馬方里) 등의 이름이 생긴 것은 평신진(平薪鎭) 지방이 목마장(牧馬場)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다.

고파도(古波島)라는 작은 섬을 두 개의 군에서 분할·관리한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로서 왜 그래야만 했을까? 물론 월경지(越境地) 제도 등이 있었지만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백화산성의 봉화대(烽火臺)

윤계동 _ 태안문화원 부원장

백화산성의 봉화대(烽火臺)

봉화대는 봉화독이란 말로 태안의 진산인 백화산 정상(284m)에 조성되어 있다. 봉화는 변란 등을 알리기 위하여 봉화독에서 횃불을 피워서 연락하는 것인데 봉수라고도 한다.

봉수(烽燧)는 봉(烽 : 횃불)과 수(燧 : 연기)로써 급보를 전하던 고대의 통신방법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불을 피워서 낮에는 연기(狼煙 : 낭연)로 밤에는 불빛으로 서로 연락하였던 것이다.

I. 봉화(烽火)에 대한 연혁(沿革)

고대 사회에서는 동서양은 물론 미개사회에서 널리 사용하였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다가 정식으로 법을 제정하여 실시한 것은 고려 시대 1149년(의종 3년)에 서북병마사(西北兵馬使)로 있던 조진약(曹晋若)의 상주(上奏)에 의하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시행하였는데 평상시에는 한번 올리고 2급(二急)에는 두 번, 3급(三急)에는 세 번, 4급(四急)에는 네 번을 올려서 급보(急報)를 알렸다.

봉수대에 근무하는 병정은 방정(防丁) 2명과 백정(白丁) 20명을 두고 각각 평전

(平田) 1결(一結)씩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봉수소에 배치되는 봉졸(烽卒)은 천역(賤役)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관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봉졸로 배치되는 예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서는 세종 때에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평상시에는 횃불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개, 적이 국경을 넘어서면 네 개, 적과 접전을 하면 다섯 개의 불을 피웠는데 구름이 끼거나 비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는 봉졸들이 차례로 달려서 보고하였다. 서울에서는 오원(五員)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五長)이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다.

봉수의 간선(幹線)은 직봉(職烽)이라 하여 동북은 경흥(慶興), 동남은 동래(東萊), 서북내륙은 강계(江界), 해안지방으로는 의주(義州), 서남은 순천(順川)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의 목멱산(木覓山 : 南山)을 종점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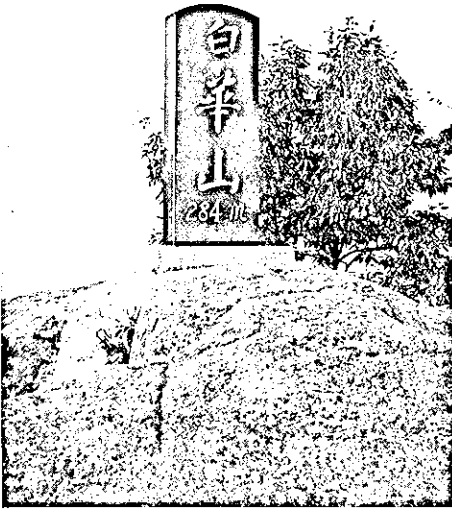
직봉 외에도 간봉(間烽)이라는 교조선이 있어 본봉 사이의 중간지역을 연락하는 단거리의 것과 국경 방면의 전방초소로부터 본진으로 보고하는 장거리의 것도 있었다.

봉화가 서울에 오면 병조에서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여 이를 국왕에게 보고하고 만약 급할 때에는 밤중이라도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

각 봉수대에 배속된 인원은 남산에는 봉군 4인, 오원(五員) 2명, 연해와 변방지역은 봉군 10명, 오장(伍長) 2명, 기타 내륙지방에서는 봉군 6명, 오장 2명씩을 배속하였는데 이들은 봉수대 근처에서 거주하여야만 하였다.

또한 봉화대에 근무하는 봉군은 다른 군역에 종사 할 수 없으며 오직 망을 보는 일에만 종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봉화대에는 표주(標柱)를 세워서 경계를 설정하고 거짓 봉화(烽火)나 방화(放火)를 막론하고 그것이 경계선의 100보 이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병조에서 관할 단속하고 100보 외에서 일어났을 때는 해당 진영에서 단속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사형에 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봉화대 근처에서는 무당이나 토속에 관한 모든 제사 등을 금지하였다.



1982년도에 세운 백화산 표석(건립자 김세규)



1985년도에 세운 봉화대터 표석(건립자 김세규)

보통 봉화대 산 높이는 300m안 밖으로 정하였는데 너무 높으면 구름이 가리고 낮으면 큰 산에 가려져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낮에 피우는 봉화에는 낭연으로 짐승들의 배분을 말려서 피웠는데 짐승들의 배분마다 서로 다른 색깔이 남으로 그 색으로 신호를 하였다고 한다.

백화산의 봉화대를 살펴보면, 백화산의 봉화대는 백화산 정상, 동남 방향에 흙과 돌로 조성되었는데 돌에는 30mm, 높이는 3.4mm로 둥그런 원형으로 기단은 넓고 위는 좁게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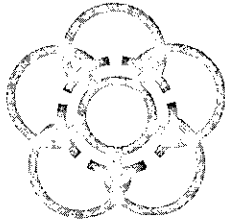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왜구의 해안침입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백화산 정상에 나무를 심고 정화사업을 할 당시에 주위에서 기와장이 무수히 출토된 점으로 보아 봉화대 근무 초소가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하여 볼 일이다.

이곳에 봉화대지(烽火臺址)라는 빗돌을 세운 사람은 태안의 산악인 김세규(金世

圭 74 : 태안읍 동문리 448씨가 1985년도 가을철에 자비로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세웠으며 백화산 표주(標柱) 빗들은 1982년도에 세웠다고 한다.

- ◆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대곡회통(大曲會通)
- ◆ 도움말 : 산악인(山岳人) 김세규(金世圭)



안면도 고남면 누동리 당산제(堂山祭)

강인식 _ 태안문화원 부원장

안면도 고남면 누동리 당산제(堂山祭)

안면도는 풍광이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고장이다.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깨끗한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수산물은 질과 양에서 서해안 최고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듯 물산이 풍족하다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게 되었고 그 사람살이 속에 많은 풍속과 전설이 깃든 땅이 안면도다.

지금은 점점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풍속 중에 당산제(堂山祭)가 있다. 바다에 삶의 터전을 잡은 우리 조상들은 안녕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며 매년 당산제(堂山祭)를 올렸다. 바다로 둘러싸인 안면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면도에 대표적인 당제(堂祭)로 자리매김을 한 황도(黃島)의 봉기풍어제(鵬旗豐漁祭)와 함께 고남면 누동리 당산제(堂山祭)가 있다.

안면도에서 영목항 쪽으로 15km 쯤 가다 보면 천수만을 바라보는 작은 어촌이 있는데 이 마을이 행정 명칭상 태안군 고남면 누동1리이다. 누동마을 195번지에는 자그마한 당산(堂山)이 있다. 마을의 공동재산인 약 2,800평의 당산에는 천수만의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동쪽에 8평 정도의 당집이 세워져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도 누동1리 마을에서는 현재도 매년 이 조그만 당집에서 고유의 문화유산인 당산제(堂山祭)를 올린다.

당집의 건립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애초에는 초가지붕이었던 것을 1945년도

경에 기와지붕으로 개량되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언제부터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이 당집에서 지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당집 주위에 선 참나무 둘레가 2m가 넘는 걸 보면 당산제(堂山祭)의 역사는 200여 년 전쯤부터 지내지 않았나 추측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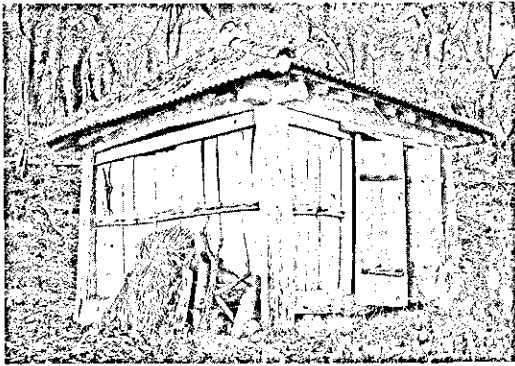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에 지내는 당산제(堂山祭)는 집집마다 사립문 밖에 부정을 방지하는 뜻으로 고운 황토를 파다 놓고 당집에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산제를 모시는데 아주 중요한 일은 제수를 준비하는 여자를 뽑는 일이었다. 제수를 장만하는 여자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청결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이는 당주님께 진상을 올리는 제물을 손질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제를 지내는 선달에 해산을 하게 되는 마을의 부녀자는 당산제(堂山祭)에 부정이 든다고 하여 마을에서 출산을 못하게 하고 애막터라고 하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 애막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임시로 지은 움막을 말하는데 이 움막에서 출산을 한 부녀자는 당산제가 끝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본집으로 귀가하였다 하니 당산제를 올리는 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짐작이 된다.

당제에 올리는 제수 중에서 특이한 점은 돼지머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를 잡아 제물로 올리는 점이다. 제물로 올리는 소고기도 아무 부위나 올리는 게 아니라 소의 머리, 소의 위, 등심 등을 정성껏 오려서 당산 앞에 갖다 놓고 당산에서 자란 참나무로 불을 지피 그 숯불에 산적을 구워 당산



누동리 당산 참나무



누동리 당집

제(堂山祭)를 올렸다. 젓밥도 오랫동안 당산제를 지낼 때마다 사용한 전용제기(專用祭器)를 사용했으며 제당(祭堂) 앞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국은 당연히 소고기로 끓인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차린 제물을 당집 안에 진설(陳設)하고 당산제를 지내는데 제단(祭壇) 앞에는

왼쪽으로 끈 새끼줄을 세 발 정도 늘인 다음 그 새끼줄에 백지를 12개를 12cm 정도로 잘라서 꿰어 놓고 벽에는 '당산 산신제 신위(堂山 山神祭 祭位)'라는 지방을 붙인다. 속설에 의하면 당산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산신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어 참나무 모닥불을 피우나 안 피우나 춥지 않았다고 한다. 당산제(堂山祭)는 밤 11시쯤이면 완료되었다.

당산제(堂山祭)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당주(堂主)네 집에서 횃불을 켜놓고 잡은 소를 가구당 정확하게 노느매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구 숫자대로 대충 소고기를 분배한 게 아니라 누동리 마을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소고기를 마을의 배 숫자대로 나눠서 나열해 놓은 뒤 배임자인 선주들을 소고기 뒤에 세운다. 그런 다음 동네 대동회장이 출발 신호를 내리면 선주들은 각자 자기 몫의 고기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배로 달려가서 그 고기로 뱃고사를 지냈다. 금년 한해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기 위해 선주들이 소고기를 들고 어둠 속을 달리는 것도 특이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가장 빨리 배에 도착해서 고사를 먼저 지내는 배가 그 해 고기를 많이 잡고 돈벌이가 좋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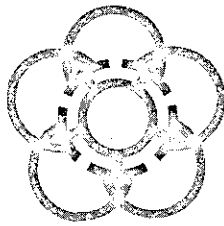
이런 분배과정에서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한 번은 어떤 선주(船主)가 자기 몫의 소고기를 들고 캄캄한 백사장을 달리다가 넘어져 들고 있던 소고기를 놓쳤다고 한다. 남보다 빨리 배에 도착해서 뱃고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에 어둠 속에서

놓친 소고기를 찾느라 더듬다 보니 물경하고 소고기 같은 것이 손에 잡히니까 확 인도 하지 않고 그 고기를 들고 배에 달려갔는데 그 고기는 죽은 고양이였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다.

또한 '난몽태'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소고기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칼잡이들이 쇠가죽마저 불에 그슬려 마을 호수(戶數)대로 똑같이 몫을 나누는 과정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슬쩍슬쩍 소고기를 훔쳐먹을 때 혼내는 것을 두고 '난몽태'라 하였다. 어원은 확실치 않지만 배고프던 시절에 생겼던 말이고 풍속이었던 것 같다. 정성과 해학이 깃든 당산제(堂山祭)를 모시고 마을사람들은 분배받은 소고기로 정월 초하루 날 각자의 조상에게 차례를 모시며 가족의 안녕과 풍년을 빌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누동리의 당산제(堂山祭)는 오로지 마을의 안녕과 풍어만을 기원한 것이 아니라 당산제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의 대동단결(大同團結)을 꾀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은 옛 풍습 그대로 당산제를 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동리에서는 해마다 선달 그믐날에 소머리를 췌상에 놓고 간소하게나마 당산제(堂山祭)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마침 태안문화원에서도 독특한 풍속을 간직한 누동리 당산제(堂山祭)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20만원 정도의 제물 값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언젠가는 옛 모습 그대로 당산제(堂山祭)를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과거사는 참여정부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조종식 _ 태안문화원 이사

• < 목 차 > •

- I. 철통같이 수호한 동해바다
- II. 한일회담 수교사 정부의 책임은?
 마침내 일본의 주장 경제협력금으로!
- III. 일본 정부의 보상 제시를 반대하고 한국정부의 일방타결
- IV. 태평양 전쟁 피해 희생자들의 한일외교문서공개 행정소송제기로
 대일청구권 관련자료 공개하라는 첫 판결 외교부에 승소
- V. 한일협정 문서공개 중요자료(1권)
- VI. 10년이 경과하면서 소수 회원으로 대일청구소송 진행
- VII. 추모사업의 필요성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과거사는 참여정부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I. 철통같이 수호한 동해바다

1948년 정부수립으로 초대대통령으로 취임한 李承晩은 같은 해에 동해바다에 평화선(이승만라인)을 공포하여 일본의 어로작업과 기타활동을 저지시킨 것이다. 반일 반공을 국시로 출범한 제1공화국정부는 1948년 10월에 초대 대통령으로 처음 비공식적으로 일본정부의 요시다 총리를 방문하였고 2차로 1951년 3월에 비공식으로 요시다 총리를 방문 면담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귀국하였다. 당시의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거액청구에 수긍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외교비화가 전해지고 있다.

II. 한일회담 수교시 정부의 책임은? 마침내 일본의 주장 경제협력금으로!

- ① 정부는 한일회담 시 일본의 희생자 직접 보상을 주장(일본은 5차회담시 철저한 기록장으로 주장해 남김)을 버리고 국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징용자 미불임금(전상사 2,000불, 사망자 1,650불, 생존자 200불) 등을 제시·요구하면서 무당 3억불 속에 결국 일본기업들의 책임까지 면제 시키고 우리 정부가 해결키로 했다.
- ② 그러나 정부는 피해희생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대가

인 정해진 노임과 월급 등 미불임금 등 미불임금 중 채권 채무를 해결한 것이 지 일본의 불법적 행위와 정신적 피해배상 등 일본의 반인도적 만행에 대한 책임은 일본이 져야한다는 것을 2005.8.23일 내외신 기자들께(한일 회담 수교 문서 전면 공개) 공개했다.

- ③ 또한 한일회담 시 피해 및 희생자 문제는 1945. 8. 15. 이전으로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 귀환자 (포로수용소 등)일본군대와 위안부 후카시마루호 폭침사건, 원폭피해사건, 사할린 동포 등의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아니한 온전한 책임이 일본정부에 남아있음을 우리나라 정부는 분명히 했다.
- ④ 이에 정부가 이번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한일회담 시) 일본으로부터의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약속이행으로 도덕성 회복과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희생자들이 정부에 대한 보상 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혜나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고 있다.

Ⅲ. 일본 정부의 보상 제시를 반대하고 한국정부의 일방타결

1952년 1차 한일회담의 효시로 13년에 걸쳐 7차 회담으로 한일협정은 마침내 일본의 오히라 한국의 김매모(김종필)로 막을 내렸다.

우리 국민들은 다같이 역사를 상기하여야 한다.

특히나 올해는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광복60주년, 한일협정40주년이다.

요즘 시류를 살펴본다면 '지난 세월은 병이요 밝은 내일은 약' 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밝혀야 한다. 우리가 다 같이 상기할 사항이라면 조선조 선조 때에 임진왜란 일본 풍신수길의 침략으로 1차 평란 후 정유재란을 당하여 평정시킨 후 다음해 3월에 일본에 선결사를 파견하여 조선인 포로 5만여 명 중 1년여에 걸쳐 일본에 체류하면서 8천여 명의 생활조치로 일본과의 후속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288년 만에 한국 재침략으로 우리민족의 원한인 휴전선으로 국토를 분단시켰다.

IV. 태평양 전쟁피해 희생자들의 한일외교문서공개 행정소송제기로 대일청구권 관련자료 공개하라는 첫 판결 외교부에 승소

① 대일외교에 진술인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눈치만 보고 숨겨온 대일업무 유족단체들은 일본에 국제 재판을 제기하면서 외교부에 방문 및 민원을 제기해도 사절, 은닉, 합구로서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로 시간을 보내 버렸다.

② 한일 협정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강제위안부등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일협정외교 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14년 동안이나 대일청구소송 끝에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외교부에 문서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외교부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악화된다하여 전면 거부하였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김영호)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공개되는 문건은 1952년 1차 회담 때부터 1965년 7차 회담 때까지 13년간 한일양국이 논의한 내용 중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측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협정의 합의내용과 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고령이라 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시한도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협정이 된 지 오래 되어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③ 뻔뻔 무정한 외교부는 문서공개를 거절하고서 항소제기

지난 2004. 8. 13.~8. 25까지 13일간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원들이 외교부 앞에 문서 공개할 것을 선언하여 계속 시위를 한 결과 외교부는 문서를 공개 발표하였다.

V. 한일협정 문서공개 중요자료(1권)

- ① 서울연합 뉴스팀 2005.8.17정부는 청구권 관계자료 회의록 정부보고 및 훈령 등을 담은 한일회담 문서집을 공개했다. 1-4권 수록된 주요내용을 간기한다.
- ② 한국의 대일 청구권의 8개 항목에 대한 한일양국입장에 대한 대조표 1963년 (1권)

한국이 일본에 제시할 피 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군인 군속 노동자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강제 동원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산정 기준은 사망·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 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한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 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 자료를 이용했다.

피동원자 수 - 군인군속 노무자

구 분	한국측 자료	미국측 자료	일본측 자료
생존자	648,081	282,000	930,082
사망자	12,603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	25,000
계	667,684	365,000	1,032,684

금 액

구 분	금 액	금 액
생존자	1인당 200불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2,650불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5,000불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③ 한일협정 문서공개 중요자료(2권)

6차 한일회담 및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 협력문제(1964)

대일협상 우리나라 안(P5-9) 북한 내용 포함

*1964년 3월 11일 기한 청구권 문제 중 원칙문제에 관한 훈령

*일반청구권 문제에 관한 훈령

일본은 미화 3억 달러치의 생산물 및 용역을 협정효력발생 10년 내에 무상제공 하는 한편 2억 달러의 차관을 효력발생, 10년 내에 제공하되 지불기한은 6년까지 단축가능하다.

일본은 1억 달러의 상업차관이 일본국민에 의해 한국정부나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한일양국은 협정체결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A항 및 B항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을 인증한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그로 인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 교섭을 통해 확인한다.

정부차관은 20년을 상환기간으로 하되 최초 7년간은 거치기간으로 한다.

이번 협정에 의한 청구권 해결이 북한지역 청구권까지 포함하는가 여부는 협정문에 명문화 하지 않는 대신 양국정부가 적절한 설명으로 자국민을 납득시킨다.

④ 한일협정 문서공개 중요자료(3권)

제7차 회담 청구권 관계회의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1 1965 3,18-4,3까지 교섭)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주일대표부)전보: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명분이 설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65년 3월 27일 18:00 p1612)

비서관:외무부장관(공보관) : 외무부 윤천공보관 명으로 30일 가조인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3월 21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사 데스크와 접촉하여 김:오히라 메모 사실상 백지화 하는 표제로 대대적인 pr을 하시기 바랍니다.

(65년3월29일)10:16분p1619차관:외무부 장관(전보)대일 청구권 문제 PR문제 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고위층과 협의하였습니다.

현 단계에서 김·오·히·라 메모의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PR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파문으로 오해를 야기 시킬 염려가 있음에 비추어 1억불 이상을 3억불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청구권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였다는 식으로 PR함이 좋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PR하는 점에 관하여는 신중 검토 후 결정코자 하오니 양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65년 3월 30일 09:55) P1620

VI. 10년이 경과하면서 소수 회원으로 대일청구소송 진행

1993년 3월에 일본 도쿄대학 교수(다카시)는 일본 도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강제징용동원자 명부를 발견 . 당시의 신일본제철에서 강제 노동했던 유족 18인에게 연락되어 유족들은 현재 답사 확인 결과 미국함대의 함포 사격을 당하여 공장 전체가 소실되어 전원이 사망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당진군에 거주하는 홍용선씨와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276 조세호씨는 검푸른 동해바다를 이웃처럼 향진하여 일본법정에서 유해반환 사망자의 위로금 공탁금 반환 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VII. 추모사업의 필요성

- ① 광복60년이 되도록 역사의 그늘 속에서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원혼이 고향산천을 기다리고 있다. 그간에 역대 정권이 너무나도 무심하였다.
- ② 이스라엘 2차대전 민족기념관이 2004년 4월에 독일 베를린에 준공되었다. 군국주의에 발광하는 일본정부는 태평양 전쟁 원흉 도조내각 10명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였다.
- ③ 일본정부는 1948년의 한국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21,181위를 합사시켰다. 그러나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곳에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5번지 문창녹씨가

1944년 사이판에서 전사자로 합사되었다.

④ 우리 지역 관내의 광복 60년에 원한이 맺힌 사망자의 명단을 기록한다.

일본후생성 발표 조선인 군인군속 징용 사망자명부 (40-20)호

성명	창씨	친권자	사망월일	사망지역	주 소	직종
김일제 (金一濟)	金城	김형자 (金亨子)	1944. 6. 19 전사	필리핀 민나군도	근흥면 용신리 83	해군
이중근 (李重根)	崇川	부연택 (父淵宅)	"	"	태안읍 삭선리 580	"
김창규 (金昌圭)	金村	부동태 (父洞泰)	"	"	이월면 내리 670	"
최창환 (崔昌喚)	山本	연식 (鎭式)	1945. 6. 10 총관통사	북해도스즈지구	근흥면 가의도리 805	"
이기철 (李起哲)	松山 昌男	부창의 (父昌儀)	1945. 7. 20 전체투하총격상	민나도	소원면 소근리 470	"
문창록 (文昌錄)	南平	부은석 (父銀錫)	1943. 1. 25 전사	기루한도	원북면 방갈리 55	"
명태진 (明台鎭)	明元	부장백 (父長伯)	1944. 12. 17 전사	"	근흥면 정죽리 528	"
이병규 (李柄奎)	國本	처상례 (妻相禮)	1945. 6. 15 전사	"	소원면 파도리 172	"
김성중 (金聲中)	金光	강호 (康浩)	1945. 7. 20 전사	"	안면읍 창기리 136	"
정동윤 (鄭東崙)	草乃	처순례 (妻純禮)	1944. 11. 20 전사	"	남면 양잠리 949	"
김종희 (金鍾熙)	大安	부영기 (父榮基)	1945. 4. 20 전사	도라구도	남면 원청리 400	"
김남두 (金南斗)	大安	부장석 (父丈昔)	1944. 3. 10 전사	사이판도	남면 원청리 392	"
정정웅 (鄭正雄)	尊乃	처순정 (妻順貞)	1944. 6. 13 전사	"	남면 양잠리 938	"
가재운 (賈在輪)	西具	부공효 (父恭孝)	"	"	남면 몽산리 828	"

성명	창씨	친권자	사망월일	사망지역	주 소	직종
정동남 (鄭東南)	菊村	조부고균 (祖父古均)	1944. 6. 13 전사	사이판도	남면 신장리 415	해군
이광의 (李光儀)	完山	부공효 (父公孝)	"	"	남면 달산리 692	"
조명호 (趙明濩)	檜谷	처옥례 (妻玉禮)	"	"	남면 달산리 309	"
정동창 (鄭東昌)	尊乃	처영례 (妻永禮)	"	"	남면 몽산리 51	"
이광순 (李光順)	國本	처광복 (妻光福)	1944. 11. 15 전사	기루한도	안면읍 승언리 169	"
오동철 (吳東哲)	吳洋	처득수 (妻得水)	"	"	안면읍 승언리 76	"
설근영 (薛根榮)	三元	모옥열 (母玉烈)	"	"	근흥면 정죽리 230	"
박철근 (朴啓根)	耕川	처인자 (妻仁子)	"	"	근흥면 정죽리 262	"
이재우 (李栽雨)	松田	모병열 (母炳烈)	1943. 11. 25 전사	"	근흥면 정죽리 103	"
최태형 (崔太淳)	山本	부장재 (父丈才)	"	사이판	근흥면 정죽리 783	"
지창흠 (池彰新)	北田	부항균 (父恒均)	"	"	근흥면 도황리 949	"
오진갑 (吳晉甲)	吳田	처광준 (妻光濬)	1944. 6. 15 전사	"	근흥면 정죽리 524	"
정남동 (鄭南鐘)	菊村	부석산 (父石山)	"	"	근흥면 정죽리 663	"
유국태 (楡國泰)	楡田	부득상 (父得相)	"	"	근흥면 정죽리 738	"
이강원 (李鈺元)	德田	자동일 (姉東一)	1945. 4. 20 전사	도라구도	원북면 동해리 457	"
이현운 (李鉉允)	公山	처희자 (妻熙子)	"	"	원북면 동해리 182	"
표병계 (表炳弟)	藍田	처정철 (妻貞哲)	"	"	원북면 동해리 457	"

성명	창씨	친권자	사망월일	사망지역	주 소	직종
고규상 (高圭常)	慈山	부병익 (父炳翼)	1945. 4. 20 전사	기루한도	근흥면 정죽리 50	해군
유광엽 (柳光葉)	柳川	형창화 (兄昌燾)	"	"	태안읍 동문리 585	"
김원정 (金元定)	金川	처사옹 (妻사옹)	"	"	태안읍 동문리 559	"
김만순 (金萬順)	金澤	처명근 (妻明近)	1943. 11. 25 전사	"	태안읍 남산리 832	해군 군속
가경로 (賈慶魯)		부동원 (父東元)	"	"	태안읍 상옥리 27	"
이장성 (李長成)	松本	부공영 (父公永)	"	"	태안읍 인평리 802	"
가학로 (賈鶴魯)	西具	부동원 (父東元)	1943. 9. 29 전사	구루구도	태안읍 상옥리 582	"
변금주 (邊金柱)	昌原	모재수 (母裁壽)	"	"	태안읍 도내리 681	"
조병진 (趙炳珍)	平原	모광숙 (母光淑)	1944. 6. 15 전사	사이판	태안읍 남문리 584	"
가자로 (賈子魯)	蘇本	부병두 (父秉斗)	"	"	태안읍 인평리 73	"
최택후 (崔宅俊)	山村	처정숙 (妻貞淑)	"	"	태안읍 평천리 27	"
한동석 (韓東錫)	佳山	처옥열 (妻玉悅)	"	"	태안읍 남문리 293	"
안충무 (安忠戊)	安田	부령 (父寧)	"	"	태안읍 남문리 300	"
조윤환 (曹潤煥)	平川	처신출 (妻申出)	1943. 9. 29 전사	사이판	태안읍 인평리 427	"
홍상실 (洪相實)	古林	형상순 (兄常順)	1944. 6. 15 전사	"	태안읍 인평리 65	"
최창덕 (崔昌德)	山本	부형환 (父亨煥)	"	"	태안읍 남문리 339	"
윤복순 (尹福順)	坡平	부방두 (父方斗)	"	"	태안읍남산리561	"

성명	창씨	친권자	사망월일	사망지역	주 소	직종
가황구 (賈黃九)	西州	부영건 (父永建)	1944. 6. 15 전사	사이판	태안읍 인평리 453	해군
황후영 (黃後英)	永井	치모정 (妻募貞)	"	"	태안읍 상옥리 450	"
전세돈 (田世敦)	田中	치화영 (妻花永)	"	"	태안읍 인평리 548	"
김경천 (金慶天)	金海	치덕례 (妻德禮)	"	"	태안읍 인평리 596	"
이복만 (李福萬)	松田	매복례 (妹福禮)	"	"	소원면 법산리 251	"
정기돈 (鄭基敦)	靑山	부순성 (父順成)	1945. 6. 7 전사	오후로스	소원면 모항리 542	"
허 선 (許 銑)	岩村	치총아 (妻總我)	1944. 6. 20 전사	"	원북면 이곡리 23	"
김종두 (金鐘斗)	金城	부영덕 (父永德)	1945. 1. 9 전사	태만고웅층	남면 신장리	"
조원상 (趙元相)	忠夫	부한길 (父漢吉)	"	"	원북면 장대리 484	육군
강영주 (姜榮柱)	姜本 次郎	치명화 (妻明和)	1944. 5. 17	도꼬만	태안읍 동문리 501	"
손형국 (孫형국)	孫元 次郎	치교루 (妻교루)	1944. 6. 15	사이판	안면읍 승언리 609	"
김이수 (金二洙)	金光	치제순 (妻梯順)	1944. 6. 15	"	소원면 시목리 452	"
김병선 (金炳銑)	金川	치계숙 (妻啓淑)	1945. 3. 15	동부뉴기니아	태안읍 동문리	"
김강팔 (金康八)	金本	형강진 (兄康眞)	1944. 12. 10	홍콩만	근흥면 정죽리	"
김동술 (金鐘述)	金城	희곤 (熙坤)	1945. 4. 20	규슈만	원북면 신두리 252	"
이팔손 (李八孫)	崇川		1945. 8. 15.	일본 자하현	원북면 대기리 572	징용
윤세일 (尹世一)	茂松		1944. 4. 17.	"	원북면 대기리 340	"

성명	창씨	친권자	사망월일	사망지역	주 소	직종
조상호 (趙祥鎬)	平原	재욱 (載郁)	1945. 7. 14.	가마이시제철소	원북면 대기리 272	징용
손준목 (孫俊穆)	蜜東		1945. 7. 14.	가마야시제철소	안면읍 정당리	"
이종순 (李鍾順)	國本		1944. 4. 20.	차하현 탄광	원북면 청산리 252	"
이봉순 (李鳳順)	"		1944. 4. 17.	"	원북면 홍촌리 370	"
박두선 (朴斗先)	木村	두병 (斗秉)	1944. 4. 20.	"	소원면 소근리 48	"
박성춘 (朴成春)	"	홍열 (弘烈)	1944. 4. 17.	"	태안읍 남산리 275	"
안종희 (安鍾熙)	安田		1944. 3.	사하린 북부탄광	이원면 관리	"
최승환 (崔承煥)	山本	영환 (永煥)	1944. 3.	북해도 스키마비행장	고남면 고남리 250	"
금병대 (琴秉大)	琴山		1944. 8. 10.	차하현탄광	이원면 관리 74	"
김득봉 (金得鳳)	金城		1945. 8. 7.	사하린 북부탄광	원북면 반계리 59	"

불력(佛力)으로 왜구(倭寇)를 몰아내다

김영규 _ 태안문화원 이사·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 목 차 > •

- I. 은은히 들려오는 산사의 종소리
- II. 설담스님의 유년시절
- III. 관세음보살님의 출현
- IV. 배필을 만나게 해 주리라
- V. 혼례식을 올리다
- VI. 부부의 세연(世緣)이 다하다
- VII. 천도재를 지내다
- VIII. 삭발하고 스님이 되다
- IX. 운수행각에 나서다
- X. 형제암을 짓다
- XI. 왜구가 침입하다
- XII. 토성산성의 전투
- XIII. 불력(佛力)으로 왜구(倭寇)를 몰아내다

佛力으로 倭寇를 몰아내다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토성산(吐城山)에 백제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터와, 대왕산(大旺山)기슭에 형제암(兄弟庵) 절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신화 같은 전설을 지닌 비극적인 옛 이야기들이 지금도 구전되어 동네 사람들이 실화처럼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고려 말엽의 일이다. 고려군이 왜구를 막기 위하여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무용담과 이때 불력(佛力)으로 외침을 물리쳤다고 하는 한 토막의 불교 설화(說話)이다.

I. 은은히 들려오는 산사의 종소리

온 대지가 퐁퐁 얼어붙었던 엄동설한도 봄이 되면 하는 수 없이 물러가는 것이 우주질서라 할까. 전신이 얼음장같이 굳어지는 것 같은 추운 날씨도 이제 우수 경칩이 지나니 만물은 양기를 받아서인지 서서히 생기가 흐른다.

그토록 잔혹한 추위에 정녕 봄이 발 디딜 수 있을까 싶더니만 어느새 언 땅이 슬슬 녹기 시작하는 이른 봄철이다.

이 세상의 모든 풀과 나무들은 전부 땅을 의지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간다. 이와 같이 대왕산 양지 바른 곳에서는 새싹이 살며시 머리를 내밀고 마른 나뭇가지에서 작은 봉오리가 하나 둘씩 파릇파릇 맺기 시작하여 새싹이 돌아나는 소리, 새의 지저귀, 훈풍의 감미로움,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묘한 법음(法音)으로 들려온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부처님의 설법으로, 시냇물을 흘러내고 있는 산은 우주의 주인이며 진리의 청정한 몸인 법신(法身)인 것이다.

이 솔바람 시내 물소리는 부처님의 무정설법(無情說法)이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 그대로가 전부 진리 그 자체 법신인 것이다.

새싹의 찬란한 빛과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등 자연계의 온갖 소리가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약동과 합창소리가 손에 잡힐 듯 하다.

溪聲便是長廣舌
 계성변시장광설
 山色豈非淸淨身
 산색기비청정신
 夜來八萬四千偈
 야래팔만사천계
 他日如何舉似人
 타일여하거사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부처님의 장광 설법이니
 산 빛이 그대로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지난밤 설해진 팔만사천의 법문을
 뒷날 그 누가 있어 이 소식을 보일 수 있으리요

일찍이 당나라 시인 소동파(蘇東坡)는 산천초목들의 무정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비밀장을 열었는데 언제쯤 옛 시인처럼 귀가 활짝 열려 대자연의 설법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밤도 자정이 넘었다.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이 시각에 대지를 향해 저 평화의 눈을 반짝이고 있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고요히 이 지구상에 있는 삼라만상을 내려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 한밤 어디선가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산사의 종소리는 이른 봄 새벽 공기를 뚫고 울려 퍼지며 은은히 들어오고 있었다. 이 종소리는 일체의 지옥중생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담긴 간절한 소원인 것이다. 푸른 소나무 뒤덮인 암자에 오는 사람 없고, 때때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들으며 참선 삼매에 들어야 할 곳에서 염불소리가 들려온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왜구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 땅에 무고한 양민들이 흉악무도한 왜구들에게 처참하게 살육 당하고 있으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애절하고 지극한 정성을 담은 염불소리에 비록 무정물인 산천초목이라도 감동하지 안할 수 없고, 이 기도소리는 살아 숨 쉬는 중생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기도, 바로 피맺힌 절규였다. 이 염불소리는 형제암에서 설담스님이 100일 기도에 들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태민안과 왜구과 맞서 싸우다 산화한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염불소리였다.

II. 설담스님의 유년시절

설담스님이 세속을 떠나 출가하기전의 어린 시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기구한 운명으로 가난한 천민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속명은 박흥인이라 불렀다. 겨우 열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괴질에 걸

러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주일도 안되어 어머니마저 갑자기 운명하셨다. 이렇게 불시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 흥복과 함께 화순이란 마을에서 가난에 쪼들리면서 외롭게 살고 있었다.

사고무친인 이들 형제는 선천적으로 성품이 착하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의좋은 형제로 온 고을에 칭송이 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이들 형제의 알곳은 운명은 그들 형제의 행복을 그냥 놓아두질 안 했다. 흥복이가 겨우 열여섯 살 되던 해 가을이다. 때는 추수할 때라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의 개울에 실족하여 쓰러져 정신을 잃고 의식불명이 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다.

흥인은 몸 둘 바를 몰랐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이게 무슨 난데없는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아니다 좌이대사할 수 없다. 이렇게 실망하여 한탄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기는 기회다. 흥인은 이제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야겠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또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다.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심 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지 꼭 내 동생을 살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불러 치료도 해보고, 좋다는 약이면 천리를 멀다않고 전국의 방방곡곡의 심산유곡의 깊은 산을 뒤희며 약을 캐다가 정성껏 치료와 간병을 했으나 백약이 무효로, 꽃다운 나이 흥복은 미처 피지도 못하고 애처롭게도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제는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흥인의 형편으로는 감히 염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인심 좋은 동네 사람들의 협조로 토성산 양지 바른 곳에 후하게 장사를 지내 주었다.

흥인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나를 혼자 두고 떠나가다니 하늘도 무심하여라. 하늘을 원망하며 며칠동안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앞날이 캄캄했다. 이제는 목이 쉬고 눈물도 말랐다. 홀로

남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살 길에 막막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동생 잃은 슬픔은 가슴이 터지고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은 이어지고 자나 깨나 날이 갈수록 쓸쓸한 외로움은 뼈에 사무치고 초조하여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냈다.

그는 사색에 잠겼다.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골몰히 생각했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구차스럽게 생각되었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루하기만 했다. 아침이 오면 어서 저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달 밝은 밤이면 달을 바라며 탄식하고, 봄이 되어 진달래꽃이 만발하면 미처 피지도 못하고 죽어간 동생을 생각하고 피눈물 나도록 흐느껴 울었다.

가을 밤 낙엽지는 소리에 더욱 인생무상을 느끼기도 했다. 흥인은 살 의욕조차 잃고 더군다나 없는 살림에 가세는 점점 기울어 조반석죽의 끼니마저 잇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음만은 착하여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들의 굶은일을 내 집 일처럼 도우며 틈나는 대로 멀리 떨어진 산사에 올라가서 법당의 부처님 앞에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선망 부모님과 어린 동생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눈물을 짓거나 외로움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Ⅲ. 관세음보살님의 출현

오늘도 해는 저물었다. 몸은 쇠약할 때로 허약해져 글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했다. 그 모습을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인심 좋은 동네 이웃사람들의 온정으로 겨우 미음을 마셨으나 앓아 있을 기력마저 잃고 초저녁부터 억지로 잠을 청하였으나 잠은 오지 않아 전전반측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 앞마당 한 가운데에 큰 연꽃 한 송이가 솟아오르더니 그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홀연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별안간 온 천지가 휘황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고 관세음보살의 몸에서 영롱한 서광이 온 누리를 비쳤다.

젊은이여! 이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태어날 때 혼자 왔으니 죽을 때에 혼자 가는 것이요. 이 사바세계는 고통의 바다이거늘 어찌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이 없기

를 바라는가? 그대는 지금부터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을 독송하기 바라오. 쉬지 말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 경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佛告無盡意菩薩，善男子，若有無量百千萬億眾生，受諸苦惱，聞是觀世音菩薩，一心，稱名，觀世音菩薩，即時，觀其音聲，皆得解脫。

살, 일심, 칭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음성, 개득해탈.

若有持是觀世音菩薩名者，設入大火，火不能燒，由是菩薩，威神力故，

약유지시관세음보살명자, 설입대화, 화불능소, 유시보살, 위신역고,

若爲大水所漂，稱其名號，即得淺處……，

약위대수소표, 칭기명호, 즉득천처……，

若有眾生，多於婬欲，常念恭敬觀世音菩薩，便得離欲，若瞋恚，常念恭敬觀世音菩薩，便得離瞋，若多愚癡，常念恭敬觀世音菩薩，便得離癡，

음보살, 변득이진, 약다우치, 상념공경관세음보살, 변득이치,

無盡意，觀世音菩薩，有如是登大威神力，多所饒益，是故眾生，常應心念。

무진의, 관세음보살, 유여시등대위신력, 다소요익, 시고중생, 상응심념.

若有女人，設欲求男，禮拜供養觀世音菩薩，便生福德智慧之男，設欲救女，便生端正有相之女，宿植德本，眾人愛敬，無盡意，觀世音菩薩，有如是力。

생단정유상지녀, 숙식덕본, 중인에경, 무진의, 관세음보살, 유여시력.

若有眾生，恭敬禮拜觀世音菩薩，福不唐損，是故，眾生，皆應受持觀世音菩薩名號。

명호.

無盡意，若有人，受持六十二億恒河沙菩薩名字，復盡形，供養飲食衣服臥具

무진의, 약유인, 수지육십이억항하사보살명자, 부진형, 공양음식.의복.와구.
 醫藥, 於汝意云何, 是善男子善女人, 功德多不,
 의약, 어여의운하, 시선남자선여인, 공덕다부,
 無盡意言, 甚多, 世尊.

무진의언, 심다, 세존.

佛言, 若復有人, 受持觀世音菩薩名號, 乃至一時, 禮拜供養, 是二人福, 正登
 불언, 약부유인, 수지관세음보살명호, 내지일시, 예배공양, 시이인복, 정등
 無異, 於百千萬億劫, 不可窮盡, 無盡意, 受持觀世音菩薩名號, 得如是無量無
 무이, 어백천만억겁, 불가궁진, 무진의, 수지관세음보살명호, 득여시무량무
 邊福德之利

변복덕지리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 온갖 고뇌를 받는다 해도,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알아보고 다 고뇌에서 풀려나게 하나니라.

만약 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설사 큰 불속에 들어간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만약 큰물에 표류한 대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얹은데 닿게 되며…….

만약 중생이 있어 음욕이 많아도, 늘 관세음보살을 늘 생각하면서 공양하면 곧 음욕이 떠나게 되며, 만약 성내고 미워하는 일이 많아도, 관세음보살을 늘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만약 어리석음이 많아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해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이 떠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에는 이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 이익 됨이 많거니, 그러기에 중생들은 항상 마음에 염 할지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있어 아들을 얻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 지혜 구비한 아들을 낳게 되며, 만약 딸을 얻고자 하면 곧 아리따운 모

양의 딸을 낳아서 이 애가 전생에 심은 선근 탓으로 못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에는 이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이 있어 관세음보살을 공경 예배한다면 얻는바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무진이야, 만약에 사람이 있어 62억 항하사의 보살의 이름을 수지하고 다시 목숨을 다하도록 음식 의복 침구 약품을 공양한다면, 네 뜻에 어떠하냐. 이 선 남자 선녀인의 그 공덕이 적다하랴.

무진의 아뢰되,

매우 많다 하오리다, 세존이시어.

부처님이 이르시되,

만약 또 사람이 있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여 내지 한 때라도 예배 공경한다면, 이 두 사람이 얻을 복덕은 똑같아 조금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억 겁을 지난다 해도 다 하는 일이 없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무량·무변한 복덕의 이익을 얻으리라.”

고 하였으니 나는 이 경문과 같이 중생의 음성을 듣고 바로 사물의 본질을 보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판단하여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노라.

오랜 세월 동안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선망부모와 동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지 안했는가? 그 공덕으로 이미 서방 극락정토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미음을 놓아 주기 바라오. 이렇게 말하고는 홀연히 큰 연꽃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러나 비록 꿈일망정 현실과 똑같이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있으니 말이다.

IV. 배필을 만나게 해 주리라

오늘도 평소와 같이 큰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며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여 보게 젊은이 그만 진정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게나. 자네의 부모와 동생은 염불공덕으로 이미 극락세계로 왕생하여 그대의 소원은 성취하였으나 또 한 가지 소원을 나는 잘 알고 있소. 그대는 젊은 나이에 혼자 살기 어려우니 그대를 불쌍히 여겨 한 남자와 천생 배필의 인연을 맺어 주리니 오는 사월 초파일 날 밤 법당에서 만나게 해주리라. 그대는 진심으로 부처님을 섬기고 거룩한 법문을 읽고 틈나는 대로 참선공부를 열심히 하여라.

분명 꿈이 아니다. 이 말씀은 생생하게 내 귀로 분명히 들었다. 노총각인 흥인은 귀가 번쩍 띄었다. 간절한 소원을 부처님의 가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는 수백 번 부처님을 우러러 보며 예불을 올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불법은 이렇게 영험이 있어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대자대비로 보살피며 사랑하고,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씀하신다. 불법이란 이 세상에서 더 위없는 진리로구나. 금강경(金剛經)에서,

須菩提, 如來, 是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誑語者, 不異語者
수보리, 여래,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수보리아! 여래는 참말을 하는 자며, 살아 있는 말을 하는 자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며,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여 독송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먼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날 흥인은 날이 밝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재개를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절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음먹고 달려온 길이라 벌써 내 자신도 모르게 일주문에 들어가고 있었다. ‘나무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염불소리를 들으며 대웅전 옆문으로 들어가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예불

드렸다. 마침 오늘은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경내에는 연등을 달아 장엄하게 수를 놓고 많은 불자들이 운집하여 법요식이 시작되어 연불소리와 목탁소리가 깊은 산중에 메아리쳤다. 신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아기 부처님의 관불도 함께 거행되었다. 그러나 노총각인 흥인은 돈 한 푼 가진 것이 없어 연등하나 구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신 사찰 경내를 정돈하고 부엌에서 일을 돌봐 주었다.

해가 저물자 수많은 불자들은 행렬을 지어 각가지 연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장엄한 모습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를 방불케 했다.

법당 안은 밤이 되자 조용했다. 흥인은 법당에 나아가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부처님께서서 인연을 맺게 해 줄 여인을 마지하기 위하여 법당 한구석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니 일각이 여삼추처럼 느껴졌다. 밤은 이미 깊었는데 법당 옆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합장하고 천천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서더니 섬섬옥수로 향을 피워 향로에 꽂은 다음 그 자리에 엎드려 삼배를 올리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부처님이시어 아 ~ 소녀는 왜 이렇게 원통하고 괴롭습니까? 긴 머리 곱게 깎아 늘이고 옥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차려 입고 분과 연지로 곱게 단정한 남자의 용모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기도 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인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흥인은 한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흘렀다. 흥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남자가 초파일 전날 법당에서 부처님이 접지하신 자신의 배필이 될 사람임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무슨 말부터 해야 옳을 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남자 곁으로 다가가서 남자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머리 숙여 합장하고 그 사연을 물었다.

“남자는 어느 귀하신 집 규수이신데 이 깊은 밤에 성스러운 법당에서 이토록 슬피 우시는지요?”

묻고는 우선 자기 자신의 신분부터 밝혔다.

“저는 여기서 한참 떨어진 마을에서 사는 박흥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며칠 전에 어린 동생마저 다른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사고무친

한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밤 부처님의 인도로 아가씨를 기다리던 중이요, 죄송하지만 어서 억울한 사연을 말씀해 보시지요.”

하고 정중하게 물으면서도 흥인은 몹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다. 남의 처녀와 단 둘이서 서로 말을 주고받기란 난생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살며시고개를 들어 흥인을 바라보면서 입을 여는 것이었다.

“소녀는 윤금란이라고 하는 여인이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충충시하에 부처님을 신봉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부자 집 무남독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소녀의 집에 왜구가 침입하여 우리 일가족이 전멸하였습니다. 그들은 재물은 약탈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소녀를 욕보이려 하기에 발버둥치며 반항하다가 혀를 깨물고 자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원통하여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무주고혼이 되어 중유(中有)를 헤매며 갈 곳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이제야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현세 사람의 몸을 받고 환생하였습니다.”

흥인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여하간 남자께서는 부처님이 맺어 주신 나의 천정배필이오니 그만 울고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금란 아가씨의 손을 살며시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법당을 떠나면서 부처님께 고맙다는 예불을 드리고 큰절에서 나왔다.

그는 먼 길을 걸어 새벽 첫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화순 마을에 도착했다.

V. 혼례식을 올린다

흥인은 그 동안 신세를 많이 지은 동네 어른들과 이웃들을 찾아가서 어제 법당에서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게 된 사연을 소상하게 알려 주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 인심 좋은 이곳 사람들이 수수방관할 이 만무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경사를 동네잔치로 치르기로 하고 십시일반으로 곡식과 돈을 많이 거두었다. 이렇게 하여 사월 보름날 혼례를 치르기로 했다.

잡은 날은 빨리 온다더니 벌써 오늘이 혼례를 올리는 날이다. 날씨는 쾌청했다. 이른 새벽부터 화순 마을 남녀노소가 흥인이 사는 오막살이 초가삼간 주변을 꺾매왔다.

성대하게 초례상을 차려 놓고 잔치가 벌어져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즐겁게 놀았다. 어느 듯 해는 지나 잔치는 끝나고 동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신랑 신부는 신방에 들기 전에 부처님께 좋은 인연 맺어 주신데 대하여 밤새도록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신랑과 신부는 백년가약을 다짐하며 서로 껴안으며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헤어지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다.

금란 신부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신랑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백년해로할 것을 맹서하면서 이제 소녀는 낭군님과 정을 맺었으나 낭군님께서 저버릴까 근심되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로서는 너무 과분한 배필을 만났소. 이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을 것을 부처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오리다. 신부는 그 말을 듣자 너무 기뻐서 신랑의 품안에 얼굴을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신랑신부는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듯이 재미있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여 남의 집 품팔이 가서 일을 해도 마음은 집에 있는 아내 곁에 있었고 금이야 옥이야 자기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다.

어느 따뜻한 춘삼월이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남편이 모를 이 없었다.

“여보 오늘이 15일 아미타불재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미타불은 어떠한 부처님인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가피를 입은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 이르기를, 그 무렵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

고 마음에 기쁨을 품고 바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을 내어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어 법장이라 했다. 그의 재주와 용맹은 세상에서 뛰어났다. 세자재왕 부처님 처소에 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노래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다.

光顏巍巍, 威神無極, 如是燦明, 無與登者.
광안위위, 위신무극, 여시염명, 무여등자.
日月摩尼, 珠光燦耀, 皆悉隱蔽, 猶若聚墨.
일월마니, 주광염요, 개실은폐, 유약취묵.
如來容貌, 超世無倫, 正覺大音, 響流十方.
여래용모, 초세무륜, 정각대음, 향류시방.
戒聞精進, 三昧智慧, 威德無侶, 殊勝希有.
계문정진, 삼매지혜, 위덕무려, 수승희유.
深諦善念, 諸佛法海, 窮深盡奧, 窮其涯底.
심제선념, 제불법해, 궁심진오, 궁기에서.
無明欲怒, 世尊永無, 人雄獅子, 神德無量.
무명욕노, 세존영무, 인웅사자, 신덕무량.
功勳廣大, 智慧深妙, 光明威相, 震動大千.
공훈광대, 지혜심묘, 광명위상, 진동대천

“빛나는 상호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 그지없으니
이처럼 밝고 빛나는 광명 님이라서 감히 따라오리까.
햇빛과 달빛 여의주 빛 맑은 진주 빛 눈부시지만
여기에 온통 가려져서 검은 떡 덩이 되고 맙니다.
여래의 용모 뛰어나 시사 이 세상에는 짝할 이 없고
바르게 깨달은 이의 크신 소리 시방세계에 두루 들리네.
청정한 계율 다문과 정진 삼매의 큰 힘 지혜의 밝음

거룩한 위덕 짝할 이 없어 수승한 거동 처음 뵈옵네.
 여러 부처님의 맑은 법을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해
 끝까지 알고 속까지 뚫어 바닥과 주위에 두루 빛이네.
 캄캄한 무명 탐욕과 분심 우리 부처님 다 끊으시니
 사자와 같이 영험한 어른 거룩한 도덕 어떠하신지.
 크신 도덕과 넓은 공덕 밝은 지혜 깊고 묘하여
 끝없는 광명 거룩한 상호 대천세계 널리 떨치시네.”

또 무량수경에 이르기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열반하였습니까? 아직도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계십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현재 서방에 계시는데, 그 세계는 여기서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있어 이름을 안락이라 한다.”
 아난이 또 여쭙었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成佛已來, 凡歷十劫, 其佛國土, 自然七寶, 金銀 琉璃 琥珀 硨磲 碼磤,
 성불이래, 범역십겁, 기불국토, 자연칠보, 금은 유리 호박 차저 마뇌,
 合成爲地, 恢廓曠蕩, 不可限極, 悉相雜廁, 轉相入間, 光赫焜耀, 微妙奇麗,
 합성위지, 회곽광탕, 불가한극, 실상잡촉, 전상입간, 광혁훈요, 미묘기려,
 淸淨莊嚴, 超踰十方一切世界, 眾寶中精, 其寶猶如第六天寶, 又其國土, 無
 청정장엄, 초유시방일체세계, 중보중정, 기보유여제육천보, 우기국토, 무
 須彌山及金剛鐵圍一切諸山, 亦無大海, 小海 谿渠 井谷, 佛神力故, 欲見則現,
 수미산급금강철위일체제산, 역무대해.소해 계거 정곡, 불신력고, 욕견즉현,
 亦無地獄餓鬼, 畜生諸難之趣, 亦無四時 春, 夏, 秋, 冬, 不寒不熱, 常和調適.

역무지옥.아귀.축생제란지취, 역무사시 춘.하.추.동, 불한불열, 상화조달

“성불한 이래 10겁이 지났느니라. 그 부처님의 국토는 자연의 칠보인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차저 마뇌 등으로 땅이 이루어졌고 그 넓이는 광대하여 가히 끝이 없으며, 그 칠보는 서로 섞이어서 눈부시게 빛나 아름답고 화려하며 청정하게 장엄된 것이 시방의 모든 세계보다 뛰어난 곳이다. 그 보석은 모든 보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제6천의 보배와 같고 또 그 국토에는 수미산 및 금강철위 등 일체 모든 산이 없으며 큰 바다 작은 바다 시내 골짜기 우물 등이 없지만, 부처님의神通력으로 보고자 하면 즉시 나타나느니라. 또한 지옥 아귀 축생 등의 괴로운 경계도 없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시사철이 없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온화하고 상쾌하니라”

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하여 거침없이 대략 설명했다.

부인은 남편의 설명을 듣고 희색이 만면하여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합장하고 공순히 절을 올리면서,

극락세계는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극락이라 이름 하는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불이라 하며,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어떤 이유로 극락이라 이름 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답니다.

아마타경(阿彌陀經)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舍利弗，於汝意云何，彼佛何故號阿彌陀，舍利弗，彼佛光明，無量，照十方
사리불, 어여의운하, 피불하고호아미타, 사리불, 피불광명, 무량, 조시방
國，無所障礙，是故號阿彌陀，又舍利弗，彼佛壽命及其人民，無量無邊阿僧祇
국, 무소장애. 시고호아미타, 우사리불, 피불수명급기인민, 무량무변아승지

劫, 故名阿彌陀, 舍利弗, 阿彌陀佛, 成佛已來, 於今十劫
 겁, 고명아미타, 사리불,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십겁

“사리불이여, 그대는 저 부처님을 뜻은 이유로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비추어도 걸림이 없는 까닭에 아미타불이라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의 수명 및 사람들의 수명도 무량무변 아승지겁인 까닭에 아미타불이라 이름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아미타불께서는 성불하신지는 이미 10겁이 되느니라.”

이렇게 아미타경에 나온 서방극락세계를 찬탄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다짐했다.

이렇게 부처님의 인연으로 만나서 금실 좋게 가정을 이루고 산지 어언 2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들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어느날 남편은 부인에게 옥동자를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넋지시 말을 걸었다. 조용히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은 말했다.

“이것도 다 하나의 인연입니다. 어느 시기에 밝혀지겠지요.

Ⅶ. 부부의 세연(世緣)이 다하다

속절없는 세월은 그럭저럭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첫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무렵,

“낭군님! 이제 소첩의 처소로 가시지요.”

하며 부인은 남편을 깨웠다. 그리고는 오늘 있을 일을 미리 알리고, 그 동안 달콤한 보금자리를 떠나는 회포를 털어 놓았다. 갑자기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이에 부인은 냉수를 떠다가 머리를 적시고 미리 준비해 놓았던 구급약을 먹여 간신히 회생시켜 놓았다. 그리고는 한참 침묵의 시간이 흘

렸다.

부인은 울음을 그치고 침착한 태도로 남편에게 말하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줄이야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꿈에나 있을 일이지, 생시에 있을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 소첩이나 낭군님의 전생의 인연으로 생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지만 또 다시 만날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란 다름이 아니라. 죽든 살든 중요한 것은 염불밖에 없으니 왕생계(往生偈)를 외워 전하여 드리겠으니 이것만은 낭군님께서 주야로 잠시도 잊지 마시고 낭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그 공덕으로 살아서는 깊은 물에 빠지거나,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구제 받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환란을 당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살아생전에 불법을 잘 지키고 선업을 쌓으면 죽어서는 극락세계로 왕생합니다. 제 말을 꼭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願往生, 願往生, 願生極樂, 見彌陀,

원왕생, 원왕생, 원생극락, 견미타,

獲蒙摩頂, 受記別,

희몽마정, 수기별.

願往生, 願往生, 願在彌陀, 會中坐,

원왕생, 원왕생, 원재미타, 회중좌,

手執香花, 常供養,

수집향화, 상공양.

願往生, 願往生, 願生華藏蓮華界,

원왕생, 원왕생, 원생화쟁연화계

自他一時, 成佛道

자타일시, 성불도

“가서 나기를 원하고 가서 나기를 원합니다.

극락세계에 나리
 마정수기(摩頂受記) 얻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나기를 원하고 가서 나기를 원하옵나니
 미타회중(彌陀會中)에 앉아서
 손에 향불을 들고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나기를 원하고 가서 나기를 원하옵나니
 화장연화계(華藏蓮華界)에 나서
 내나 남이나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우기를 남편에게 거듭 간곡히 부탁드렸다.

잠시 후 남편에게 헤어져야 할 이유 즉 자기는 부처님의 가피로 사바세계의 사람의 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결혼했다는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어렵게 허락을 받아냈다. 이제 집을 떠나 길을 재촉하면서 둘이서 길을 걸었다. 아니! 자네 이른 새벽에 혼자 어디를 가는가? 길에서 만난 한 마을 사람이 묻는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었다. 물론 그들의 눈에는 홍인의 곁에 있는 여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홍인은 그저 빙긋이 웃으며 먼 산사에 볼 일이 있어서 일찍 출발한다고 만 대답했다. 몇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큰 절 아래 까지 도착했다.

이들 부부는 일주문(一株門) 앞에 이르러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절했다. 일주문에는 ‘入此門來 莫存知解(입차문래 막존지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글은 ‘일주문 문안으로 들어와서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세속의 온갖 번뇌로 들끓는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로지 진리에 귀의 하는 한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뜻이다. 현상면에 나타나는 것은 삼라만상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가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인 본질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둘이 아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반야(般若)와 번뇌(煩惱)가 둘이 아니며, 재가와 출가가 둘이 아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니요, 생사와 열반(涅槃)

이 둘이 아니다. 사찰의 산문 중에서 유독 일주문의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선 것일까. 그것은 속세의 번뇌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진리의 세계는 한 마음이어야 통한다. 그 마음이 쪼개어지고 나누어져 있을 때 삼매(三昧)는 생겨나지 않으며 삼매가 없는 수행이라면 결코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심을 깨달은 분이다. 일주문의 지붕은 대체로 다포계 맞배지붕 양식을 취하고 일주문 규모는 일주삼간(一株三間)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일주삼간의 뜻하는 바는 법화경의 회삼귀일(會三歸一)사상과 연관된다.

일주문을 지나 다시 청왕문(天王門)에 들어서니 갑옷에 투구를 쓰고 힘상곳은 얼굴로 칼이나 창 따위를 든 무시무시한 형상들의 사천왕(四天王)이 있었다.

그 중에 동쪽을 지키는 분은 자국천왕(持國天王)으로 그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면서 언제나 인간을 보살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하며, 온몸에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한편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增長天王)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온몸이 붉은색이며 오른손에는 용을 쥐고 있고 왼손으로는 용의 입에서 빼낸 여의주를 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또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廣目天王)은 응변을 통해서 온갖 나쁜 이야기를 물리친다는 뜻에서 입을 크게 벌린 것이 특징이다. 온몸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 손에는 창과 탑을 들었으며 악인에게는 고통을 주어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겠다는 서원을 지녔다고 한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多聞天王)은 어둠 속을 방황하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온몸에 검은색을 띠고 있고 손에는 비파를 들고 있었다.

세 번째 금강문(金剛門)에 이르니 왼쪽 밀적금강역사(密迹金剛力士)는 금강저(金剛杵)를 갖고 항상 부처님을 수호하는 야차신(夜叉神) 가운데 한 분이고, 그는 늘 부처님께 친근하기를 원하고 부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며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사적을 들으려는 원이 가득하다고 한다.

오른쪽 나라연금강역사(那羅延金剛力士)은 천상에 있는 역사의 이름으로 그 힘

이 코끼리의 100만 배나 되는 힘이 센 분이다. 주로 많이 보이는 역사는 밀적역사(密迹力士), 밀수역사(密修力士), 집금강신(執金剛神), 나라연금강(那羅延金剛) 등이다.

네 번째 불이문(不二門)에 들어서니 맞은편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이였다. 부처님은 나와 나, 중생과 부처, 미망과 깨달음, 생사와 열반 등 온갖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경지에 계신다는 사실을 공간적으로 상징해 놓은 것으로 그와 같은 경지가 해탈임으로 해탈문(解脫門)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사찰의 초입에 세워져 있는 일주문이 중생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불자들에게 세속의 번뇌를 벗어 버리고 오로지 진리를 구하는 한마음으로 들어올 것을 일깨워 주는 문이고, 청왕문이 거기에서부터 사천왕의 수호를 받는 청정도량임을 표시하여 몸가짐과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비해 불이문은 부처님의 세계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임을 나타내고 있다. 고 한다.

이들 부부는 불이문을 지나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께 합장하고 예불 드렸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부인이 안내하는 처소에 이르니 칠보로 장식한 대지위에 강당 정사 궁정 망루 등이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고, 나무의 높이는 4백만 리나 되고 칠보로 된 나무 가지 그 밑 주위는 50유순이 되며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20만리나 퍼지고, 보석과 보석이 서로 비추며 잘 조화되어 있고 아름다운 새소리는 법음을 전하고 있다. 황금의 못 밑에는 칠보의 모래가 있고 그 연못의 언덕 위에는 전단향나무가 있어 꽃과 잎이 드리워져 있고, 향기는 두루 퍼지며, 하늘의 우발라화 발담마화 구물두화 분다리화가 있어 서로 어우러진 빛이 아름답게 물위를 가득 덮고 있다.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며 아름답고 깨끗한 서방 극락세계이다. 기후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항상 온화한 곳으로 몸에 딱 맞는 기분 좋은 나라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비몽사몽간 서방정토에 와 있었다. 이 극락세계의 위치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간 곳에 있다고 하지 안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낭군님! 이제 세속의 연분이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집으로 돌아가 주

십시오. 행복했던 과거지사는 추억으로 간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에서는 '인연이 함께 모으면 생멸이 있고, 인연이 흩어지면 생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會者定離 : 회자정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지 벌써 세속의 5년이 되었습니다. 어서 인연의 법칙을 거역하지 마시옵소서 이제는 사바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낭군님! 제가 인연에 대하여 계송을 올리겠습니다.”

인연을 소홀히 하면
내생에 악연이 되어 다시 만난다.
오다가다 옷깃만 스쳐도 삼백생의 인연이요.
같은 좌석에 앉아 대화를 하면 오백생의 인연이요.
같은 술의 밥을 먹으면 칠백생의 인연이요.
같은 피를 나누면 구백생의 인연이요.
부부로 만나면 천생의 인연이다.
금생의 인연이 참으로 지중하니
어떠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원수도 인연이요.
은인도 인연이라.
어느 쪽이나 전생에 내가 뿌린 과보이니
감수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빛을 갚기 아니면 빛을 놓는 것이다.

계송을 마치면서 내일은 절에 가서 친척들이 모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과 저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천도재를 지낼 터이니 낭군님도 참석하여 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십시오. 남편 흥인은 어안이 병병했다. 부인은 사정을 짐작하고,

“그러면 내일 만나보기로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법당 안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던 찰나였다. 생각해 보니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참으로 희괴한 일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아니다. 꿈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흥인은 자기도 모르게 허벅다리를 힘껏 꼬집어 보았다.

하는 수 없었다. 아무도 반겨줄 사람 없는 허전한 오막살이에 돌아오니 밤은 깊었다. 이게 웬 일일까? 초가삼간은 폭삭 주저앉고 허물어져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집을 비운지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심야에 이웃집에 들릴 수도 없고 참으로 난처했다. 부득이 집 앞 논에 가서 추수한 벼짚을 모아 놓고 그 속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이 올 리 없다.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새벽 첫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목욕재개하고 어제 부인이 말 한대로 큰 절에 올라갔다.

VII. 천도재를 지내다

법당에는 이미 천도재를 지낼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마침 부인이 소복을 입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합장하고 있었다. 부인이 말하기를,

“이 못난 여인을 잊지 않고 배웅하러 오셨으니 더 없이 기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조금 지나면 떠날 시간이니 친족들이 주는 음식이나 흠향하고 가겠습니다. 어서 법당으로 들어가시지요.”

흥인은 부인에게 인도되어 법당에 들어가니 스님들이 도열하여 서 있고 처가의 친척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있었다. 일제히 큰 소리로 반야심경을 독송하기 시작했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어! 미처 피지도 못하고 꽃다운 어린 나이에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왜구에게 향거하다 자결한 이 어린 생명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극락왕생

을 비나이다. ‘나무아미타불…….’”

홍인도 부인의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한참 시간이 흘렀다.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

“이 몸은 사바세계를 하직하고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극락정토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왜구에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우리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도 저와 함께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저를 위하여 영가 천도재를 정성껏 지내 주신 큰 절의 스님들과 친척 여러분 그리고 낭군님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하시기를 빌며 성불 하십시오…….” 하고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차라리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VIII. 삭발하고 스님이 되다

이 순간 홍인은 크게 느낀 바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거니 사람의 태어남이 고통의 원인이요, 산다는 자체가 허망 하구나. 태어난다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뜬 구름이 흩어지는 것 같구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사복불언(蛇福不言)을 생각해 봤다.

一日其母死, 時元曉住高仙寺, 曉見之迎禮, 福不答拜而曰, 君我昔日馱經牒
일일기모사, 시원효주고선사, 효견지영례, 복불답배이왈, 군아석일태경자
牛, 今已亡矣. 偕葬何如, 曉曰諾, 遂與到家, 令曉布薩授戒, 臨尸祝曰, 莫
우, 금이망지, 해장하여, 효왈낙, 수야도가, 영효포살수계, 임시죽왈, 막
生兮其死也苦, 福曰詞煩, 更之曰, 死生苦兮…….

생혜기사야고, 복왈사번, 갱지왈, 사생고혜

“어느 날 사복의 어머니가 죽었다. 그때 원효(元曉)가 고선사(高仙寺)에 머물

고 있었었는데, 사복을 보고는 맞이하여 예를 올리니, 사복은 담배를 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옛날 불경을 신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함께 장사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원효가 승낙하자 함께 집에 이르러 원효로 하여금 포살수계(布薩授戒)를 하도록 하였다. 원효가 시체 옆으로 가서 말하기를 ‘나지 말지어다, 죽기가 괴롭도다. 죽지 말지어다. 태어나기가 괴롭다’ 하니, 사복이 말하기를 ‘말이 번거롭다’ 하고는 다시 ‘죽고 사는 것이 괴롭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망연자실했다. 집에 돌아가자니 초가삼간마저 허물어진데다 반갑게 맞아줄 사람도 없으니 글자 그대로 사고무친이요 혈혈단신이였다.

하는 수 없이 흥인은 이 절에 머물면서 산에 가서 땀감을 해오고 채마밭에 가서 기음을 매고 부엌에서 채공노릇도 하는 등 갖은 울력을 했다. 그리고 틈틈이 스님들과 같이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 절에서 머무르기 어언 반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흥인 비록 속인이지만 마음씨 좋고 올바르게 생활하는 모습은 수행자의 모범이 되었다.

어느 날 영운 큰 스님께서 흥인을 조용히 불렀다. 자네는 불심이 돈독하고 참선한 경력도 있으니 이제는 삭발할 때가 되었으니 무명초(無明草 : 머리털)를 깎아버리시지요. 흥인은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바로 영운 큰 스님을 계사로 하여 범명을 설담이라 하고 이날부터 속세와 인연을 끊었다. 이렇게 불도에 입문하는 절차는 간소하게 끝났다.

불교에 입문하여 초심자가 읽는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을 읽었다. 여기에는 내가 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제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기록 되어 있었다.

설담스님은 본격적으로 참선도 하고 염불과 경전공부를 열심히 하며 비장한 각오로 수도 정진했다. 밤에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허벅다리를 찌르면서 수마를 물리치고 때로는 시퍼런 칼끝을 턱에 괴고 무(無)자 화두를 잡고 좌선했다. 그러나 지난 세속의 환상들이 지워지지 않아 선정에 드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어느 날 영인 큰스님께서 불제자들 앞에서 연기법(緣起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노승과 여러 젊은 수도승들의 만남도 인연이요, 이 연기법을 강의를 하고 듣는 것도 바로 인연입니다.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던, 오시지 않던 항상 법계에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잡아함경(雜阿含經卷 15)에 이르기를,

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차유고피유 차생고피생 차무고피무 차멸고피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죽으므로 저것이 죽는다.”

이 말은 가령 두 막대기가 서로 버티고 섰다가 이쪽이 넘어지면 저쪽이 넘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일체 만물은 서로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어서, 하나도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 깊은 진리는 부처님께서 크게 외치신 연기의 법칙이니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쪽을 해치면 저쪽을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습니다.

“남을 해치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알면 남을 해치려 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매한 중생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해치며 날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내가 살고 싶거든 남을 돕고,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길 밖에 없습니다.”

라고 연기법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셨다.

나는 굳게 다짐했다. 진리를 깨달아 생사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세속을 등지고 입산하였거늘, 이제 와서 절대로 초심을 버리고 후퇴할 수는 없지 않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나는 선정에 들기 전에 금강경의 한 구절을 꼭 외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何以故, 須菩提, 如我昔爲歌利王, 割截身體, 我於爾時, 無我相, 無人相, 無
 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위가리왕, 할절신체, 아어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
 衆生相, 無壽者相, 何以故, 我於往昔節節解時, 若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어왕석절절해시, 약유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應生瞋恨.

응생진한

“왜냐하면 수보리아! 그것은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잘림을 당하였을 적에 나는 그 때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내가 옛날에 마디마디 잘림을 당했던 그 때에, 내가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나는 분명코 분노와 미움을 냈으리라.”

나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치욕을 참아 내는 힘은 사상(四相)이 없었기 때 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그리고 영인스님의 법문에서 들려준 현우경(賢愚經)에 의하면 옛날 석존(釋尊)은 찬디바리(屬提波梨)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계실 때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가리왕(歌利王)이란 사람이 있었다.

찬디바리는 인욕(忍辱)을 실천하기 위하여 산중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때 마침 가리왕은 많은 신하와 궁녀를 데리고 이 산으로 사냥을 왔다. 왕은 점심을

먹은 후 노곤하여 잠이 들었다. 궁녀들은 이 틈을 타 놀러 나갔는데 한참 가다보니 찬디바리가 단정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가슴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와 꽃을 꺾어 찬디바리 주위에 뿌리고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설법을 듣게 되었다.

한편 왕은 잠을 깨어 사방을 둘러보니 궁녀들이 보이지 않는지라, 여러 대신들을 대동하고 궁녀들을 찾아나서 여인들과 찬디바리가 같이 앉아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모습을 보자, 가리왕은 질투심이 솟아올랐다.

가리왕은 찬디바리에게 물었다.

“너는 사공정(四空定)에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너는 사무량심(四無量心)에서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너는 사선사(四禪事)에서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너는 아무런 공덕을 얻은 바가 없다면 일개 범부에 지나지 않는 놈이로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궁녀를 데리고 품 잡으며 설법하고 야단이야?”

“도대체 너는 뭘 하는 놈이냐?”

“예.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가리왕은 날쌔 칼을 쭈욱 빼들었다.

“네 이놈! 내가 정말 인욕을 수행하는 자라면, 네 인욕을 내가 당장 시험하리라.”

하고 양 팔을 싹뚝 잘라버렸다.

“너 정말 뭐 하는 놈이야?”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시 찬디바리의 양 다리를 싹뚝 베어버렸다.

“다시 묻건대, 너는 정말 뭐하는 놈이야?”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오른 가리왕은 찬디바리의 머리카락을 움켜지고 찬디바리의 코를 싸악 베어버렸다.

이때도, 찬디바리는 안색이 하나도 동요함이 없이 인욕을 수행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때였다. 하늘과 땅이 여섯번 크게 다른 모습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 때 선인(仙人)의 500제자들이 허공을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니 찬디바리에게 묻는 것이었다.

“찬디바리님 이시여!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도 인욕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나이까?”

“내 마음 한 치의 변화도 없다”

가리왕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경악하였다. 그래서 찬디바리에게 다시 물었다.

“네가 아직도 인욕을 운운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我若實忍, 至誠不虛, 血當爲乳, 身當還復.

아약실인, 지성불허, 혈당위유, 신당환복

“내 진실로 인욕 하는 마음이 지성하여 거짓됨이 없다면, 내 흘린 피 젖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잘린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고 말하였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피가 드디어 우유빛 같은 젖이 되고, 예전과 같이 몸이 온전하게 되돌아 왔다.

이에 찬디바리의 인욕바라미가 입증되는 것을 보고 가리왕의 공포는 더욱 짙어졌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제가 대선(大仙)을 욕보였으나 그대는 나를 오직 가엾게만 여겼을 뿐이외다. 나의 참회를 받으소서.”

이에 찬디바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汝以女色, 刀截我形, 吾忍如地, 我後成佛, 先以慧刀, 斷汝三毒.

여이여색, 도절아형, 오인여지, 아후성불, 선이혜도, 단여삼독

“그대는 여색으로 인하여 나의 형체를 도륙하였도다. 나는 이와 같이 참았노라. 내 훗날 부처가 되면 지혜의 칼로 먼저 너의 삼독(三毒:貪瞋癡 : 탐진치)을 치리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 산중의 모든 용들과 귀신들이 가리왕이 찬디바리 선인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큰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고, 번개와 벼락을 쳐 가리왕과 그 모든 권속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때 찬디바리 선인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외치기를,
“그대들이여! 그대들이 진정으로 날 위한다면 이들을 해치지 말라.”

이때 비로소 가리왕이 크게 뉘우치고 찬디바리 선인을 궁궐로 모셔다가 잘 공양하더라 하는 현우경의 인욕비라밀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말이 화엄경(華嚴經卷 5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佛子, 菩薩摩訶薩, 或被眾生, 訶罵毀訾, 撻打楚撻, 或截手足, 或割耳鼻,

불자, 보살마하살, 호피중생, 가매훼자, 과타초달, 흑절수족, 흑할이비,

或挑其目, 或絞其頭, 如是一切, 皆能忍受, 終不因此生患害心…….

흑도기목, 흑교기두, 여시일체, 개능인수, 종불인차생에해심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흑시 중생의 꾸짖고 훼방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초달(楚撻)을 치기도 하며, 손과 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베고 눈을 뽑고 머리를 찍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두 참고, 그로 말미암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한다. 위와 같은 경전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만약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용맹 정진했다.

IX. 운수행각에 나서다

어느덧 입산한 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마침 오늘은 하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보름날이었다. 이제는 동안거가 시작될 때까지 운수행각을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떠도는 뜬구름, 흘러가는 강물처럼 발길 닿는 대로 탁발하고 풍찬노숙을 하기로 하여 바리때와 간단한 도구를 준비한 바랑을 짊어지고 일주문을 나섰다.

이제는 정치 없이 떠나야한다. 떠나는 것도 수도의 한 방법이다. 누가 오라는 곳도 없고, 그렇다고 가라는 사람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요, 죽을 때 누가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한 일도 없다.

어연 절간에서 나 온지 벌써 한 달은 넘어섰다.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속과 이미 인연을 끊는 운수승으로 꼭 만나 볼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이 태어난 곳 수룡리(화순) 마을에 들어가니 어릴 때 같이 놀던 죽마고우들은 백발이 되었거나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도 있었고, 낫 서른 젊은이 들이 이 노승을 알아볼 이가 없었다. 세월이 흘렀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참으로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었다. 이 고장은 내가 태어나고, 나의 부모님이 고이 잠들어 계시고, 어린 동생이 애처롭게 숨을 거둔 곳이다. 그뿐이라, 윤금란 낭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어 3년 동안 달콤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곳이기도 했다. 이 동네는 변한 것이 너무 많았다. 옛날에 흐르던 시냇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산등성이에는 길이 나고,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참으로 '우주의 만물은 항상 유전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음(諸行無常·제행무상)'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담스님은 대왕산에 올라갔다. 이게 몇 십년 만인가. 어린 시절 뛰어 놀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갔다. '무릅 있는 바의 형상이 모두 허망한 것이다(凡所有相, 皆是虛妄 : 범소유상, 개시허망)'라는 금강경의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다. 이제 어딘가를 향하여 정치 없이 떠나야 한다. 발길 닿는 대로 가야한다. 수행자가 한 곳에 너무 머무는 것도 집착이

다. 수행인은 우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디로 갈 것인지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때는 무더운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승복은 땀으로 흠뻑 젖고 하루 종일 굵은 땀으로 배는 고프고 목이 타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X. 형제암을 짓다

운수승의 발 거름을 멈춘 곳은 소나무로 수해를 이룬 대왕산 기슭이었다. 여기 서방재 밑에 웅달샘 두 곳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는 기갈이 심한지라 표주박도 없이 엎드려 물을 마음껏 마시니 정신이 맑아지고 뱃속이 시원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이 산골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맛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은 생전 처음 마셔보는 것이었다. 졸졸 흐르는 물에 몸을 닦고 소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한참 동안 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서산으로 해는 기울고 있었다.

이제 또 떠나야 한다. 결망을 챙기고 막 일어서려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에 노승은 온힘을 내어 일어섰으나 한 발짝도 나아 갈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번이 일어난 것이다.

멀쩡한 정신으로 소위 수도종인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없다. 아직도 해가 서산에 걸려 있는데 도깨비 장난이 아니겠지? 분명 꿈은 아니다. 이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연호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옴 치림 옴 치림 옴 치림’ 이렇게 호신진언을 외우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염불했다. 노승은 순간적으로 발을 움직일 수 있었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이곳은 나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내가 어릴 때 이 곳에 와서 진달래 꽃잎도 따고 가재도 잡으며 놀았던 추억이 아련히 머리를 스쳐 갔다. 그리고 가난에 쪼들리며 살다가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애지중지하던 어린 동생의 죽음, 윤금란 아가씨와의 3년 동안 금슬지락 등 이러한 과거의 환상에 짓눌려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다. 생각하니 만사는 일장춘몽

이었다.

노승은 무릎을 치며 아 ~ 그렇고 말고, 여기에 내가 할 일이 하나 있구나.

그때 왜구의 침략으로 국력이 기울고 백성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였다. 나는 이 자리에 절을 짓고, 왜구에게 무참히 죽은 고혼들의 극락정토 왕생을 축원하고,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며, 아울러 국태민안을 기원하겠다고 작심했다.

이미 해는 저물고 하여 갈 곳 없는 노승은 주린 배를 움켜잡고 나뭇가지와 풀을 베어다가 이불로 삼고 깊은 잠에 들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동산에 해가 뜨기 시작했다. 노승은 바로 큰절에 가서 스님들과 의론하고 이어 동네 사람들의 협조를 구했다. 예상외로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밤낮으로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이 벅찬 불사였다. 그야말로 일신양역이 아니라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지성감천이라고 큰절에서 도움을 받고 동네 사람들의 보시를 받았다. 이렇게 정성이 담긴 연보로 사찰을 짓는데 예상보다 공사 진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년 3개월 만에 준공을 2~3일 앞두고 있었다.

이제는 절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며칠동안 궁리해 보았으나 썩 마음에 드는 이름을 생각해 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 흥복이 나타나서 하는 첫 마디가,

“형님 절집 짓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고는 형의 손을 꼭 잡는다.

“형님 제가 절 이름을 지어주고 가겠습니다.”

“야, 흥복아 집을 짓기가 어렵지. 절 이름이야 아무렇게나 지으면 어떠하냐?”

“형님과 저는 영원한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므로 암자 이름을 ‘형제암(兄弟庵)’이라고 하면 어떠할까 합니다.”

개어보니 꿈이었다. 비록 암자지만 이제 완벽하게 사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단청도 끝내고 개안 개금불사도 마무리 하고, 법당 안에 아미타불을 주불

로,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셨다.

후불탱화로는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극락회상도(極樂會上圖)와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들을 거느리고 염불수행자의 극락왕생을 맞으려 오는 광경을 묘사한 염불왕생첩경지도(念佛往生捷徑之圖)며, 관무량수경을 근거로 하여 극락세계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한 관경16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을 걸고, 문 위에“兄弟庵”이란 현판을 달았다.

이제는 사찰의 면모를 갖췄다. 그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끼니를 먹으며 잠도 자지 않고 생사를 걸고 3년이란 세월 동안 수도를 하던 중이었다.

XI. 왜구가 침입하다

이 무렵은 고려 31대 공민왕 때의 일이다. 흥건적의 침범으로 국력이 소모되어 국운이 기울어져 갈 시기에 마침 요승 신돈이 국정에 관여하게 되어 나라의 형편은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외외환으로 나라의 정사는 문란해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사직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되어 망국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수선한 때 마침 이 나라 조정에 기가 막힌 비보가 날라 들었다.

수많은 왜구들이 서해안에 상륙하여 태안군을 점령하였다. 왜구가 침입하자 이에 관료들을 혼비백산하여 어디론가 도망하고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무고한 양민들을 왜구의 창칼에 치참하게 학살당하여 많은 시체가 흩어져 있고, 민가의 식량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가옥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자행하여 이 고을은 이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왜구들은 고려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가는 곳마다 성곽을 함락하고 승승장구하여 서울을 향하여 진격해 온다는 급보인 것이다. 조정에서는 평소 글이나 한다는 턱으로 벼슬자리에 앉아 시위소찬하던 문약한 대신들과 벼슬아치들은 이 위급한 소식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

다. 이때 공민왕은 중신회의를 열고 말하기를,

짐이 부덕한 소치로 정사를 잘못 보아 왜놈에게 침략의 기회를 주어 허점을 보였으니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하며 깊게 반성합니다. 승상 이하 중신들께서 이 나라의 위기를 벗어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묘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 궁전 안은 한참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이었다. 중구난방으로 도저히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왕은 말하기를 며칠 전에 왜국에 밀파된 정보원의 말을 분석해보면 왜국의 조정에서 침략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침입한 왜구들이 하루아침에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구의 조직과 규모면에서 왜구(倭寇)라기 보다 왜적(倭敵)이란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규군처럼 조직화되어 막강한 화력과 잘 훈련된 군사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일본국에서 정식으로 정규군을 출정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이 왜구들이 수시로 해변으로 침입하여 공공연하게 재물과 농산품을 강제로 약탈하고 민가에 방화를 하고 문화재를 강탈해 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여기에 반항하면 여지없이 생명을 뺏어갑니다.

이 흉악무도한 왜구를 몰아내자면 지구전으로 나아가야 승산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정과 만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이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 오랜 싸움을 견디자면 첫째로 많은 군량미 확보가 중요하고, 둘째는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셋째 용맹한 군사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이제 국가총력전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위급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조정의 문무 백관과 온 백성들은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왜놈에게 이 나라를 내 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조정에서는 각 부서에 몇 사람만 남겨 놓고 칼을 뽑아 들고 진중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왕은 비장한 각오로 완벽하게 임전태세를 갖추라고 문무백관에게 명령하고 전국에 비상시국임을 선포하셨다.

XII. 토성산성의 전투

이때 태안 백화산성은 이미 왜구의 손에 함락되었고 태안군은 폐군되어 무고한 양민들은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러나 토성산성을 지키던 고려군은 최후의 일각까지 성을 지키다가 옥쇄하겠다는 일념으로 치열하게 왜구에게 항전했다. 이 토성산성은 왜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오직하면 이 산성을 가리켜 ‘무간지옥’이라는 별칭이 생겨 날 정도로 접근을 삼가 했다고 하며, 왜국에서는 고려국 침범에 큰 장애가 된다 하여 토성산성 공략에 용맹스러운 장수를 선발하여 출정시켰다는 것이다.

이 난공불락의 토성산성의 위치는 천연적인 지리적 조건이 좋았다. 토성산성의 맞은 바래기 전막산 아래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여기에 돌다리가 놓여 있었다. 왜구들이 내륙지방으로 진입하자면 이 돌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번 왜구들은 이 돌다리를 건너다가 전막산에 잠복했던 군사들과 토성산성의 군사들이 합세하여 일제히 적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여러 차례 왜구를 물리친 작전상 요충지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요새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략상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고려군은 오랜 전쟁에 몹시 지쳐 있었다. 이 토성산성 전투만 해도 3년간의 일진일퇴의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지루한 지구전 이었다.

마침 이 성안의 지휘관은 중낭장 ‘박칭’이었다. 그는 공민왕이 직접 발탁하여 토성산성에 투입된 지략과 용병술이 뛰어난 무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덕이 많고

성품이 착하여 자기 가족처럼 부하를 잘 거느려서 군사들의 사기는 등천하여 의기양양했다.

한 때 이런 일도 있었다. 한 군졸이 싸움터에서 부상한 허벅다리가 썩어 들어갈 때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이 환처에 약을 발라주니 하루 밤 사이에 신기하게 완치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박청장군은 지구전에 대비하여 전술을 바꿨다. 그 동안의 공격위주로 하던 작전에서 방어전으로 전환하여 시일을 오래 끌도록 하기로 하고 허허실실의 전법을 쓰기로 했다.

낮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공격을 하지 않고 군사들을 휴식시키고 밤에는 야음을 틈타서 성밖으로 나가 기습공격 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대할 왜구들은 며칠 전 대결하던 왜구와는 달리 처음 상대하기 때문에 전술을 예측할 수 없었다. 박청장군은 이런 작전계획을 세웠다. 성밖 동쪽에 비좁고 깊은 골짜기가 있다. 여기에서 북과 징을 치고 군사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기세를 올렸다. 이에 왜구들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일제히 공격해 왔다. 이에 고려군은 재빨리 병력을 철수하고 이미 건너 산에 배치된 복병들은 왜적을 포위하고 일제히 사격하여 독안에 든 쥐 잡듯이 일망타진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렇게 밤사이 짧은 시간의 전투에서 왜구는 수천 명이 전사하여 이 성 골짜기에는 시산혈해를 이루었다. 이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술이 박청장군이 지휘한 전투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참으로 그 짧은 시간에 치열한 전투에서 이만큼의 전과는 전쟁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전투는 하늘이 도와준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때 군사들은 의기가 충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박청장군을 중랑장에서 장군으로 특진시켜 그 전공을 높이 평가하고 이 성안의 군사들의 공로를 표창했다.

그 후 왜구는 이 성 부근에 일체 출몰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너 달은 평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왜구들이 어느 날 밤 갑자기 토성산성을 완전포위하고 왜장이 큰 소리로 박청이란 놈은 당장 무릎 꿇고 항복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왜장은 선두에 서서 시퍼런 칼날을 들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왜적의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던 토성산성도 항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왜국에서도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란 토성산성도 왜적의 계속된 인해전술의 침략에 견디기 힘이 들고 성안의 사정은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오랜 전투에서 군량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사정이 너무 심각했다.

이에 박청 장군은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정보수집과 군량 수급대책을 논의했으나 쉽게 묘안이 나오지 않고 중구난방이었다. 밤새도록 논의 하던 중 이때 노련한 별장이 말하기를 오늘밤에 재치 있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30명만 선발하여 성밖으로 내 보내되 2개조로 편성하여 대어섯 사람은 스님을 가장하여 민가에 가서 탁발하면서 왜구의 동정도 살피고, 나머지 군사들은 주로 군량미를 성안으로 왜구 몰래 운반해 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대하여 좋은 방안이라 하는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이제 군사들은 하나 둘씩 몰래 성을 빠져 나왔다. 그 후 며칠이 지났을까 성안에는 군량미 5개월분이 확보되고 왜적의 비밀정보도 입수하여 분석하고 전략상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 놓았다.

한숨 돌린 박청장군은 계절풍을 이용하여 지연(紙鳶)에 ‘백성들이여 총궐기하여 왜구를 물리치자’ 라고 써서 호소문을 성밖으로 날려 보냈다. 이를 보고 백성들은 너도 나도 창의(倡義)에 동조하여 수많은 의병이 일어나서 성밖의 왜구들과 결사 항전했다. 이때 박청장군은 또 전술을 바꿨다. 방어전에서 공격전으로 하여 직접 선두에서 창을 들고 성밖으로 나가 군사들을 진두지휘했다. 이 싸움에서 왜구 수천 명을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게 웬 청천벽력인가. 박청 장군의 가슴에 화살촉이 박혀 중태에 빠졌다.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그는 유언을 남겼다. 나는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여한이 없다. 그러나 이 강토에 왜구의 무리가 남아 있는 한 내가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천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숨을 거두거든

죽었다고 외부에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시신은 성밖 남쪽 기슭에 봉분 없이 묻어 달려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XIII. 佛力으로 倭寇를 몰아내다

토성산성에서 패주했던 왜구들은 정예군으로 재정비하여 편성하고 다시 공격해 왔다.

왜구의 지휘관은 전술에 뛰어난 전략가로 구척장신에 눈은 독수리 눈알처럼 번쩍이며 살기등등한 험상궂은 얼굴이었다. 이 왜장은 시퍼런 장검을 빼들고 직접 진두지휘하며 큰 소리로 쥐새끼 같은 고려 놈의 장수 박청 나오라고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여 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위세는 금방 토성산성이 함락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이변일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왜구들이 발이 땅에 붙어 한 발짝도 내 디딜 수가 없었다. 왜구들은 글자 그대로 요지부동이 있었다. 이렇게 예상 못한 이변이 생기자 왜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재차 돌진을 명령했으나 군사들은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왜장은 더욱 격분하여 고래고래 고향을 질렀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무슨 연고로 움직이지 못하는가? 부하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영문을 몰라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왜장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필경 고려놈들의 요술임에 틀림없다. 여 보라 군사들이여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각부터 이 산골 부근을 살살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말고 잡아 없애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던 왜적들이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와~ 와~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소나무 숲 속으로 돌진하여 토성산성 주변을 헤매며 수색했으나 아무런 흔적 하나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척후병이 들으니 대왕산 기슭에서 그윽한 풍경소리에 엽불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는 보고였다. 이 보고를 들

은 왜장은 좋은 기회가 왔다고 흥희작약했다. 이에 왜구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포박하여 소나무가 우거진 숲 속으로 접근하니 아담한 암자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본 왜구들은 쾌재를 부르며 미친 듯이 창칼을 들고 신발을 시은 채 무례하게 극락전의 문을 걷어차고 침입하여 때 마침 염주를 굴리며 부처님 앞에 엽불하고 삼매에 든 설담스님에게 무조건 덤벼들어 스님을 밧줄로 퐁퐁 포박하여 물건 다루듯이 왜장 앞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스님은 비록 체포되어 끌려오긴 했으나, 조금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계속 엽불하면서 얼굴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태연하게 합장하고 있었다.

이에 왜장은 화난 표정으로 스님을 내려다보며 목을 금방 자를 듯이 시퍼런 칼날을 번쩍이며, 이 늙은 중놈은 듣거라.

나는 고려의 국난을 평정하고자 물 건너에서 원정하러 온 일본 대국의 장수인데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어찌하여 해괴망측하고 요망스러운 요술을 부려 군사들의 진격을 방해하느냐 하고 고향을 지르니 그 소리는 산골이 진동했다.

그러나 노스님은 조용한 얼굴빛을 하며 합장한 채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하더니,

“일본군 장수는 조용히 명심하고 들으시오.

법구경(法句經)에 이르기를,

舉眾輕之 有力者忍 夫忍爲上 宜常忍羸

거중경지 유력자인 부인위상 의영인리

“모든 사람들이 업신여기더라도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참는다.

대저 참는 것이 으뜸이며 마땅히 항상 지는 것을 참아라.”

고 하였습니다. 또한 옛날 한산(寒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瞋是心中火 能燒功德林 欲行菩薩道 忍辱護直心

진시심중화 능소공덕립 옥행보살도 인육호직심

“성내는 마음은 마음속의 불 공덕의 숲을 살라 버린다.

보살의 길을 행하고자 하거든 욕을 참으며 곧은 마음을 지녀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노승은 쉬지 않고 인육바라밀(忍辱波羅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더라도 수행에 아무런 걸림이 없이 수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행이 즐겁습니다.

마음속의 불이 타 오르면 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화가 미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주소.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의 이미 가지고 있는 불성의 공덕을 불사르게 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는 것은 삼악도(三惡道) 뿐입니다. 아무리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참고 견디는 자만이 보살의 길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런 일이 없이 우순풍조하고 시화연풍하여 백성들은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정이 무능하기로 나라의 국정 때문에 남의 나라에 구원병을 청하겠습니까? 절대로 이 나라는 국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망스러운 술수는 그대의 섬나라 일본에는 있는지 모르나, 이 나라 고려는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이 높은 중은 불법에 귀의하여 마음과 몸을 닦고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불도를 닦는 부처님의 제자이거늘 어찌 샅된 짓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대의 군대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필경 부처님의 뜻이 아닌가 하오. 다시 말하면 많은 중생을 살생하는 일은 부처님이 경계하신 중에서 가장 무겁고 큰 죄악이 될 것이요, 만약 그 죄업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면 지장보살님이라도 구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대의 군사들이 조금 전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은 그 동안 불법을 어기고 많은 사람을 살생한 연고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군사를 거두어 조용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생중죄의 업보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여 반드시 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아까우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오.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나라 일본에 고려군이 침입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양민을 학살하고 부녀자를 욕보이며 집에 불을 지른다면 일본인 당신께서 어떻게 처신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왜장은 얼굴빛이 노랗게 변하더니,

“뭐라고 이 미친 늙은 중놈아! 바카야로(馬鹿) 어찌고 저찌고 어떻게고?”

고래 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렇다면 요놈의 형제암 부처부터 박살내야겠다. 이 봐라. 이 늙은 중을 끌고 불상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부처의 요사스러운 목이 단칼에 떨어지는 꼴을 똑똑히 보여주리라.”

하고 왜장은 절 앞의 미륵석불을 단숨에 깨트리고, 극락전에 자비롭게 미소 짓고 계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삼존불상의 목을 번개같이 내리쳤다. 그러자 짹 하는 소리와 함께 불상의 머리부분이 동강이 나서 마루에 떨어졌다. 참으로 왜장의 수련된 검술은 수많은 도적 떼를 지휘할 만 했으며 칼 또한 명검이었다. 이어서 극락회상도, 염불왕생첩경지도, 관경16관변상도 등도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바로 이 때였다. 부처님 잘린 목에서 피가 샘물 솟듯 솟구쳐 나와 왜장의 얼굴은 온통 피로 뒤덮여서 왜장은 인사불성이 되었다.

갑자기 온 천지가 개벽할 듯이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번개가 번쩍이다 뇌성벽력이 울리며 회오리바람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대담하던 왜장은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왜장은 간신히 숨을 돌린 후 노스님에게 자기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고 부하들에게 결박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를 면하기에는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너무나 엄청난 오역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려치는 벼락에 맞아 왜장은 비명을 지르며 사람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편 지휘관을 잃은 왜구의 졸개들은 무장지졸이 되어 우왕좌왕 허둥댔다. 왜구들은 절에 불을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좌초된 선박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토성산성과 대왕산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의병들과 합세하여 왜구를 포위하고 공격하니 아비규환이었다. 왜구들은 진퇴양난으로 기진맥진하여 제대로 항전하지 못하고 불귀의 고향이 되고 말았다. 대왕산 골짜기에는 시산혈해를 이루고 썩은 시체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패전의 수모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왜구들은 다시는 토성산성 부근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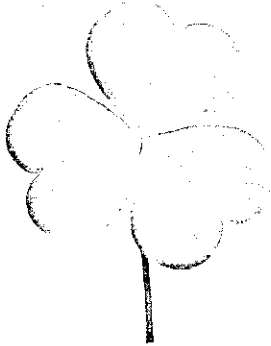
▶ 문화원 임원현황 ◀

▶ 태안문화원 문화가족 가입안내 ◀

○ 이사·감사 명단 ○

직 위	성 명	주 소
원 장	정 우 영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28-11
부 원 장	윤 계 동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697
부 원 장	강 인 식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172
이 사	가 덕 소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23-16
이 사	강 찬 익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47
이 사	김 영 규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69
이 사	문 연 식	태안군 태안읍 주공APT 101-204
이 사	문 영 식	태안군 태안읍 남문4리 318-2
이 사	배 광 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62
이 사	백 정 흘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20
이 사	손 명 승	태안군 이원면 포지1리 33-5
이 사	신 세 철	태안군 남면 신장1리 103
이 사	유 익 환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154
이 사	이 복 희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67-73
이 사	이 용 복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753
이 사	이 재 규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31
이 사	이 재 영	태안군 태안읍 동문1리 777
이 사	정 낙 추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303-2
이 사	조 종 식	태안군 원북면 장대리 484
이 사	한 원 석	태안군 이원면 관리 867
감 사	윤 길 상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135
감 사	지 우 하	태안군 태안읍 주공APT 108-603
자문위원	윤 형 상	태안군 소원면 시목1리 10
자문위원	홍 욱 기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신동아APT 104-805
자문위원	남 제 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25-2
자문위원	이 성 주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2
자문위원	윤 태 의	태안군 소원면 송현2리
자문위원	가 기 순	태안군 남면 달산리 1183-6
자문위원	지 요 하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09-2 샘골연립 나동 10
고 문	이 갑 춘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7
고 문	김 종 락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278
고 문	정 성 태	태안군 남면 신장리 379

태안문화원 문화가족 가입안내



우리지역(태안군)의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태안문화원이 지역문화창달의 목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태안문화원이 하는 일

-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발굴·계승을 주 목적으로 한다.
 -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교육활동
 -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문화가족이 되시면(권리 및 대우)

-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화정보를 최우선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 문화가족(회원)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지역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문화원에서 발행되는 각종자료와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문화가족의 조건 및 의무

- 일반회원 - 태안의 문화에 관심있는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가능
- 특별회원 - 거주지를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태안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
 - 일반회비 연10,000원, 특별회비 연 50,000원 이상

가입요령 및 절차

- 문화원 방문 또는 회비 납부후(계좌입금) 전화로 가입가능
- 계좌번호 : 457-01-167220 (농협중앙회) 예금주 : 태안문화원
- 주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을 남문리 53-11번지(우 : 357-902)
- 문의전화 : 041)674-2192

소성의 향기

▶▶ 제11집

인쇄일_2005년 12월 15일
발행일_2005년 12월 20일
발행인_정우영
편집인_김명식
편집위원_김영규, 정낙추
발행처_태안문화원
주 소_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3-11
전 화_(041) 674-2192

펴낸곳_도서출판 한솔
인 쇠_한솔인쇄기획
주 소_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232-1
전 화_(041) 674-0308
등 록_1999년 4월 24일, 제 99-1호

©태안문화원 2005

※ 이 책은 태안군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비매출)